



1

198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7. 1호

(루게 471)



◆◆◆◆◆◆◆◆◆◆ 차 례 ◆◆◆◆◆◆◆◆◆◆

축원의 노래	4
인민의 지도자	5
고향집 뒤뜰의 소나무는	6
희망	7
평양	8
평양국제 문학토론회	8
꽃이불	9
기다림속에	9
수도에 돌아와	11
인민의 념원	12
새해가 밝아올무렵에	14
사랑의 대기념비-평양산원을 찾아서	16
새롭지 않은 이야기	19
내 마음	26
《광복의 천리길》을 간다	27
나는 군인건설자	28
길	29
사회주의애국주의를 구현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39

영웅들이 사는 땅	43
모닥불이 탄다	43
따뜻한 해빛은 지붕을 덮고... ..	44
연공들이 내린다	44
청춘이여!	45
나는 광복거리를 걷는다	46
목은 미지수	47
칠보산	63
과학자의 전형적성격 탐구	65
바쁜 걸음	70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	71
수호자의 새 모습	73
우리 집	74
아버지란 부름앞에	79

축원의 노래

김정곤

새해의 아침에
나는 축원의 노래를 부르노라

더벅머리총각나이에
첫 분여지의 패말을 안고 울던 젊은이
지금은 땅과 함께 백발이 된
흙처럼 순박한 그 마음을 담아

나는 부르노라
이름없는 용해공의 집에서
장판방 아래옷목을 다 짚어보시던
그 사랑의 온기 봄날처럼 넘친 창가에서
흰눈우에 피워온 꽃송이들을
한가지 두가지 골라 바구니에 새기는
그 간절한 진정을 담아

나는 부르노라
바람벽에 새 달력을 갈아대이며
말없이 걸음을 멈춘 그 마음들
4월을 생각하는
그 가슴들에
밀물처럼 차오르는 소원을 안고

한해 두해...
설눈은 내리고 또 녹았어도
인민의 가슴에 쌓인 축원을
탑으로 세우면
구름을 휘감고
저 푸른 창공에도 닿으리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차고넘친 이 축원을
그대로 다 받으셔야 할 오늘
아, 백두를 주름잡으시던 령장의 걸음으로

어제는 언제우에 옷깃을 날리시며
서해갑문우에 환한 웃음을 남기시고

그 웃음을 안고
온 나라가 잠든 그 밤에는
밀영의 귀틀집에서
등불심지 돋구시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로작을 집필하시며
그날처럼 또 밤을 지새우신
우리 수령님

상록수 설레이는 청사의 트랙을
아프리카의 한 손님과 거니시던 걸음으로
찬비내리는 씨비리 광막한 초원을 넘어
크레몰리광장에 이어진 자옥자옥

그이 걸으시는 한자옥 한자옥은
그이 이어가시는 한초 한초는
인민의 가슴에 기쁨의 대하로 굽이쳐오고
인민의 앞날에 해쏜는 하늘로 열려지나니

아아
나의 한평생이
우리모두의 한생이
이 시공간을 가득 채우며
우리 수령님 편히 쉬실 그 하루를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바쳐드릴 한마음

이 한마음을 안고
나는 부르노라
설날 이 아침
큰절을 드리는 세배동이들의
맑디맑은 목소리에
내 축원의 노래도 합치노라

인민의 지도자

동기춘

1

봄날처럼

해빛처럼

우리의 생활속에

오신분

념원의 노을타는

기다린 언덕을 넘어

산막바지 작은 집에도

골고루 소중히 나눠주실

생활의 환희를 안고오실제

-지도자동지!

인민은 첫눈에

그이가 바로 기다린분

심장으로 그분임을 알았다

은혜를 입으면서도 다 모르던

운명의 등불

그것을 마디 굵은 손들에 쥐여주시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

이 길로 가자 말씀하실 때

문득 들려왔다

어데선가 가까이

훈훈한 봄바람이 푸른 자락으로

꽃을 안고 오는 걸음소리

한끝 지향의 바다로

마음을 즐거이 실어가는

내물소리

세월의 물결소리도 들었다

2

인민을 사랑하신

수령님처럼

그 인민을 돌보시려

오신분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이

행복만이 아니라 피로움이

가슴언저리에 구름처럼 무거운 때

그런 때 그런곳이면

품을 벌려 어머니되어 계셨다

나락이 감기는 두렁길에서

쇠밥이 밝히는 구내길에서

아니면 날바다 비뿌리는 언제

그리고 저 먼 밀림의 한끝에서

어려울 때 부축하시고

피로울 때 손잡아주신분!

가슴에 뭉클 솟은 뜨거움이

따르리라! 신념으로 굳은 인민이기에

해빛받은 이슬같이

맑은 웃음 지으며

봄비 맞은 새싹인양

티없이 돌움하며

우러러 우러러

혁명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은
진펄길도 즐거이 헤쳐나아가고
불타는 강에도 쓰러지지 않을 냇을 지녔어라

그이는 우리와
가장 친근하신분
그이는 우리와 허물없는 언어로
진리만을 진리만을 이야기하신다

어려운 때는
어렵다 말씀하시며
촌늬은이의 소박한 아뢰임도
귀중히 여기시여 귀기울이신다

주체위업의 한길에
찬눈 찬비는 한몸으로 막으시며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주시려

인민의 운명을 안고 걱정하시는분

오, **김정일**동지, 그이를
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로 모시고 따르나니
격앙된 인민의 영광은
바다를 물방울로 세일수 없듯이
가늠못할 그런것이여라

우주의 저 아득함
그 아무리 가없다 말을 해도
그 진리조차
가본적 없어 다 믿지 못함은 있어도

인민이 다 믿고 다 아는것은
오직 그이뿐
우리모두를 대변하신
그이는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고향집 뒤뜰의 소나무는

서진명

날 반기는
어머니 목소리 듣기도전에
멀리서부터 마주오며
청솔가지 흔들어주는
고향집 뒤뜰의 소나무

여름날에 찾아도
그 유정한 푸른빛
눈오는 날에는

그 푸른빛 더 진하게 단장해
동구밖 멀리서도 보여오는 소나무

찾을적마다
그 소나무 내게 속삭여주네
해빛 좋으면 무성히 잎새 펼치고
눈이 오면 락엽으로 흩어지는
그런 허거픈 삶은 초목보다 못한것
그런 사람에겐 태어난 고향은 있어도
다시 찾을 고향이 없으리라네

희망

신문호

이날따라 장군봉도 키를 솟구고
물결도 환호로 설레이는가
웅장히 솟은 대기념비들을 지나
우리 수령님께서
삼지연 못가를 거니시여라...

자옥자옥에 천만리를 주름잡으시는듯
순간순간에 반세기를 돌이켜보시는듯
맑은물가의 너대원들군상을 보시며
이 호수가에 떨기지던 그 웃음소리도 들으시는듯...

하많은 추억을 안으시고
이윽도록 서계시는 수령님께
...조국진군의 그 봄날 맑은물 드시며
이곳에 휴양소를 짓고
인민들의 휴식터를 꾸리자던 그날의 리상
오늘은 현실로 되었다고 한 일군이 아뢰이는데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조용히 미소지으시여라
...희망을 잃지 않으면
모든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신념을
잃지 않는것입니다!

오, 준엄한 고난의 그 겨울
사선을 헤쳐넘어 맞으신
그 봄을 못잊으시여
수령님 하시는 그 말씀
삶과 투쟁의 진리가 깃든 그 가르치심에
밀림도 목메여 감격에 설레고
삼지연물결도 기슭을 적신다

재빛 하늘가에
망국의 석양이 비껴가고
빼앗겼던 이 땅에서

눈물아닌 원한의 피가 흐르던 그 시절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우등불가에서 대원들 가슴에
희망의 나래 펼치셨더라
봄은 오리라고-

껍임없는 신념의 기둥
흔들림없는 의지의 상상봉에
아름다운 희망의 나래 펼쳐주신 수령님
몸소 고난의 앞장에 서시고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앞길을 열어 멸적의 퇴성벽력 부르셨나니

그날의 환호성 비껴간 호반에서
싸워찾은 행복을 노래하는듯
미래를 꿈꾸는듯 너대원들 그 모습 정답고
위대한 주체위업을 전하며
하늘높이 대기념비 빛을 뿌리는
락원의 이 좋은 봄날-

우리 수령님
해빛보다 더 밝은 미소 지으시고
시를 읊으시는듯
노래를 부르시는듯
주시는 그 말씀 온 세계가 받아외우노라!
...희망을 잃지 않으면
모든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신념을
잃지 않는것입니다!

아, 세월의 눈비도 폭풍도 가리울수 없는
희망의 하늘, 희망의 태양이 있어
이 땅우에 주체로 빛나는 새시대는 꽃폈어라!
하여 인류는 희망의 나라로
위대한 수령님 모신 내 조국의 오늘도 래일도
부러워 바라보는것이여라!

평양

(배루) 엘 골렌

내 마음 머나먼곳으로
나래퍼고 달려가라
그곳엔 울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기쁨만이 넘쳐있어라
태양이 솟아 행복을 노래하는

살기 좋은 그곳을 찾아
내 마음 달려라
아, 이 세상 모든곳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평양 평양이여

평양국제문학토론회

알렉산드르 안드리쾰유

평화의 전사 전투가방속에서
세계지도를 꺼내여 펼치네
지도우엔 불길 타오르고
포연이 뭉개쳐 흐르네

아직 세계 이르는 곳곳에
전쟁의 화근이 남아있나니
시인들이여, 우리를 부른다
우리 함께 전쟁의 불길을 끄자고

노래속에 악기의 선율이 달아오르고
펜을 쥔 시인의 손 뜨거워지네
땅우에 떨어지는 포연탄우
인류의 기초를 허물려 하네

인류는 미래를 위하여
귀중한 오늘을 지켜 목소리 높이네
하여 문학토론회에 시를 합쳐

온 세상에 그 참된 뜻 전하려 하네

노래와 서정시, 헌시를 지어
찬가와 송가 속에 담으리
우리 펜으로 지구를 들어
세기를 금수로 수놓아가자

시상은 끝없이 용솟음쳐오르고
운물은 하늘높이 날아오르네
평화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투쟁
우리는 결백과 신념을 안고 뭉치리

평화는 진실과 아름다움의 상징
86년의 가을은 금문자로 아로새겨지리니
로년기를 모르는 영원한 청춘안고
우리모두 평양으로 모여왔네

(필자는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
이며 잡지 《파밀리아》 책임주필이며 시인임)

꽃이불

정천례

무슨 꽃을 놓아야
장군님 스무성상 쌓이신
혈전만리 그 로고 다 녹여드릴까
해바라기, 함박꽃 활짝 꽃피우시고

무슨 꽃을 피워야
백두에서 맞으신 눈비
찬이슬 다 가셔드릴까
백일홍, 들국화 송이송이 꽃피우시고

따뜻한 온돌방 한번 못질으시고
폭신한 솜이불 한번 모르시고
오직 나라를 건지려 한지에서 싸우신 그 나날이
찬얼음처럼 가슴에 맺히시여
어머님은 새기고 또 새기셨네
장군님 이불에 수를 놓으셨네

새긴 꽃 송이송이 향기로 감싸드려
항일전에 쌓인 피곤 다 푸시라고
새긴 꽃 송이송이 따뜻이 감싸드려
건국의 초행길에 수없이 또 맞으실
찬눈비 다 녹여드리라고
초생달을 벗하시고 그믐달을 벗하시고
수놓으신 꽃이불

아, 꽃이불, 꽃이불

전쟁의 불비속의 최전연
언제나 총탄과 포연을 막으며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되어
사랑과 온기를 준 꽃이불

해방산기슭에서 피어난 잊지 못할 꽃송이
오리오리 정성을 다 바쳐
어머님 새기신
만수축원의 념원은 꽃피어나

어버이수령님 청춘의 정력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주시길

수령님의 심려를 다 가셔드리고
수령님의 안녕위해 더 할일이 많은 우리
어머님의 진정을 대를 이어 따르려
언제나 꽃이불의 꽃을 보며 생각많은 우리 마음

만민의 념원담아 해마다 우리 꽃피우는
만수축원의 꽃바구니
만발하여 설레이는 명절의 꽃바다에
못잊을 꽃이불의 그 꽃송이가
함께 웃음짓네
영원히 그날의 향기 진하게 한껏 뿜으며

기다림속에

리금녀

날이 새면
풍풍 솟는 샘터에도
저물면 등잔불 타는 야학방에도
새라새소식이 밀려들던
해방연의 그해 가을

눈물속에 떠나갔던

마을사람들
한숨속에 끌려갔던
나의 아버지
그 언제 오려나
바라던 마음

강산을 진감하던

환호와 만세 속에
집집마다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
집집마다
바라는 소원도 많아

아, 그 기다림
그 애타는 갈망속에
새 조국의 숨결로
제일먼저 찾아온것
아버지도
그 무엇도 아닌
은혜론 당의 모습 !

자애론 그 모습
땅을 받은 농민의 눈물
씻어주던 그 손길
기별도 없이 찾아와
마음속 상처를 가져주던
인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불러
새 학교에로 이끌어주던
다심한
그 목소리

어찌 알았으랴
백두의 눈길은 행군길
피로 헤친 자욱자욱
꺼질줄 모르던 사령부의 불빛아래

나의 운명도
조국의 오늘도 꽃피고있었음을

아, 세월은 흘러
내몽당치마시절
잊지 못할 그 가을에 이어
시련을 이긴 내 나이를 더해주며
황금열매 주렁진
우리 샘골마을의 행복을 더해주며
마흔두해

마흔두해 하루같이
그 기발 우리 심장속에 불타고
그 하나의 대오속에
나를 세워주어
나의 하루는 당이 펼친 하루
당의 마흔두해는 조국의 마흔두해

당이어
천만의 소원을
그 한품에 안아 꽃피워주기에
기다림도
사람들의 마음도
세월과 더불어 새로와지련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일먼저 찾아주더라

오는 자욱소리도 없이
온다는 소식도 없이
해방연의 그날처럼
행복한 오늘처럼

수도에 돌아와

럼우봉

수도여, 돌아왔다
너를 떠나갔던 이 아들이
검덕의 시편을 건어안고
새해의 첫 아침에

새해의 첫 노래를
렬차방송에서 들으며
기다려 끄지 못한 구내등들
반가운 마중을 받으며

그렇더구나
산을 깎아 터를 잡은 합숙방에서도
너 역사의 시계탑
귀에 익은 그 종소리에 잠을 깬듯
아침마다 서둘러 창문을 열어보고

불꽃이 병긔거리는 인차에 올라
내 굴길을 지날 때에도
너 눈부신 지하철도에 들어서는데

아, 내 자주 찾아가던
막장전투지휘부에서도
저 당중앙창가의
밝은 불빛을 보고 또 보았나니

진정 이 몸은 떠나갔어도
마음은 이 마음만은 함께 있던
나의 수도여!

하루 한번

석수에 미끄러운
수직사다리를 내리며
한교대친구로 사귀 착암수들과
뿔어치는 돌물도 함께 들쓰며

나는 알았구나
너 수도의 변화한 생활들이
들리느니 요란한 착암기소리뿐인,
보이느니 거무숙한 암벽뿐인
깊디깊은 막장파도 인연이 있음을

알았구나
어째서 광부들의 말소리가
밖에 나오면 크게 울리는지도
어째서 온 나라에 대고
크게 소리칠수 있는지도

내 만일 웅근 한해를
수도에서만 보냈더라면
달라진 너의 모습을 보는 내 눈길도
이렇게 이렇게 자랑차지 못했으리...

나는 다시 떠나가리라
위대한 수령님 새해 첫아침에
웅대하게 펼쳐주신 그 길을 따라
검덕의 아들이 되어
나의 광부모, 나의 안전등이
기둥뿔에 걸려있는 합숙방으로
나의 쇠돌 나의 시도
거기에 다 있는 정든 막장으로-

인민의 념원

리영춘

예로부터 사람들은 설날이 오면 서로의 행복을 축원하는것을 하나의 관례로 여겨왔다.

새해의 축원, 이 말속에는 행복한 생활, 화목한 가정, 건강한 몸, 사업의 성과...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소원과 기대가 다 담겨져있다.

이 땅에 사람이 생겨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설날아침이면 의례 마을의 좌상을 찾아가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새해에도 건강하라고 설인사를 드리는것은 오늘까지 내려오며 전해지는 하나의 관습이다. 또 먼곳에 있는 친척, 친구들에게 축하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된 주체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의 설인사는 어떠한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찬란히 비치는 밝은 태양이 행복넘치는 집집의 창문마다에 반가이 웃는 새해의 첫아침이다.

맞고 보낸 나날이 무수하고 해를 거듭하여 수십 번, 설날의 아침도 많고많았지만 어느때나 맑고 따사로우며 환희로운 저 태양.

동해의 푸른 물결 박차고 백두의 눈덮인 령봉우에 높이 솟아올라 조선의 아침을 선포한 이해의 장엄한 첫 태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갑게 찾아왔다.

일찍 일어난 아이들이 새벽부터 아버지원수님께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옷단장, 몸단장을 서두른다. 늦잠꾸러기 막내녀석도 어느새 벌써 멀끔히 세수하고 제먼저 옷을 차려입으며 부산을 댈다.

《아버지, 빨리 만수대언덕에 가자.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가서 아버지원수님께 인사드리자.》

《그래 우리 제일먼저 가서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새해인사를 드리자.》

거리에는 명절의 분위기가 넘치고 집집마다에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은 설아침 우리 가정은 상쾌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만수대언덕에 올라갔다. 벌써 명

절옷차림을 하고 손에손에 꽃다발을 든 사람들의 물결이 대하처럼 만수대언덕으로 흐르고있었다.

옛날같으면 이른새벽부터 틀지게 울방자를 틀고 앉아 장죽을 받았음직한 백발로인도, 유치원꼬마들도,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생활풍습이 다른 외국인들도 환희에 넘쳐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고있었다. 백화가 만발한 만수대언덕을 바라보는 나의 머리에는 몇달전에 있었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날 나는 일이 있어 집에 잠깐 들렀다. 내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방안에서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기질비료가 제일 좋아.》

그러자 뒤이어

《유기질비료도 좋지만 기본은 화학비료야.》 하고 누가 말하였다. 그것은 분명 동생한테 지지 않으려는 딸애의 목소리였다.

의견이 다른 오누이는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는 주장이다. 애들의 말은 끝이 낱상실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무슨 일때문에 싱갱이질인지 별로 알고고도 하지 않고 《원 녀석들두, 책을 보면 될걸 가지구...》 하고 심심히 말하였다.

하긴 아들애는 공부를 하다가 모를것이 있으면 누이한테 물어보는 때가 많았다. 그러면 딸애는 동생이 2학년이나 아래라는것을 영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치 생각하다나니 많은 경우 대충 설명해주곤 하였다. 지식이 얇은 아들애는 누이의 말이 리해되지 않아 콩이야 팔이야 따지고들다가는 곧잘 의견충돌을 일으키곤했던것이다. 그런 애들이어서 공부하다가 생긴 다툼질이겠거니 생각했다.

내가 방안에 들어가자 오누이는 무슨 심판원이나 만난듯이 반가와하며 나에게 매달렸다. 아마 나의 결론을 받자는 심산인것 같았다. 나는 모르는척하고 가지고가야 할 책들을 뽑아 가방에 넣었다.

나이는 13 살이지만 막내라고 해서 늘 나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아들애는 이 기회에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볼가 해서 능청스럽게 방글방글 웃으며 목에 매달렸다.

《아버지, 꽃봉오리를 크게 만들고 꽃을 곱게 피우자면 유기질비료를 주어야 하지요?》

《그럼.》

나는 가슴이 뜨거워났다. 모든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설명절을 앞두고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는 그들의 소행을 때늦게 안것이 민망스러웠다.

《아버지, 정확히 대답해주어요. 유기질비료보다 화학비료가 더 좋지요?》

《오냐, 그것도 좋단다.》

내가 두 애의 물음을 다같이 긍정하자 아들에는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진 중간파예요. 중간파는 혁명의... 뭐라드라...어쨌든 나빠요.》

나는 어이없어 허구프게 웃었다.

《허허 남혁이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구 막 감투를 씌우는구나.》

《이거면 이거구 저거면 저거라구 딱 잘라 말해야지요. 이것두 저것두 다 좋다는건 또 뭐예요.》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제일 크고 고운 꽃을 피워가지고 새해에 설인사를 올리려는 애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 나는 가슴이 찡해움을 느꼈다.

이런 《싸움》이야 천백번을 한들 어떠랴!

나는 애들앞에 모든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었다.

《남혁이 말대로 유기질비료를 듬북이 깔고 꽃씨를 뿌리면 꽃모가 실하게 나온단다. 그다음에 희옥이 말한대로 꽃모가 성장할 땐 성장비료를 주고 또 꽃이 필 때 꽃비료를 주면 더 아름다운 꽃이 필게다. 그러니 남혁이 말도 맞지만 희옥이 말도 맞지 않느냐.》

《야-》

두 애는 너무 기쁜 손뼉을 치며 강충강충 뛰기까지 하였다.

...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오니 책상우에는 두장의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한장은 남혁이가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유기질비료를 가져오겠다고 쓴것이요 다른 한장은 희옥이가 외가에 가서 화학비료를 가져오겠다고 쓴것이였다. 아마 둘이 약속하고 써놓은것 같았다. 편지의 글줄을 더듬는 나의 가슴엔 기쁨과 행복의 물결이 끝없이 흘러들고있었다.

셈이 든 자식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이랄가 아니면 자식을 다 키워놓은 부모의 행복이랄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것만도 아니다. 그렇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마음들이 기특하고 날을 따라 뜨거워만지는 그 심장들이 소중해 것처럼 가슴은 행복과 기쁨으로 물결치는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의 집에서만 있는 일이겠는가.

만수대에 찾아온 모든 사람,아니 온 나라 인민이 설날아침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큰절을 올릴 간절한 소망을 안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소중한 꽃씨를 저마다 뿌렸을것이다.》

꽃을 훌륭하게 피우자고 어데를 안가보았으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눈비도 가리지 않았으리라.

꽃을 잘 키우는데 어떤 독특한 묘술이 있는지 그걸 배우자고 편지인들 또한 얼마나 많이 띄웠으랴. 하기에 만수대언덕에 만발한 저 수천수만송이의 꽃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끝이 없는 그 충성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피어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우리 인민은 세기적 락후와 빈궁의 나락에서 오늘과 같은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올라설수 있었으며 창조적인 새생활이 약속하는 주체의 조국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에 활짝 꽃피우시려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 그 령도에 충성 다하는것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것이라는것을 우리 인민은 실천투쟁속에서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설날아침, 손에손에 향기그윽한 꽃묵음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물결쳐흐르는 충성스러운 모습들, 보다 휘황한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질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백가지 소원과 만가지 희망을 다 합쳐 만수축원의 인사를 올린다.

새해 첫아침을 맞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천만년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것이다.

이 시각 온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하나의 념원으로 도도히 굽이쳐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었고 래일의 승리와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시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여 삼가 웃짓을 여미며 설인사를 올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태양이 솟는다.

세대가 바뀌고 세기가 변하여도 영원히 빛을 뿌릴 새해 첫아침의 붉은 태양이...

새해가 밝아올무렵에

박혜란

한해의 날과 달을 변함없이 가져오던 자연의 법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해를 앞둔 그믐날의 하루를 이 땅에 마련하였다.

더우기 지난해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나에게 있어서 이해를 마무리하는 퇴근길의 저녁은 류다른 기분을 자아냈다. 그래서 인지 거리에 반짝이는 가로등도 이 밤따라 뜻깊은 그 무엇을 속삭이며 더욱 빛을 뿌리는듯싶었다.

밤이 꽤 깊었으나 집집의 창가마다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아마도 저 밝은 불빛아래서 사람들은 동터울 새날을 기다리며 그 어떤 보람차고 의의있는 시각을 보내고있을는지도 모른다.

집에 들어서니 생화꽃의 청신한 향기가 질게 풍기는 방안에 온 식구가 들어앉아 새해 첫아침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드릴 꽃바구니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고운 꽃을 더 먼저 고르겠다고 싱갱이질하던 두 동생이 나를 보자 저마다 달려와 손에 든 꽃뭉음을 자랑하였다.

《내 꽃이 곱지요?》

너동생의 물음에 막내동생이 《아니야, 내 꽃이 더 고와.》하고 응해달라는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그래, 별이 꽃두 남이 꽃두 다 곱구나.》

생화꽃을 한가슴 안고있는 동생들의 모습은 참말로 두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방불케 했다.

나의 칭찬에 동생들은 신바람이 나서 다시 꽃바구니앞에 마주앉았다.

나도 옷을 갈아입을새없이 그들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두가 향기롭고 고운 꽃들이어서 어느것부터 골라잡을지 몰라 망설이고있는데 막내동생이 꽃가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누나, 이거 우리가 키운거.》

활짝 피어난 노란 실국화송이를 보니 감회가 새로왔다. 유서깊은 만경대의 고향집들안에서 꽃씨를 받아 싹을 틔우던 일이며 흰눈 덮인 산속을 헤쳐 부식토를 구해오던 일, 온 겨울 애지중지 키워온 꽃이어서 무심히 바구니에 꽃을수 없었다.

동생들은 여전히 명절기분에 들떠 웃고 떠들며 흥성이고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저들처럼 까닭모를 기쁨에 넘쳐 이런 밤을 유쾌히 보냈으련만 오늘은 어떤지 깊은 생각에 잠기고싶었다. 가슴속에서 조용히 설레이는 각별한 심정은 어느덧 나를 일년전의 그 밤으로 사색을 이끌어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창작적성으로 보답하여야 합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그날 나는 새해목표를 세우려고 밤깊도록 탁상등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 창작활동의 첫자욱을 떼게 되는 새해여서 희망과 함께 결심도 켜다. 그래서인지 벌써 여러건의 계획을 세워놓고도 도저히 성차지 않았다.

불현듯 한 매혹적인 성격이 나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여 당에 기쁨을 드린 한 숨은 공로자의 이아가 나의 첫작품을 성과적으로 만들게 하려는 충동을 주었던것이다.

이것은 현시기 당이 의도하는 창작방향이기도 했고 소재도 좋았다.

그리하여 새해목표의 첫란에 큼직하게 소설제목까지 달아놓았다.

그후 일년간은 물흐르듯 흘러갔다.

나는 여러편의 자그마한 글들을 지상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를 것처럼 흥분시켰던 숨은 공로자에 대한 소설만은 성공하지 못했다. 주인공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못했다는 혹평을 받고 그 원고를 어두운 서류장구석에 던져버리고말았다.

교훈은 명백했다. 독자들의 귀감이 될만한 주인공의 정신세계의 높이에 필자인 나 자신을 이끌어올리지 못한 까닭이었다.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높이 힘차게 달려온 우리 조국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 살아오지 못했던것이다.

지난해는 우리 시대의 년대기에서 얼마나 뜻깊고 벽찬해였는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쏘련방문,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단결을 시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그리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친 서해갑문의 완성과 시대의 창조물로 거창하게 일떠서는 대기념비들, 또 지난해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많은 숨은 공로자들의 대오를 가지게 되였는가.

우리 문학분야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전적로작 **《현대문학의 시대적사명》**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었다.

시대적변혁의 성과를 놓고볼 때 사회에 이바지한 때 인간의 성과는 우주공간의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 하건대 지나온 한해를 반성의 총화로 돌이켜 본다는것은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한해전 설날아침,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설날을 맞을 때면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이 시대앞에 해놓은 일이 적다는 인생의 아쉬움때문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첫걸음을 땀 내가 한생을 이어주는 한

해한해를 보람있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로세대의 엄격한 부탁이었던것이다.

저 꽃바구니를 화려하게 장식한 수만송이 꽃들이 저절로 아름답게 피여날수 없듯이 사회의 한 초소를 맡아선 성원의 의무를 다하자면 고심어린 노력과 불타는 열정이 바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시대앞에 뿔뿔이 자랑할 마음속 충성의 꽃은 피우지 못했다. 그러고보면 원고지우에서 스러지고 만 나의 주인공이 참된 의미를 모르고 키운 꽃송이처럼 시대앞에 피여날수 없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것이다.

내 손에 쥐여있는 노란 실국화송이가 이 순간처럼 무겁게 느껴보게 되는것은 처음이었다.

어느덧 밤이 가고 1987년의 새해가 밝았다.

나는 집안식구들과 함께 밤새껏 마련한 꽃바구니를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만수축원의 마음들이 그대로 꽃이 되어 물결을 이룬 만수대언덕은 생신한 꽃향기를 설날의 맑은 대기속에 한껏 풍기고있었다.

동생들은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는 나의 손목을 잡아끌며 나비처럼 화강석층계를 뛰어올라갔다.

그렇다. 저들이 어찌 나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으며 이 꽃바구니에 담긴 무게와 저 계단의 높이를 가늠할수 있으랴.

나는 천천히 층계를 오르면서 새해에는 인생의 두번째 걸음을 후회함이 없이 보람차게 걸으리라 마음다졌다.

조국은 올해에도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다시 새 진군을 시작할것이다. 시대의 이 힘찬 발걸음에 맞춰 나는 새해에 좋은 작품을 써낼 결의를 다지며 만수대언덕을 내려왔다. 하늘에서 날아온 흰 눈송이가 불타오르는 마음을 안은 나의 어깨우에 차분히 내려앉는다.

사랑의 대기념비-평양산원을 찾아서

지효섭

흰눈이 평평 쏟아지는 겨울날 아침, 우리는 평양 산원을 찾아떠났다.

1백화점앞에서 사동행무궤도전차를 탔더니 두번째로 벗어선곳이 바로 산원앞이었다. 전차가 벗어나자 가벼운 소요가 일어났다.

《여 보 령감! 빨리 내려야겠수다. 산원앞이예요.》

《영? 벌써...》

우리앞에 앉아있던 두 로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무던히 덤벼치며 문쪽으로 달려갔다. 정류소에서는 그 로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내렸다. 산원으로 찾아가는 손님들이었다. 산원으로 가는 큰길엔 흰눈이 깔려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손님들의 얼굴마다에는 밝은 웃음이 어려있다. 기쁠것이다. 이제 그들은 귀여운 아기들을 만나게 될것이니까. 그러니 이 길은 아기들을 마중가는 행복의 길이 아닌가!

젊은이들의 손에는 꽃다발이 쥐여져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산원앞에 이르렀다.

《자, 보라구, 여기가 우리 머느리의 친정집일세. 세상에 이런 희한한 집이 또 어디 있겠나.》

할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우리 친정집, 그말이 썩 정답게 들려왔다. 친정집이란 세간난 딸이 본가집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아기를 낳을 때쯤해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정집을 찾아오곤했지. 수백리길도 멀다잖고 말일세. 허지만 지금은 친정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이렇게 산원을 찾아오네그러.》

그 말을 듣노라니 문득 어린시절에 들은 옛이야기가 생각났다.

옛날옛적 도화동에 살았다는 심봉사,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심청의 어머니, 갓난것을 품에 안고 이집저집 동냥것을 얻으려 다니는 심봉사의 가공한 정상...

아니, 그것은 한갓 옛말이 아니였다.

해방전 그 세월에는 그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어제날의 《외양쇠》, 《고랑너》들에게 물어보라. 그

러면 그들은 제집 한간없어 소외양간과 밭고랑에서 태줄을 끊어야 했던 부모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에그, 말두 말게. 옛날에사 친정어머닌들 어찌겠나. 미역 한줌이 있나. 입쌀 한되박이 있나. 오동지 설달 그 엄동설한에 두 모녀가 부여안고 울기만했지. 포단 한장없어 누덕누덕 기운 홀저고리로 갓난것을 싸안고말일세. 후-》

가슴속에 깊이 엉켜있는 묵은 원한을 여기서 다 털어버리듯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쉴다.

우리가 산원정문에 들어섰을 때는 퇴원차가 막떠나는 참이었다. 떠나는 퇴원차를 의사, 간호원들이 손저어 바래주고있었다. 그들속에 평양산원 초급당비서 리순임동무도 있었다.

그는 60고개를 바라보는 지금에도 젊은이들처럼 목소리가 쨍쨍 울렸다. 전화의 그날 간호장출신의 공화국영웅인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신임과 배려로 이곳 당비서사업을 하고있다.

리순임당비서는 우리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평양산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드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나라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세워주신 사랑의 집입니다....》

수만여평방미터를 헤아리는 총건평을 가진 평양산원은 13층으로 되어있는 기본호동과 여러개의 보조호동들이 있고 대형분수가 설치된 넓은 공원으로 하나의 큰 구획을 이루고있다.

산원에는 녀성들의 해산과 부인영양치료, 심장병, 고혈압병, 호흡기와 비뇨기질환, 치어는 눈병과 구강치료까지 할수 있는 최신식 진단, 치료설비, 제약설비, 갓난아기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온갖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갖추어져있다. 또한 의료인군양성기지와 부인연구실, 유전학연구실 등 각종 연구기지가 꾸려져있다.

《우리 평양산원에는 수천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걸 다 돌아보자면 아마 며칠동안 룡상선수처럼 달려다녀야 할것입니다.》

리순임당비서가 웃으며 하는 말에 우리는 눈만 크게 떴을뿐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것은 이토록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단 아홉달동안에 지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눈부신 기적은 어떻게 창조될수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산원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고 그후 전문일군들이 만든 산원설계도면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으며 점심식사도 뒤로 미루시고 몸소 산원부지를 정해주시러 문수벌에 나오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물맑은 대동강기슭에 산원이 앉을 자리를 정해주시였다. 이리하여 잡초만이 무성하던 문수벌에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대전투가 벌어졌고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는 충성의 화폭이 펼쳐졌다.

공사속도가 너무도 빠르는데 놀란 외국의 벗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산원건설이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한달만 조국에 갔다왔는데 그사이에 벌써 13층의 축조공사가 끝났습니다.》

《조선사람은 마술사와 같습니다. 눈을 감았다뜨면 또 한층 올라가군합니다. 저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까닭없는것이 아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단 몇달사이에 일떠세운 그 놀라운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때에 산원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100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건설장에 강력한 기계화수단들을 보내주시고 직승비행기까지 건설에 동원하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대담한 작전과 명활한 지도, 뜨거운 사랑이 바로 시대를 놀래우는 조선인민의 힘의 원천인것이다.

평양산원! 정녕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에 받들리어 이 땅우에 솟아오른 사랑의 대기념비였다.

우리는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리순임당비서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중앙홀로 들어갔다. 그 순간 우리의 눈앞에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나타났다. 빨강고 파랑고 노랑고...

드넓은 홀에 동백꽃, 도라지꽃, 은행나무잎을 수놓은 온갖 보석들이 쭉 깔려있었다. 보석주단이다. 홀천정에는 수만개의 구슬을 단 대형무리등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말그대로 옛말속에 나오는 보석궁궐에 들어선듯했다.

인간세상에는 물론이거니와 《하느님》이 산다는 가상적인 《천국》에도 보석주단이 있다는 소리는 없다.

인민들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이 어린 보석주단우에서 이 나라의 평범한 근로녀성들이 고운 아기를 품에 안고 활짝 웃으며 세상을 굽어보는것이다.

황홀한 보석주단을 지나 다음방으로 들어가니 거기는 텔레비죤면회실이였다. 웬간한 운동장처럼 넓으나넓은 방에 천연색텔레비죤이 즐비하게 놓였는데 지금 면회가 한창이였다. 우리는 거기서 동대원구역 신흥동에 사는 홍남수청년을 만났다.

《첫아기인가요?》

《예.》

우리의 물음에 그는 벌썬 웃었다.

《생남을 축하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되어 아들과 첫상봉을 하게 되였군요.》

천연색텔레비죤화면에 나타난 아기는 꽃포단에 안겨 방긋방긋 웃고있다. 눈이며 이마며 코... 신통히 아버지를 닮았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기와 함께 웃는다.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다.

《여기서는 매일, 매시각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답니다.》

리순임당비서가 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완공된 우리 산원을 실무지도해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여기 텔레비죤면회실에 들리시여 몸소 사랑의 첫 통화를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 면회실의 텔레비죤을 모두 천연색으로 놓아

주시도록 하는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존면화탁에 앉으시여 태어날 아기들에게 축복의 첫미소를 보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금방 뵈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텔레비존화면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여전히 방글거리며 웃는다.

아가야, 밝게 웃어라. 너희들의 삶은 위대한 축복 속에 시작된다!

우리는 면화실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갔다.

평양산원에는 수천점에 달하는 의료설비들이 있다고 한다. 최신형 전자식복부초음파진단기, 심장초음파진단기, 현대적인 해산설비들, 천연색텔레비존감시기와 록화기, 구강종합치료기, 록화장치가 되어있는 렌트겐설비,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앞까지 찾아가서 촬영과 투시를 할수 있는 이동형렌트겐, 조산아보육기, 온수침대, 극저온치료기... 끝자면 끝이 없다. 산원에는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입원차와 퇴원차가 수십대나 있다.

산원에 전화면 결면 수화기를 놓기 바쁘게 입원차가 달려와 산모를 데려가는데 병원에 들어서면 일체 걸어다니는 일이 없이 침대에 누운채로 위생통과실에서 소독한 다음 승강기를 타고 입원실로 가게 된다.

입원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구비되어있고 산모들의 요구에 의하여 높낮이를 조절할수 있는 최신형 침대가 놓여있다. 침대에는 임의의 시각에 간호원을 부를수도 있고 말을 주고받을수도 있는 신호통신장치와 앉아서 책도 읽고 식사도 할수 있는 부속 탁상까지 붙어있다.

《정말 우리 녀성들이 호강을 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것입니다.》

리순임당비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평양산원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의료기구설비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그것을 들여놓을 위치와 방법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하나의 설비, 하나의 기구라도 쓸모있는것으로 마련해주시려 크나큰 사랑을 기울이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꾼들은 가슴이 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날 가장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기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

어주시였으며 아무리 돌이 귀해도 산원복도에는 13층까지 모두 대리석을 깔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새로운 대리석광구를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은 산원앞 공원에도 어려있다. 건설당시 그자리에는 살림집을 짓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살림집건설을 그만두고 그대신 공원을 꾸리고 분수도 크게 만들도록 해주시였으며 그 주변에 의자도 많이 놓아주어 남자들이 꽃을 안고와서 기다리다가 안해와 아기들을 만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었다.

평양산원에 짓든 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우리 녀성들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천가지 만가지 모두 헤아려주시는 은혜로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의 눈가에는 어느덧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리순임당비서는 끝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우리 평양산원에 입원한 산모들의 몸보신에 쓰라고 수많은 산꿀과 곰열, 잉어와 산천어, 검정닭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산모들도 우리 의료일꾼들도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문득 길가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한말이 생각났다.

《여기가 바로 우리 며느리의 친정집일세, 이런 희한한 집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그렇다, 이 소박한 한마디 말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는 우리 인민들의 감사의 정에 집약되어있는것이다.

...

아늑한 방의 자그마한 침대우에 아기가 누워있다. 볼수록 귀여운 모습이다. 아기는 고운 꽃포단에 싸여 췌근췌근 잠을 자고있다. 한참 들여다보느라니 꼬마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해시시 웃는다. 아마도 꿈을 꾸는 모양이다. 아기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있을까?

창밖에서는 햇슴같이 하얀 함박꽃이 펄펄 쏟아져 내린다. 눈송이들은 창유리를 두드리며 무엇인가 자꾸 속삭이는듯하다.

오늘의 이 행복과 래일의 크나큰 기쁨에 대해서

...

새롭지 않은 이야기

한웅빈

작가의 새해결의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물게 만나는 친척보다 자주 만나는 이웃이 더 정이 깊다는 뜻일 것입니다.

작가도 독자들과 친숙해지려면 우선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독자와 지면을 통하여 만납니다.

새해에는 독자들과 친숙한 작가로 되자, 이것이 저의 새해결의이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혁명적인 문화와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일곱살잡히는 어린 딸애의 생일기념품으로 무엇이 좋을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주는것이 좋겠다고 했고 꽃병같은 장식품을 권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누구의 일이나 무관심하지 않은것이 작업반의 생활이다. 하물며 사업을 시작하지 보름되는 신입반장의 일임에랴... 한 젊은 친구는 피아노를 사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여 모두를 아연해지게 만들었다.

《피-아노-?!》

그 친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무슨 큰거라구 그래요? 비싸지도 않은데!》

《비싸지 않다구?》

《나 이런 참! 완구상점에 가보라요!》

이런 식의 통담과 진담으로 떠들썩했으나 나는 종시 결정할수 없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마음에 드는가하면 또한 적당치 못한것 같기도 했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딸애의 생일이 8월 30일 이라는데 책가방을 선물로 주는것이 어떻는가는 생각을 내놓았다.

《올해 딸이 학교에 가지 않던가요, 반장동무?》

《왜 안가겠소? 가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소설, 이것은 작가라면 내담없이 쓰고싶은것이 소원일것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기발한 착상이나 발견보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형상적으로 해명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성격을 그리는데로 지향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짧은 형식의 작품들, 단편소설과 예술적 산문들로 독자들과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이 결의와 더불어 바라는것은 독자들의 까다롭고 지루한 이웃이나 벗으로 될것이 아니라 며칠만 못보아도 찾고싶어지는 이웃으로, 마주앉으면 밤가는 줄 모르는 벗으로 될수 있었으면! 하는것입니다...

9월초하루날부터 딸애는 학교로 가게 되어있었다. 자기의 생일인 8월 30일에는 예비등교를 한다고 했다. 가방이야말로 적중한 기념품이라고 할수 있었다.

상점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가방을 찾아냈다. 반 시간이나 이모저모로 살펴온 결과 만족할수 있었다. 그러나 사지는 않았다. 생일기념품이란 뜻밖의것이여야 한다. 미리부터 갖다놓으면 그것은 기념품으로서의 빛을 잃는다. 나는 꼭 8월 30일에 사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부터 퇴근할 때면 꼭꼭 상점에 들러보고 그 가방이 《건재》해있는가를 확인하곤했다. 상점문을 달았으면 진렬장으로라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딸애에게 생일기념품을 주는 기쁨을 미리 맛보곤했다. 기념품이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다.

그런데 생일을 한주일 앞두고 딸애가 갑자기 앓기 시작하였다. 천청부지로 열이 오르면서도 땀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코밑과 입가가 파랗게 질려갔다. 나와 안해는 어쩔바를 몰랐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말없이 《의사역할》을 담당하곤하던 나의 아버지-딸애의 할아버지조차 며칠전에 해마다 의례적 행사처럼 되어있는 《친척방문》을 떠나고 없었다.

이번에는 나의 작은삼촌-막내동생네 집으로 갔었다.

이쯤 되고보니 가방생각은 천리만리로 멀어졌다. 거의 실신상태에 빠진 딸애를 병원으로 실어갔다. 급성폐염이었다.

작업반원들은 이때에도 무관심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비상한 치료법들을 알려주는가 하면 나의 딸보다 더 위급했으나 무사했던 실례들을 수다히 찾아내주었다. 피아노를 사주라고 하던 젊은 친구는 자기식으로 나를 위안했다.

《일없시요. 병원에 입원시켰으면. 난 뭐 병원문앞에만 가도 아프던게 낫는것 같두만요.》

그는 어떤 일이나 걱정할게 없다는 식의 락관적인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누군가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된 아들을 두고 걱정하사

《걱정놓랴요! 우리 나라엔 실업자가 없시요!》

하고 말했고 또 누군가가 아이의 학교일때문에 걱정할 때도 역시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님넌 학생이 다섯이나 되어서 누가 몇학년인지 잘 몰라도 척척 잘만 올라갑디다!》

이런 식이었다. 적지 않은 경우 그 무사태평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으나 그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었다.

병원문앞에만 가도 아프게 낫는것 같더라는것 역시 진실이었다. 나도 체험한바이지만 병원의 약냄새와 흰 위생복은 진정제와도 같은 힘을 가진듯했다. 그리고 나나 아내나 매일 퇴근후에야 병원에 찾아가곤했으나 딸애는 완치되었다.

오늘저녁에는 퇴원하게 되었다. 때맞춤하게 《친척방문》을 마친 그 애의 할아버지도 돌아왔다.

그러자 머리속에는 가방생각이 다시 돌아왔다.

오늘이 바로 8월 30일이였다....

나는 일하면서도 줄곧 오늘은 저녁시간에 번번하게 열리는 반장협의회가 없기를 바랐다. 퇴근길을 지체시킬 일이 없기만을 바랐다.

다행하게도 반장협의회는 없었다. 오늘 작업반계획이었던 기초콘크리트작업도 체시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모든 일이 딸애에게 생일기념품주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 순조롭게 되어갔다. 나는 만족했다. 작업총화를 간단히 짓고 반원들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휴게실에 쇠를 잠그고 떠나려 할 때 검사원이 나를 멈춰세웠다.

《나 좀 봅시다, 반장동무.》

표정이 돌처럼 딱딱했다. 그는 기초콘크리트작업장으로 나를 데리고갔다. 오늘 우리 작업반이 일한 곳이었다.

검사원이 가리키는곳을 보자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콘크리트를 처넣은 한부분이 볼록 배가 나온 것이였다. 휘틀이 밀려나온것이 첫눈에 알렸다. 원인은 휘틀에 췌기를 든든히 주지 않은데 있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반장동무?》

《...》

휘틀을 든든히 버틸 지시를 누구에게 주었던가. 그렇지, 걱정을 모르는 그 젊은 친구에게 주었었지. 그런데...

《래일 다시 해야겠습니까.》

검사원은 가버렸다.

나는 한동안 배가 나온 휘틀앞에 멍하니 서있었다. 저녁바람이 건설장의 먼지를 휘몰아왔다. 눈이 쓰러왔다.

《에익!》

나는 휘틀버팀대를 힘껏 차던졌다. 그때 만일 그 걱정을 모르는 친구가 앞에 나타났더라면 나는 맥살부터 틀어쥐었을것이다.

휘틀을 해체하고 굳어져가는 콘크리트를 와락와락 긁어냈다. 래일아침이면 굳어져서 망치를 들이대야 할것이였다. 며칠목은 딱덩어리같은 콘크리트를 긁어내면서 속으로 단단히 욕벌렸다.

어데 보자, 래일아침에는 전체 작업반앞에서 폭로하고 그 무사태평에 버락을 내릴테다! 그는 일하는 본세가 원래 그랬다. 며칠전에는 공구를 일하던 곳에 그대로 내쳐두고 왔었다. 《걱정 말랴요! 래일아침에 가도 그자리에 있을테니!》 이것이 그의 대답이였었다. ... 아예 뿌리를 뽑고말테다!...

허리를 뺐을 때는 벌써 저녁바람이 먼지가 아니라 재빛황혼을 몰아오고있었다.

그때야 나는 편뜻 생각했다. 상점, 가방!...

이미 어두운 저녁이였다. 상점의 이마뺨에서 불고푸른 불빛이 간판글자를 따라 혈관속의 혈액처럼 달음질치고있었다.

상점문은 닫겨있었다. 버릇대로 진렬장을 들여다보았다. 나의 가방은 여전히 그안에 굳건히 자리잡고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놓였다.

나는 서둘러 상점뒤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뒤에 있는 법이니까.

마침 사무실에서 양복차림을 한 등글등글한 녀인이 나와서 문을 닫고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책임자동지가 계십니까?》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책임자는 왜 찾으십니까?》

그가 책임자라는것이 알려졌다. 두번째로 안도의 숨이 나왔다. 나는 그에게 사연을 이야기했다. 오늘 밤에 가방이 꼭 필요하다는것을 구구히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내 말을 절반쯤 듣고는 돌아서서 문에 쇠를 걸며 말했다.

《래일 오십시오. 래일 오면 됩니다. 가방은 많으니까요.》

자물쇠잠기는 소리가 잘랐다.

《책임자동지!》

《래일 오세요. 래일예요.》

그는 노래라도 부르듯이 래일이라는 말을 두번이나 되뇌이고는 문앞을 떠났다.

《!》

나는 닭쫓던 개모양이 되고말았다. 허리를 분간할수 없게 등글등글한 몸집이 사람들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죄다 그 무사태평한 녀석때문이다. 보자, 래일아침에, 보자!-

진렬창에는 불빛이 환했다. 나의 가방-딸애의 가방이 그안에 있었다.

어제 사기만 했더라도, 오늘아침 아버지에게 말하기만 했더라도... 혼자서 기념품을 주는 기쁨을 가지려다가 벌을 받은셈이다.

아니, 그때문만이 아니다. 새벽차에 도착한 아버지의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삼촌네 집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긴줄로 알았다.

《일은 무슨 일?》

아버지는 나의 묻는 말에 통명스레 대답했다.

《잘 있더라. 앓지도 앓고... 몸만 낫더라.》

아버지는 마치 《앓지도 앓고》, 《몸만 난것》을 유감스러워하는것 같았다. 어찌 보면 비난하는 듯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감스러워할것도 비난할것도 없었다.

그 유감과 비난은 우리 부부에게 향한것으로 보는것이 옳을것 같았다. 둘이서 아이 하나도 제대로 건사못해 앓게 만들었는가 하는...

가방은 여전히 진렬장안에 놓여있었다. 가방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딸애가 기쁨에 차서 웃을 때면 눈동자가 저렇게 반짝거렸었다... 이때 만일 누가 나에게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면 나는 생각해볼것도 없이 저 가방을 가지는것이라고 대답했을것이다.

하나 이날저녁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다.

이제는 집으로 갈수밖에 없었다. 집에서는 딸애의 쟁쟁한 웃음소리가 울리고 아버지도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을것이다...

하나 그 기대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날은 모든일이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진 날인것 같았다. 집에는 쇠가 잠겨있었다. 웬일일가, 혹시 딸애가 퇴원하지 못하게 된것이나 아닐가, 다시 또...

불안이 밀려들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머리우에서 버드나무잎사귀들이 불안스레 설레었다. 비발처럼 드리운 아지들사이로 가로등의 파르스름한 빛이 새어내리고있었다. 눈앞에서 줄곧 입원시킬 때의 과랑게 질렸던 딸애의 얼굴이 얼른 거렸다.

병원마당은 조용했다. 외등과 창문의 불빛이 마당을 비치고있을뿐이었다. 병원에 특유한 약냄새, 그러나 이때는 그 냄새가 나를 진정시켜주지 못했다.

나는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대기실을 지나며 얼핏 들여다보자 우뚝 서버렸다.

대기실에는 아버지와 안해, 딸애가 있었다. 그런데 너무도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여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들여다보기만 했다.

딸애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기대여서서 할아버지가 준것인듯한 그림책을 빨갇빨갇 뒤지고있었고 안해는 벽에 붙어있는 《돌림감기를 예방합시다》는 위생선전그림을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런데 왜 저렇게들 앉아있는지... 불안대신 의혹을 느끼며 나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딸애는 한달음에 달려와 나에게 안겼다.

《아버지, 내가 이젠 다 나왔대. 의사선생님이 그랬어 주사 안맞아도 된대. 잘 때 꼭꼭 덮고자고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시라고 했어. 아버지, 맑은 공기라는건 뭐냐?》

아버지는 나를 흘깃 보았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책망하는 어조였다.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이나?》

나의 눈앞에는 어수선했진 작업장이 되살아났다. 해체하여 제껴놓은 휘틀장들, 버력으로 되어버린 콩크리트... 다시금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너석들이 종종 있니라. 반장구실을 똑바로 해라. 애비가 떨떨하면 머저리자식이 생기느니라.》

《이번에 버릇을 떼놓겠습니다.》

하고 나는 안해를 돌아보았다.

《아직 퇴원수속을 못했소?》

《아까 벌써 다했어요.》

《그런데 왜 이려고있소?》

안해는 대답대신 아버지를 건너다보았다.

아버지는 힐끗 나를 치며보았다. 눈에는 마뜩지 않아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의사선생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갈테냐?》

나는 안해를 보았다.

《인사를 안했소?》

《의사협의회에 들어갔다기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불만어린 대답이었다. 기다리기에 지친것 같았다. 직일간호원에게 물어보니 의사협의회는 두시간째 계속되고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가십시오. 인사는 후에...》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듣지도 않았다.

《후에 한다구?... 난 기다리겠다!》

갈테면 혼자 가라는 말이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 앉고말았다. 안해는 가늘게 한숨을 쉬고 다시 따분한 위생선전그림을 보기 시작하였다.

팔애가 종알거렸다.

《난 아까 인사했는데 뭐. 의사선생님이 집으로 가라고 했어, 그러문서...》

아버지의 저으기 부드러운 음성 이 그의 즐거운 자랑을 막았다.

《그건 인사가 아니다, 애야.》

《그럼 뭐냐?》

《...》

우리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나는 불만스러웠다. 인사는 필요한례절이지만 이런 정황에서야... 의사들이 정말로 수고를 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집을 짓듯이 그들도 역시 의무를 수행한것이 아닌가. 내가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가운데 나를 찾아 인사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가.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입가의 붉은 주름살이 불만을 강하게 나타내고있었다. 나는 그 불

만이 단순한 인사범절때문이 아니라는것을 느꼈다.

또 손녀의 병때문도 아니라는것이 명백했다. 손녀가 완치된 지금에 불만은 오히려 더 커진듯했다. 혹시 이번의 《의례방문》에서 불쾌한 일이라도 있는것이 아닐가.

팔애는 침묵 그자체를 불만스러워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며 시무룩해있었다.

결국 우리는 넷이 다 불만스러웠다.

나는 창문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현관앞의 외등불빛에 보이는 숙보관의 글자들을 기계적으로 읽었다. 《뜨거운 정성! 리정수동무 밤새워 귀중한 약초를 구하여 사경에 처한 환자를 소생!》

숙보는 어데 가나 있는것이고 어썬비슷한것이다. 건설장의 숙보도 저런 형식이다.

갑자기 복도가 소란해졌다. 말소리와 발자국소리들이 들렸다.

의사협의회가 끝났다고 직일간호원이 알려주었다.

위생복차림의 의사들이 분주히 지나가기 시작하였다.

《어느분이나?》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

나는 지나가는 의사들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던가. ...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자 아직 팔애의 담당의사를 모르고있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자기로서도 놀라왔다. 왜 모른다는것을 모르고 있었을가...

아버지의 입가로 쓰거운 미소가 스쳤다. 안해에게로 묻는 시선을 옮겼다.

안해는 지나가는 의사들을 분주히 살피고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점점 당황한 기색이 어리기 시작했다. 모두 똑같은 위생복차림에 위생모를 쓰고있어서 비슷해보이는때문인지... 혹시 는 안해도...

안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저기 와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젊은 의사였다. 그는 우리를 의아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왜 아직 가지 않고있습니까? 아- 담당선생을 만나려구요? 이제 곧 담당의사선생님이 올겁니다.》

그는 가버렸다.

《?!》

안해는 어리둥절하여 서있었다.

《음-!》

아버지의 웅글은 입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했다. 아버지의 불만이 나에게로 옮겨왔다. 안해는 불만의 화살속에 어쩔바를 모르고 망연해 서있었다.

그때 한 의사가 우리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딸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넌 왜 아직 여게 있냐?... 아, 부모님들입니까?》

그가 바로 딸애의 담당의사였다.

안해는 인사를 하고 가려고 기다렸다는 말을 시작했다.

의사는 그 말은 듣지 못하는듯했다. 시계를 보더니 빠른 말씨로 자기말을 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요즘 밤공기가 찬데 주의하고... 방안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는 머리를 끄떡하고는 가버렸다. 무뚝뚝하고 불임성없는 사람이였다.

안해는 얼굴이 좀 붉어져서 허아래소리를 했다.

《무슨 사람이...》

나도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의사로서는 응당 그럴수 있었다. 나 역시 내가 지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인사를 한다면 이상스레 여겼을것이다. 물론 경우는 좀 다르지만...

아버지는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 못해보았으나 낯색이 혼연했다.

《이젠 가자... 저분들도 일이 바쁠텐데...》

하기는 의사들의 시간은 앓는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그들을 시끄럽게만 할뿐이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저녁대기속에서는 가로등 불빛에 젖은 버드나무잎새들의 습습한 냄새가 감촉되었다. 빠스와 승용차들이 낮처럼 전조등을 켜지 않고 헤엄치듯 달리고있었다. 가로등불빛은 비발처럼 드리운 버드나무아지를 타고 흘러내리는듯 포석도에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딸애는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달랑달랑 걷다가는 앞으로 뻗르르 달려나가기도 했다. 그러더니 한 옆을 보며 오도카니 서버렸다. 손가락이 슬며시 입에 물렸다.

그프레의 사내애가 책가방을 메고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강충강충 걸어가고있었다. 바로 내가 딸애

에게 사주려고 했던 그런 가방이였다. 아쉬움과 후회로 나의 가슴은 졸아드는듯했다. 부러움에 싸여 손가락을 입에 물고 서있는 딸애, 그 조그만 얼굴에 어릴 웃음을 위해서라면 일생을 바쳐도 후회없을 부모의 심정... 나로서는 너무도 큰 기쁨을 상실한 저녁이였다. 가방, 자그마한 가방...

이 밤 나에게 부러운것이 있다면 가방을 멘 사내애를 데리고가는 그 아버지였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나는 머리를 돌렸다. 골목길에서 젊은이들 한무리가 나오고있었다. 그들속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다. 바로 걱정을 모르는 그 친구였다. 멀끔한 옷차림, 커다란 웃음, 입이 귀밑까지 돌아가붙는듯했다...

나는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어지럽게 널려진 휘틀장과 콩크리트 덩어리들... 손가락을 입에 물고 오도카니 서있는 딸애... 그러고도 웃어? 손까지 저어대면서! 하여튼 잘 만났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물음이었다. 나의 표정이 몹시 험악했던 모양이었다.

《아까 말한 그 사람입니다. 일을 망태기로 만든...》

《그래?...》

아버지는 더 말없이 딸애의 손을 잡고 가로수 밑으로 물러갔다. 나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으려는것이였다.

나는 길가운데 버티고섰다. 마주오는 그 친구를 노려보았다.

그는 몇걸음앞에 와서야 나를 알아보았다.

《아니? 반장동지!》

흠칫하고 물러설대신 그는 싱글거리며 달려왔다.

《왜 이렇게 늦었시요? 반장협의회가 또 있었는가요?》

《협의회?》

나는 기가 막혔다. 큰소리가 터져나가려는것을 겨우 참았다. 침착하자. 길에서, 동무들도 많은데서 너무 떠들지 말자, 자기를 잃지 말고 조용히...

침착해지려고 시선을 잠깐 옆으로 돌렸다.

그때 그가 무엇인가 내앞에 내밀었다.

《반장동지, 이걸...》

네모난 종이꾸레미였다. 나는 그를 치며보았다.

《이게 뭐요?》

《아이에게 주십시오. 생일기념품입니다.》

《생일 기념품?》

그가 종이를 헤치자 나는 깜짝 놀랐다. 반짝거리는 아이의 책가방이었다. 내가 그리도 바랐으나 종시 사지 못한 그 책가방이었다.

딸애가 어느새 달려왔다.

《야- 가방!》

청년은 그에게 가방을 덥석 안겨주었다.

《너한테 주는 아버지의 -생일기념품이다!》

《야-!》

딸애는 가방을 받아안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그마한 몸뚱이가 기쁨으로 충만되어 공처럼 통통 뛰고있었다.

《퇴근하던길에 상점에 들러보니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문을 막 닫으려고 하기에...》

청년은 손시늉까지 하며 신이 나서 말했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청년과 함께 미소를 짓고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눈길은 딸애에게로만 끌려갔다... 소원은 실현된셈이었다...

청년은 딸애쪽을 보며 연신 빙글거렸다.

《않던것 같지도 않구만요. 뭐, 내 그러게 뭐랬어요? 걱정 안해도 다 잘된다구... 난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는 천성적인듯한 무사태평한 쾌활함을 폭포처럼 쏟아놓고는 자기동무들을 좇아 경충경충 달려가 버렸다.

《한작업반에 있어요?》

안해가 물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안해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만요. 어떻게 아이생일까지 다 알구... 그런데 어찌나?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

역시 너자들이 달랐다.

《래일아침에 나가서 인사를 좀 잘하세요, 예?》

《래일아침에?》

나는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그러자 난처한 생각이 들었다. 오작시공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한다? 해체해버린 휘틀, 까낸 콩크리트... 그러나 아까와 같은 격분은 느낄수 없었다... 어찌 보면 그 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생각으로 서둘다가 생겼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사대신 비판을 한다?...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귀가에서 울리는 아버지의 웅글은 음성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바보녀석같은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청년이 길에 쏟뜨린 사과알들을 구력에 넣느라고 헤덤비고있었다. 책을 보며 걷던 또 한 청년은 가로수에 부딪치고 이마를 문지르며 나무를 노려보고있었다. 왜 《바보녀석》이라는지 알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들쪽은 보지도 않고있었다. 가방을 외면하며 툭 내쫓듯이 말했다.

《집에는 저보다 더 좋은 가방이 있다!》

《에?》

책가방이라니... 그럼 아버지도...

《학교선생이 가지고 왔더라. 예비등교하지 않았기에 찾아왔다면서... 가방안에 학습장도 연필도 다 있더라.》

《아, 그것말이에요?》

나는 별생각없이 말했다. 래일아침의 난처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가 하는 생각에 골치 아팠다.

《어느 학교에서나 다 그렇게 한다더군요. 신입생들에게는 해주게 되어있는...》

안해가 팔소매를 당기는바람에 나는 말을 끊고 돌아보았다. 노력보는 아버지의 눈길과 부딪쳤다.

《뭐? 해주게 되어있다구? 그래서 그 선생은 고맙지 않구 빈가방 하나를 쥐여준 너석은 그렇게 고맙다는거냐? 딸을 살려준 담당의사를 모르는것도 그래서냐? 그 의사선생이 어떻게 치료했는지 알기나 하나?》

나는 병원현관앞의 속보를 상기했다. 그 의사가 딸애의 담당의사였던것이나 아닐가. 나는 아버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말을 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된 단말이지!》

아버지는 그 짧은 친구가 한 말까지도 나의 말로 착각하는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것은 점점 내가 그 친구와 다름없는것으로 느껴지는것이였다.

《네 삼촌이라는 그녀석은...》

아버지가 우리앞에서 삼촌을 《그녀석》이라고 부르기는 이때가 처음이였다. 최대의 《욕설》이라고 할지.

《비판받구 들어와서 투덜거리는 말이 자기가 도와준 사람한테 비판을 받았다면 으혜를 모른다느니 뭐라느니...》

음성이 높아졌다.

《은혜? 도와주었대야 기껏해서 집에 데려다 밥그릇이나 몇번 먹였겠지! ... 내 그저 그녀석 귀통을 울려줄려다가...》

불만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것이다. 앓지도 않고 몸만 낫더라고 유감스러운듯 말하던것도 그때문이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게 된 《바보녀석》이 그 불만을 더 크게 한것이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 자식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음성이 낮아졌다.

《텔레비죤이나 승용차를 큰것으루 알구 거저 주어주는것이라면 시시한거래두 고마와하구 신세를 갚으려고 헤덤비구. ... 할말도 못하구, 눈을 감아주구... 바보녀석들갈으니!》

《...》

나의 발에 나의 머리그림자가 밟혔다. 그림자로 비친 나는 불썬없는 난쟁이로 보였다. 가로등이 정수리우에서 비치고있는것이라...

우리의 기분에 아랑곳없이 딸애는 밤을 즐기고 있었다. 밝은 가로등을 꺼리낌없이 쳐다보기도 했고 가로수잎사귀를 만져보려고 발꿈치를 고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뒤에 서있었다. 손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었다. 버드나무아지를 따라 줄줄이 흘러내린 가로등불빛이 주름살깊은 아버지의 얼굴을 비쳤다. 주름살은 더 깊어보였다.

그 무수한 주름살의 갈피갈피들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를 나는 다는 모른다.

그 갈피속에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병으로 잃고 해방후에 태어난 나를 첫 아들로 삼아야 했던 쓰라림도, 성인학교에서 처음으로 자기이름 석자를 써보던 때늦은 기쁨도 있다... 이것은 물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범상해진 지난날의 이야기이다. 나에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밤에는, 왜서인지 나도 모른다. 손녀를 내려다보는 생각깊은 얼굴때문인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우유빛 가로등불빛때문인지... 다르게 안겨왔다.

이 세상에 지울수 없는것이 있다면 먼저 거세상에 간 자식으로 하여 당하는 부모들의 상실의 아픔 일것이다. 그것은 생을 마칠 때까지 아물줄 모르는 영원한 상처이다...

나의 눈앞에는 병원으로 실려갈 때의 딸애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파랗게 되었던 조그마한 얼굴, 숨결조차 멎은것 같던... 소스라치며 머리를 흔들었다. 어제날의 환각은 사라졌다. 웃고있는 꽃잎같은 얼굴만이 눈앞에 있었다.

이 밤 나는-늙은이의 얼굴은 볼수록 사색을 자아내고 어린애의 얼굴은 볼수록 즐거움을 자아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그 얼굴, 그 웃음...

순간 나는 생각했다. 딸애가 받아안은 참다운 사랑은 바로 저것이 아닐가. 이제까지 누려왔고 앞으로 누리게 될 생. 그것이야말로 나의 딸이 태어나면 서부터 받아안은 혜택이 아닐가. 시인들이 《축복 받은 생》이라고 노래부르는...

그리고 그것은 나와 이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안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허나 우리는 그 혜택에 대해서는 너무도 자주 잊곤한다. 무상치료, 무료교육... 모든것을 응당 한것으로 배안에서부터 지니고 태어난것으로 여긴다.

《할아버지, 맑은 공기라는건 뭐냐?》

딸애가 묻는 말이였다.

《맑은 공기?》

아버지는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지 길과 가로수, 불밝은 창문들, 오가는 사람들, 불빛이 흐르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마침내 손으로 주위의 공간을 빙 둘러 가리켰다.

《이게 맑은 공기다.》

《이게?》

딸애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열심히 따라갔다. 길과 가로수, 불밝은 창문의 거리, 그 창문들중에는 내가 지은 건물의 창문들도 있었고 병원과 학교의 창문들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창문도 있었다.

딸애의 눈에 보인것은 그것뿐이었다. 공기는 맑을수록 볼수도 느낄수도 없는것이다.

딸애는 다시 물었다.

《이게 다-?》

아버지는 잠시후에 대답했다.

《그래, 모두다!》

이것 역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허나 진실과 교훈은 새로운 이야기에서만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내 마음

구희철

작가의 새해결의

기대와 희망속에 언제나 살아가는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밝아온 새해가 바로 그런 큰 기대와 희망을 나에게 안겨준다.

언제나 되돌아보는 자욕은 해놓은 일이 별로 없는 허전한 마음에 후회만을 더해줄뿐이다.

새해엔 그런 덧없는 자욕을 남기지 않을 결의로 가슴이 설레인다.

《현실로 가자!》 -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작가는 땅에 묻히지 못한 씨앗에서 꽃과 열매를 기대할수 없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현실, 그곳엔 시의 생활이 있고 참신한 종자가 있고 풍만한 정서가 있는것이다.

《현실로 깊이 들어가자!》 이런 심장의 웨침이 나의 걸음을 벌써부터 서두르게 한다.

새해의 첫자욕을 나는 북부철길건설장에 남기려 한다. 유람식이 아니라 로동생활로 보람있게, 현실 취재가 아니라 땀으로 현실체험을 쌓기 위해...

이제는 미숙한 나의 창작의 원천, 정서의 우물에 생활의 생명수를 가득히 채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겐 새해가 크나큰 기대를 주고 밝은 희망을 열어주리라 믿는다.

내 나서자란
정든 고향도 아니다
조국의 북변땅
북부철길 건설장은...

내 한생
잊을수 없이 사귀이고
못잊어 자주 그리는
그 누가 있는곳도 아닌 그곳

오, 어찌하여
내 마음을 불러
못견디게 이끌어가는가
북부철길 젊은 건설자들과

신문에서 이따금
방송에서 때때로
그대들의 영웅적위훈 전해주던 때
내 가슴 뜨거이 새기던 모습들

그때문에
걸음을 걸어도 향해지고
생각을 달려어도 가닿던
북부철길 건설장이여

사귀고싶구나
이제는 내 아무리 모자를 써도
회색해진 머리 감출수 없어도
마음만은 젊었으니 나를 맞아다오

통성을 하자
목고채를 한치 사이두고도
아끼는 마음으로 더 무거이 어깨대는
그 뜨거운 집단속에서

젊은 건설자들과
그대들 대렬의 맨 뒤자리
그래도 나는 웃으며 발맞추리
지나간 젊음을 되찾은 마음으로...

시련도 함께 이겨내고싶구나
나에게도 굵은 안전바줄을 달라
아아한 절벽의 그 중턱에
착암기 대야 할일 있대도 서슴지 않으리

성미 급하고 변덕 많은
차디찬 산골물속에
앞다투며 뛰어들어 교각을 놓는 일에
부탁한다 나를 빼놓지 말아주기를...

북변의 끝에서 그 한끝
아득히 뻗어간 철길을
눈을 좁히며 되돌아볼 때
철길처럼 긴 이야기 침묵처럼 많은 이야기
그속에 내 이야기도 한마디 끼우게 하고싶다

젊은 건설자들아
조국이 달리는 기관차라면
그 기관차를 떠받든 철길처럼
철길을 말없이 받든 침묵처럼

그대들과 함께 내 작은 어깨를 들어밀리

내 마음엔 벌써 그날이 보인다
지금은 건설장에 날리는 눈보라가
아버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실
그날의 철길우에 흘날릴 꽃보라로
내 귀전엔 들려온다
들끓는 건설장의 힘찬 울림소리가
첫 개통의 날에 울릴 기적소리로

《광복의 천리길》을 간다

김영길

눈내리는 만경대를 떠나시던
수령님의 그 첫자욱 이어 달려온 길
개천, 향산은 어드메나
강계, 화평은 어느 하늘밑...

아혼아홉굽이 돌아
내 올라선 오가산령마루
바라보니 앞에는
은빛으로 솟아오는 직고개
그너머 마음속에 안겨오는 포평나루

귀기울이면 눈보라속에 들려오는듯
세찬 강바람안고 펄럭이던
검정두루마기 자락소리
피젖은 강토를 비분안고 바라보시던
그이의 영상 보여오는듯

수령님 그날에 안고가신
겨레의 피타던 신음소리인양
바람은 령을 스치며 호곡하고
밟고가신 조약돌인듯
스쳐지난 눈무지인듯
굽이마다 추억을 불러주며 뻗어간 길

아, 가슴은 뜨거움에 젖고
심장속 피는 용솟음쳐 끓누나
열네살 어리신 어깨우에
땅보다 더 무거운
조국의 운명을 한가슴에 지니시고
기약할수 없는 광복의 길
혼자서 나서신 수령님

담을수 있으랴 내 노래에
땅마저 빼앗기고
이름마저 짓밟힌
이 나라
이 겨레
한가슴에 다 안으시고 결연히 헤쳐가신
그 뜻이 너무 높아

어찌 다 말하랴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강토의 마지막 기슭에 남기신 .
불같은 심장의 그 선언
노래하기엔 내 목소리 너무 작아

정녕 만경대의 작은 사립문을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안으시고
수령님 그날에 떼신 첫걸음
그것은 재생의 밝은길로
조선이 내디딘 첫걸음
위대한 혁명의 퇴성

아 길이여
《광복의 천리길》이여
영광의 이 길에 이어진
위대한 혁명과 전변의 자욱이여

성스러운 그 자욱따라 가고있어라
아득히 뻗어간 그 천리길넘어
자주의 삶이 꽃피는
무궁한 공산주의 봄언덕으로
온 나라, 온 세상의 발걸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흐르고있어라

나는 군인건설자

림종근

작가의 새해결의

나는 지금까지 시창작을 해오면서 이렇게 새해 창작결의를 지상을 통해 독자들앞에 다지기는 처음입니다. 그런것만큼 생각도 깊어지고 가슴도 설레입니다.

새해를 맞는 나의 마음은 지금 이미전부터 시흥을 불러일으키며 사색의 불꽃을 자꾸만 튀겨주고있는 생활,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들고 자기 초소와 진지를 떠나 사회주의건설의 중요 대상건설에 동원되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인 생활속으로 달려가고있습니다.

우리의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만세를 높이 부르며 비발치는 적탄을 헤쳐나가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언땅에 가슴대고 밤을 지새던 그 충성의 한마음으로 간석지 건설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힘든 여러

《전선》에서 서해갑문건설식으로 일판을 크게 벌려 80년대의 기적을 창조하고있습니다. 비록 총포탄은 울부짖지 않아도 처절한 격전장과 조금도 다름없는 건설장들에서 병사의 슬기와 용맹을 만천하에 떨치고있는 군인건설자들! 그들의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을 노래하는것은 군복입은 시인의 응당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맹이 될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시를 쓰는것은 나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때문에 나는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땀도 흘리고 생활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반영한 참된 서정시를 많이 창작하여 전사들을 고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말아나선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대상부문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겠습니다.

팔 벌려 안으면
한가슴에 다 놓이는
넓지 않은 전호의 한구간도
생으로 담보하는 넓이 있어

한치한치 넓혀가는 언제
그 한줌 흙에 숨배는
나의 땀에도
그 넓이 깃든다

젖은 땅에 가슴 대이고 밤을 지새도
씨앗이 움트는 고향의 넓은 들이
가슴가득 부풀게 하던
삶의 궁지가 있어

아직은 시커먼 감탕밭
날바다를 막으며 안아올려도
풍년나락을 무겁게 안아
조국의 대지에 얹어주는 마음이다

내 수호자로서
때로는 땅의 한계선을 위해
생을 바칠수 있는것처럼

내 또한 창조자로서
넓혀가는 조국의 한줌 흙임에야
더없이 소중하지 않으랴

그때문에
날마다 받아안은 과업도
명령으로 엄숙하고
과도 세찬 간석지건설장을
우리 전투장이라 부르는것 아니다

오, 그때문에
웅대한 새 전망을 펼치며
당이 우리를 불러준 이름
시대앞에 새롭게 태어난
군인건설자가 아니냐

받아안은 명령앞에
오직 수행하는데만 습관된
나는 군인
그처럼 당이 안겨준 믿음
오로지 보답하고야말

아, 나는 군인건설자!

길

김관일

작가의 새해결의

뜻깊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각...

대동강너머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 시각이면 저는 울렁거리는 마음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항용 그러하듯 뒤를 돌아보기 보다도 앞날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곤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때문입니다.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태어나 아무런 근심걱정도 모르고 자란 행복한 세대에 속하는 작가입니다.

여태까지 이렇다할 생활의 세파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독자들앞에서 아직 미학관을 론하기에는 너무도 생활체험이 적은 신인문학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될 그것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곤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새세대의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자기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고있으며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사랑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무엇을 수치로 불행으로 여기며 무엇을 삶의 보람으로 행복으로 간주하고있는가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가지고 대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라면 저는 동시대청년의 자격으로써 당당히 말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후대들 앞에서 자기 일생의 허물도 들춰내야 할 그런 때가 반드시 도래하는 법이다. 그것도 때로는 실로 우연한 계기에...

나는 오늘 김책공대 졸업반인 맏아들과 함께 락업이 부근부근 밟히는 공원길을 산책하고있었다. 레사로운 가을날의 저녁녘이었고 아들과 나누는 이야기 역시 평범하였다. 나는 방금전에 작곡을 끝낸 바이올린곡에 대한 아들의 평을 듣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 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

저는 올해에 보다 전투적이며 호소성이 강한 단편소설을, 생활에 대한 진지한 사색과 탐구가 반영된 단편창작에 힘을 넣으려고 합니다. 짧은 형식의 작품이지만 거기에 부피 큰 중편이나 장편소설에 못지않는 심각한 문제성과 강한 여운을 담으며 비록 서툴기는 해도 자기 식으로,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심장으로 말해보고저 하는것이 변함없는 저의 창작적자세이며 지향입니다.

저는 형상하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이미 발표된 다른 소설의 주인공들과 어긋비슷해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시대적성격과 생동한 인간적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주인공들이 독자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투쟁하며 사색하고 탐구하고 때로는 고민을 때로는 열렬한 사랑과 창조의 환희에 넘쳐 힘있게 전진하는 열정적인 새세대의 인간들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의 친숙한 길동무가 되게 하겠다는것을 새해의 이 문학연단을 빌어 독자들과 약속하려고 합니다.

대동강유보도쪽에서 우리한테로 천천히 마주오는 몇사람이 보였다. 가슴마다에 단 훈장과 메달들로 미루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에 참가했던 대표들임을 한눈에 알수 있었다. 나는 그 일행에서 낯익은 얼굴을 떠어보는 순간 하마트면 소리를 칠번하였다.

그러나 나는 잠시후 그 사람과 말없이 길을 어거였다. 그는 전혀 판사람이었던것이다...

그렇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나는 다시한번 알았다.

그는 내 생활의 둘도 없는 은인이었고 갈래길에서 방향하던 나를 오늘의 새길로 이끌어준 잊을수 없는 사람이다.

길...

말이 났으니말이지 그때 우리의 길은 오늘과 같은 탄탄대로가 아니었다. 그 길은 봄바람이 아니라 적아의 무수한 총포탄이 교차되는 포연탄우속으로 뻗어있었으며 어찌면 잘못 내디딘 탓에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미 성년이 된 자식에게 지나간 그 모든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은 나의 지나온 경로중에서 결코 자랑할수없는 부분에 속하는, 하지만 어차피 하지 않을수없는 이야기이다.

1950년 7월초 ...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병원침대우에서 전쟁을 겪고있었다.

전쟁이 일어난 초기에 전시의 란리를 피해 혼잡을 이룬 서울시민들속에 끼여있던 나는 피퇴군놈들의 눈먼 총탄에 맞아 거리에 쓰러졌다.

전쟁의 첫시작부터 인민군대의 영웅한 반공격앞에 혼비백산하여 무질서하게 패주하는 피퇴군놈들의 총탄에는 눈이 없었던것이다.

당시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에 대하여 건전한 리성을 가지고 판단할수가 없었던 나는 끝내 이세상에 대한 열떠름하고 혼란된 표상을 그대로 간직한채 거리의 포석우에서 절명하는줄 알았었다.

다음날 내가 정신을 차린곳은 시가전이 끝난후 인민군대의 어느 한 야전군의소 천막속에서였고 맨 처음으로 나의 눈에 띄운것은 내 팔의 혈관과 고무호스로 련결된 링게르병이었다. 그리고 흰 위생복을 입은 웬 영문 모를 사람들, 그들의 모자에서 빛나던 오각별...

이 모든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알수 없었다. 무엇보다에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것이며 그들이 나를 치료해주는 까닭은 무엇인가, 혹시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이자리에서 당장 나의 이마에 총알을 쏘박을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집게처럼 나의 뇌리를 물었다. 놈들은 패주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바로 그렇게 뇌까렸던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고 서울의 《국도극장》에서 음악이나 연주해온 나같은파위가

무슨 대단한 《반공분자》라고 처형의 대상이 된 단말인가.

나의 불안은 상처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차츰 가라앉고 평온해졌다. 지어 아무런 사념도 없이 성심껏 치료해주는 인민군 군의들과 간호원들에게서 나는 놀랄만한 인간미와 친근감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얼마 안있어 야전군의소는 놈들이 내버리고 달아난 세브란스의전의 부속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내가 든 입원실에는 이마와 오른쪽 허벅다리에 심한 중상을 입은 한 사민과 왼팔에 총상을 입은 전사가 들어있었다. 그 사민은 대체로 무표정하고 침울한편이였고 그대신 전사는 수다스럽다고 할만치 말수더구가 많은 사람이였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가 군대에 입대하기전의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과 복반부에서 실시된 인민적시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내였다. 어떤 때는 못미더워 반신반의하는 나의 태도에 조금히 화를 내기도 했고 그랬다가는 인차 성이 풀리며 친절해지는 청년이였다.

나날은 흘렀다.

그동안 나의 상처는 현저히 아물어서 이제는 하루에 서너시간정도의 산보는 허락되였다. 한방에 있던 유쾌한 전사는 퇴원하여 본부대로 돌아갔고 사민은 좀처럼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그동안에 겨우 쌍지팽이 한짝을 버렸을뿐이였다.

그는 가끔 전신신문을 가져다읽곤하였는데 신경이 몹시 예민해진탓인지 10분이상을 더 읽지 못하고 원탁우에 내동댕이치곤하였다. 그리고는 썰뚝거리며 문밖을 나서는것이였다. 이어 군의소장방에서는 그와 소장이 버쩍 어성을 높이며 다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퍼그나 오래 있다가야 얼굴이 화끈 단 그가 역시 썰뚝거리며 들어왔다.

그런 날은 종일 가야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또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의 고향이 함북도 라진이며 주위사람들이 그를 흔히 라진사람이라고 부른다는것만을 알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한번은 그가 나에게 대하여 심히 반감을 품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연인즉은 이러하였다.

그날 병원앞의 거리를 산보하고있던 나는 길가에 서 한 안면있는 사람과 만났다.

전쟁전에 가게방을 경영하고있던 그에게서 나는 한때 바이올린을 산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 선친때부터 오동나무를 특수한 시약에 몇십년 동안이나 우려낸 특제품이라면서 터무니없이 값을

올렸었다. 황당하기는 했지만 몇십년 묵은 재목으로 만들었다는 그의 말은 사실 그럴듯도 해보여 며칠동안 흥정하며 욕심을 내던 끝에 나에게 있던 돈과 남아있던 옷가지들을 전부 저당잡혀 그 바이올린을 사고야말았다. 그통에 나는 비록 적수공권의 알쭉한 거지가 되긴 했지만 그대신 나의 일생의 훌륭한 동반자를 얻은 셈이어서 그를 조금도 나빠 생각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아직도 그냥 껍쟁이를 굶고계시우?》

그는 지금도 전쟁전과 다름없이 조끼를 입고있었고 따다붙인것 같은 코수염이며 뚜쟁이같이 음충맞은 웃음이 떠돌고있는 눈빛도 예전과 변함이 없었다.

《이 란리통에 껍쟁이가 다 뭍니까. 하지만 배운 거라곤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직 그 거치장스러운 물건 짝을 몸에서 떼어놓진 못하지요… 당신은 지금 두 그 가게방에서 일을 하는가요?》

《그렇수다》

《전쟁인데두요?…》

《원, 전쟁이라는거야 총을 멘 사람들이나 하는거지 우리하구야 무슨 상관이 있소. 나야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해주고있는데 공산군들한테나 하나님한테 죄될거야 없지요. 오히려 지금은 경기가 더 좋은 편이지요.》

나는 그와 같은 장사치와 더 얘기를 하고싶지 않아 대충 인사말을 남기고 헤어져 호실로 올라왔다.

그러나 방에 들어선 나는 침대가에 앉아서 뿔어지게 나를 쏘아보는 그 라진사람의 눈길에 접하였다.

《이제 그자를 아오?》

《누구말입니까?》

《방금 병원앞에서 얘기하던 그 코수염쟁이말이요.》

보아하니 그는 호실창문에서 우리들을 내다본 모양이었다.

《압니다… 그저 좀…》

더욱 날카로와진 그의 시선이 나의 얼굴에 날아와 박혔다.

《그런 너절한 놈뎡이를 다 가까이하다니… 난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 인간추물과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았댔소!…》

나는 금시에 어리둥절해졌다.

《추물이라니요?… 당신도 그 사람을 아십니까?》

《알다뿐이요. 똑똑히 봤소. 시가전이 벌어진 그 날새벽 우리 군대들이 놈들을 쫓아서 시내로 돌입하고있는데… 그게 바로 <화신백화점>앞에서였소… 문짝이 떨어지구 유리창이 깨어진 그안에서 한 사나이가 자루를 둘러멘채 나오고있었소. 조끼를 입은 코수염쟁이… 바루 그자요! 나를 본 그자는 기절초풍해서 손에 든 자루를 떨어뜨렸는데 그안에서 뭐가 쏟아졌는지 아오!…》

갑자기 본격이 치받쳤던지 그는 말을 끊고 가쁜 숨을 쉰었다.

《그안에서 지폐가 와르르 쏟아졌소. 돈뭉테기가!… 우리가 지금 피흘리며 싸우고있는건 그런자들 위해서가 아니란말이오. 그런데 당신이 그자와 가까이하다니!…》

《…》

나는 그의 분노를 리해할수는 있었으나 그의 뜻하지 않은 오해앞에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격분으로 온몸이 달아오른 사람앞에서 사리를 밝힌다는것은 어려운 일인것이다. 나는 그에게 후에 사유를 까밝히기로 하고 대답을 피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

여전히 그는 전선신문을 부지런히 가져다읽곤하였는데 그러는 그의 얼굴에는 차츰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갔다. 나는 그의 얼굴빛으로 미루어 필경 전선형편이 몹시 어려워진다는것을 어렴풋이 짐작하였다.

그가 군의소장방에 들어가는 회수가 점점 더 잦아졌고 그 방에서 들려오는 쌈싸우듯하는 목소리도 더욱 격해졌다. 다른 환자들은 군의소장의 기분상태를 봐가며 경우에 따라 어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는 우스개소리를 섞으면서 요령있게 때를 썼으나 고지식한 그는 그냥 생나무꺾듯하는것이였다.

하루는 전선신문을 읽던 그가 와락 신문을 움켜쥐며 그길로 군의소장방에 가서 대판 싸우기까지 하였는데 그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지고말았다. 보다못해 나는 그에게 충고하였다.

《거 방법을 좀 달리해보시우. 사정두 하구 룡담두 좀 섞어가면서 신축성있게말입니다.》

그러자 그는 얼굴에 맞구멍이 날지경으로 무섭게 나를 쏘아보는것이였다.

《걱정해줘서 고맙소만 난 그렇게 할줄 모르는 사람이요! 흥, 신축성있게라구?…》 하고 그는 썰뚝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그뒤에 나는 원탁우에서 그가 손에 짝 움켜쥐었던 전선신문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과 그들의 위훈이 적혀있었다. …

나는 당시 때없이 폭발하는 그의 울분과 신경질을 대할 때마다 그가 이전에는 그지없이 다감하고 인정미가 있던 사람이었다는것을 상상조차 할수없었다.

전화의 나날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잃은 그의 비분에 찬 심중을 깊이 알게 된것은 썩 후날의 일이었다...

어언간 그는 한쪽 지팡이를 마저 버렸으나 군의 소장 눈밖에 댔던 그는 인차 퇴원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그의 퇴원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9월중순에 가서야 수락되었는데 그 퇴원이라는것도 실상은 후퇴를 위해서였다. 전쟁에는 항상 혁혁한 승리와 진격만이 있는것은 아닌것이다.

군의소에서는 내가 알수 없는 그 무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회의끝에 중상자들은 담가나 위생차로 먼저 조직적으로 후송하며 회복기에 들어섰거나 비교적 완치된 경상자들은 몇명씩 대오를 지어 혹은 개별적으로 후퇴하기로 결정되었다.

나에게는 그 결정이 레외로 되었다. 나는 어디든지 내가 가고싶은곳으로 가면 되는것이다.

그렇다. 그때는 길이 여러 갈래였다. 세브란스의 전 부속병원의 창문밖으로 바라보이는 그 여러갈래의 길중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량부모를 다 잃고 자라난 나에게는 주위에 가까운 살붙이나 친척도 없었던것이다.

병원앞의 거리는 또다시 전쟁초기와 같이 뒤숭숭해졌다.

주인을 잃은 황량한 거리에는 찢어진 봉대와 형겼조각들, 빈 통줄임통들, 깨진 유리조각들이 되는대로 널려있었고 술한 종이장들이 때이른 락엽과 함께 바람이 부는대로 어지럽게 밀려다니고있었다.

그 어수선한 길우에서 질서정연한 인민군대오와 몇명씩 렬을 지은 소부대들 또는 군복을 입지 않은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묵묵히 북으로 걸음을 다그치고있었고 이따금 그와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우기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가지 않는 사람들, 로상에서 뭔가 종잡을수 없는 방황자의 표정을 하고 못사람의 움직임을 멀거니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째서인지 유난히 나의 눈에 밟혔다.

그날 나도 역시 그렇게 창문턱에 턱을 고이고 앉아 한산한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고있었다. 마음속이 문짝 떨어진 집안처럼 헛헛그렇하고 쓸쓸하였다.

《안녕하시우, 음악가선생.》

불현듯 등뒤에서 울린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어구에 가게방주인이 나타나 마치 자별한 구면친구라도 만난듯 싱글싱글 웃으며 서있었다.

《어떻게 여기엘?...》

《하도 심심해서 왔지요... 다 어디로들 가던데... 당신은 어디 안가슈?...》

《글쎄요...》

애매한 대답을 하며 그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속에 피뜩 라진사람의 말이 떠올랐다. 뚜쟁이같은 눈을 가진 이 장사군이 무슨 돈냄새를 맡고 여기에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예감은 옳았다. 그는 따다붙인것 같은 코수염밑으로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귀속말로 넌지시 말하는것이였다.

《하기야 당신이 뭇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소... 이보슈, 그럴것없이 나하구 돈벌이하구싶은 생각이 없소? 아주 간단한 방법이우다.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후회한 다음에 이 병원설비들을 몰래 뜯어서 감춰놓잔말이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랬다가 후에 팔아먹으면 대뜸 핑장한 부자가 될수있지요... 어떻소? 구미가 동하지 않소?》

《?!...》

나는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입이 쓰거워 아무 대꾸도 않았다.

그는 수다쟁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상대방의 태도에는 개의치않고 자기 말에만 심취되어 횡설수설 늘어놓는것이였다.

《지금은 뭐니뭐니해도 물건들을 모아두는게 제일 당상이지요. 요즘 시국으루 박선 앞으루 북조선 화폐가 통용되겠는지, 아니면 리승만의 화폐가 통용될지 알수 없는 판국이니 돈이란 물건보다 믿을게 못된단말이우다.》

이때 문이 열리며 라진사람이 들어섰다.

그런데 나는 이 일이 가뜩이나 나를 좋지 않게 보고있던 그의 의심을 더욱 확증해주는 결과로 될줄은 몰랐었다.

의혹에 찬 그의 시선이 코수염쟁이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쏠렸다. 그 어떤 배신행위를 목격했을 때와도 같은 혐오와 증오의 빛이 그의 쪼프린 눈가에 질게 어리었다.

한참후에 그는 고개를 돌리며 코수염쟁이에게 쏘아붙였다.

《여긴 왜 기여들었소?》

《저... 이 사람과 트럼프나 좀 놀아볼려구... 에헴...》

객적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리던 교수염쟁이는 자기의 말이 분위기에 적중치 않음을 느꼈는지 한 마디 더 부연하였다.

《심심하기에… 그저 지나가다가 들렀습지요.》

《그래요?》

그는 이상하게 말꼬리를 길게 끌며 장사치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중소, 그럼 나하구 한번 놀아봅시다.》

《무얼…말이요?…》

《그 트럼프라말이요, 어서 꺼내놓소!》

그의 말이 위협적으로 울려왔다.

《?…》

교수염쟁이는 자못 미심쩍은 모양인지 그를 어렵 쳐보며 어색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럼… 얼마를 대구 할가요?…》

《있는대루 다! … 한판에 끝을 보지요!》

《중수다!》

그의 말을 영낙없는 도박군의 결례로 리해한 교수염쟁이는 서둘러 조끼의 안쪽주머니에서 시퍼런 지폐몽치를 원탁우에 꺼내놓았다. 라진사람도 자기의 환자복호주머니를 더듬었다. 다음순간 장사치는 뒤로 벌렁 물러나며 악-하고 비명을 올렸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손칼이 나왔던것이다.

눈깜짝할사이에 칼이 지폐몽치에 박혔다. 어찌나 힘껏 던졌던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리승만의 초상이 찍힌 지폐몽치의 밑바닥까지 꿰어 원탁에 박히며 칼집이 한참이나 부르르 떨었다.

그 지폐에 불을 놓아버린 라진사람은 그의 먹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처 가닿기도전에 장사치는 온 병원이 떠나갈듯한 야생적인 비명을 지르는것이였다. 라진사람은 진저리를 치며 손을 천천히 내리웠다. 자기의 손에 더러운것이 물을 가봐 꺼리거나 하듯… 그리고는 마치 죽은 송장을 바라보듯 그를 내려다보는것이였다.

《씩 사라지오! 여기서… 돈벌거지갈으니! 어서 가서 돈에 입이나 맞추시오. 당신한테야 돈이 곧 조국일테니까!…》

…그날저녁 그는 떠날 차비를 하고 병원을 나섰다. 떠나기전에 그는 한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묻는것이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겠소? 아마도 그자를 따라가야겠지요? …》

《천만에! 나를 오해하진 마시오, 난 그자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오?》

나는 잠시 생각하였다.

어딘가 살벌한 공기가 흘러오고있는 남쪽으로 가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또한 미군과 피퇴군놈들이 몰려와서 더욱 소란해질 이곳에 그냥 머물러있고싶은 생각도 없었다. 영문 모를 총탄이 무시로 오가게 될 그 복새판에 두번다시 끼우고싶지는 않았던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재산의 전부인 바이올린통을 찾아들고 침대머리맡에 되는데로 구겨박혀있던 모자를 집어썼다.

《글쎄요… 아마 그리루 가야겠지요, 당신들이 가는 그리루…》

이렇게 하여 우리는 떠났다.

길…

그때는 어디나 길이였다.

그러나 나는 무엇때문에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였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좋은 친구를 만나 그가 가는곳에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리듯 것처럼 쉽게 그 길에 나서게 됐는지를 똑똑히 알지 못했다. 그저 나는 우연히… 그렇다, 그야말로 우연히 그 길을 선택하게 되였다. 그리고 한번 내디딘 길은 벌써 그것이 룡담이 아니라는것을 멀리 않은곳에서 때없이 들려오는 둔중한 포성이 말해주고있었다.

첫 이틀동안은 멀리서 들려오던 포소리가 점차 가까와지기 시작하더니 또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아주 지척에서 카빙총소리까지 들려왔다.

우리는 산밭을 탔다. 험준한 산을 넘으며 길없는 수림속을 헤쳐나가다가 어느 한 도로에 나섰을때 우리는 졸지에 그자리에 굳어졌다. 너무도 창황중의 일이어서 미처 손쓸새가 없었다.

도로의 저쪽 굽인돌이에서 갑자기 여러대의 미군 용차들이 나타났던것이다.

나는 돌아서서 금방 내려온 골짜기로 무작정 내뛰었다. 뒤에서 휘파람소리와 고함소리, 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졌다. 뒤에서 라진사람이 놈들과 란투를 벌리고있는 모양이었으나 나에게는 그런것을 가려볼 겨를이 없었다. 그저 무턱대고 죽을 힘을 다하여 내달았다. 나무그루터기에 걸려 몇번이나 어푸러졌다가 다시 들고뛰던 나는 얼마 못가서 놈들에게 둘러싸이고말았다.

놈들은 넘어진 나의 등을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며 오락의 대상이나 만난듯 야유조로 시까스르는것이였다.

《스랜달, 씨- (일어나오, 나오리)》

일어남과 동시에 나의 배허벅으로 세찬 타격이 날아들었다. 숨이 킁 막히었고 눈앞에서 불뚱이 튀었다. 나는 그자리에 쓰러졌다.

《스탠달, 플리즈 (어서 일어나!)》

《...》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자 재차 두번째의 타격이 가해졌다.

또다시 세번째... 네번째...

침략과 살육을 위해 대양을 갓 건너온 그놈들의 눈에는 아직 채 충족되지 못한 살기가 희번뜩거리고 있었다.

얼마후 나는 놈들에게 질질 끌리워 군용차가 서있는 도로에 내려왔다. 거기에는 터진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거의나 얼굴을 알아볼수 없는 라진 사람이 자동차바퀴에 등을 기대채 쓰러져있었다. 그옆에 한 미군병사의 시체가 놓여있었다. 이제는 끝장이고루나!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옥죄었다.

우리는 놈들의 군용차에 실리워 어딘지 알수 없는곳으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어느 한 농가의 헛간에 갇히었는데 저녁무렵에 그가 놈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나도 놈들앞에 불리워갔다. 거기에는 이미 놈들의 지독한 문초를 받아 기진할대로 기진해진 그 라진사람이 아무데도 몸을 의지하지 않고 간신이 그러나 꺾꽂이 버티고 서있었다. 그의 앞에 장교인듯한놈이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었고 옆에는 통역과 병사 두놈이 서있었다.

《너는 어디로 가겠는가?》

장교가 씨벌이는 말을 통역이 되받아넘겼다.

《나두 모르오.》

그것은 사실 나의 솔직한 대답인지도 몰랐다.

《모른다? ... 길을 가면서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가?》

《모르오.》

《너도 저 공산당과 한 짝이지?》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외면한채 무표정한 눈길을 창밖에 보내고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말해라, 너는 어느쪽인가?》

《아무쪽도 아니요, 난 아무런 정견도 가지고있지 않소, 그저 음악가일 따름이요.》

후날 돌이켜볼 때마다 두고두고 수치감을 금할수 없는 대답을 그때 나는 하였다.

외면하고있던 나의 그 동행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돌아보았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마와 한쪽 입

귀에 피자욱이 말라붙어있는 그의 얼굴에 나를 무척 가궁하게 여기는듯한 모멸의 표정이 어리였다.

《그렇다?...》

장교는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옆에 서있던 병사에게 뭐라고 지껄였다. 그러자 밖에 나갔던 그 병사가 잠시후에 내가 갇혀있던 헛간에서 바이올린을 가져왔다.

《한번 타봐!》

장교가 명령하였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바이올린을 들었다. 바이올린이 나를 구원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자기생명의 한 부분처럼 몸에 익숙된 바이올린을 들어 천천히 왼쪽어깨우에 올려놓은 나는 이윽하여 사라사데의 작곡인 《리별》을 탔다. 왜 하필 그 곡을 선택하였는지는 똑똑히 알수없다. 그저 당시에 류행되고있던 그 노래가 어느 나라 사람에게나 또는 어떤 계층의 사람에게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장교의 입귀가 썰룩거렸다.

《좋아, 그냥 죽이긴 아까운놈이로군... 전쟁전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저도 모르게 긴숨을 내쉬었다. 장교의 얼굴에 떠돌던 잔인한 살인욕이 안개처럼 걷히며 그 어떤 관후한 빛이 언뜻 지나가는것이였다.

《국도극장에 있었소.》

《음... 이번엔 우리 국가를 타보라!》

《?!...》

나는 바이올린과 활을 내리웠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것이다.

그것은 우선 바이올린곡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자존심이 꺾이는노릇이였다.

나는 음악가이지 매춘부는 아닌것이다. 카페의 녹거리 연주가도 아니였다. 하여 나는 대답하였다.

《난 그 노래를 모르오.》

《뭣이? ... 우리 <아메리카대합중국>의 노래도 모르는가!》

《모르오...》

놈은 책상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나를 겨냥하였다. 철컹!-격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등굣에서 식은땀이 쭈욱 흘렀다.

《이래도 모르겠는가!》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같은 대답을 곹씹었다.

《생각나지 않소...》

《좋다, 그럼 생각날 때까지 헛간에 처박혀 있어!》

우리는 헛간으로 돌아왔다.

몹시 지쳐버린 나는 건초더미에 쓰러져 기신없이 누워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싶지 않았고 그저 끝없는 허탈과 망각의 세계에 몸을 맡기었다.

밤은 깊었다.

한밤중에 그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바람에 나는 몸을 일으켰다. 어딘가 가까운곳에서 귀뚜라미우는 소리가 애달게 들려올뿐 추위는 무덤속같이 괴괴하였다.

《이보시오.》 하고 그가 귀속말로 나직이 말하는 소리는 무시무시하리만큼 크게 들리었다.

《탈출하기요. 보초 한놈만 까놓으면 그만이요.》

《?...》

나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맥없이 이렇게 앉아서 죽겠소?... 밀쳐야 본전이요.》

《하지만... 혹시 죽지 않을는지두 모르지요...》

푸릿한 어둠속에서 그의 눈이 이상하게 번뜩거렸다.

《어떻게? ... 아무 정견도 가지구있지 않기때문에 죽지 않을수 있다는거요?》

《...》

《그런 어리석은 소린 하지도 마시오. 누가 누구를 하는 전쟁마당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길이란 없소. 당신이 말하는 그 《무정견》도 당신 자신을 도와주지는 못할거요.》

《하지만 난 그만두겠소...》

나는 건초더미에 머리를 떨구었다. 다시금 전신을 휩싸는 공허와 망각의 세계...

다음날 아침, 나는 نوم들앞에 불리워나갔다.

《이젠 생각나는가?》

《생각나지 않소.》

《이놈을 끌어가!》

헛간에서 نوم들에게 죽도록 못매질을 당한후 저녁에 또 끌려나갔다.

《이젠 생각나겠지?》

나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나지 않소...》

《그렇다? 래일 네놈과 단짝인 공산당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아놓으면 그때 생각날게다. 래일아침까지 말미를 준다!》

그날저녁 나는 그의 탈출계획에 동의하였다. 다른 길은 없었다. ...

우리는 일부러 목청을 높여 얼마간 말다툼을 한뒤에 한데 엉켜붙어 싸웠다. 정말로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다.

《뭐야?!...》 하고 어리둥절해진 보초병이 문을 열고 기웃이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벼락같이 نوم에게 달려들어 목줄을 늘렸다. 갑자기 눈앞에서 불꽃이 일며 땅!-하는 총소리에 귀안이 멍멍해졌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순간에 보초병놈이 방아쇠를 당긴것이였다.

우리는 그놈을 내버려두고 뛰기 시작하였다. 잠시후에는 우리의 등뒤에서 자지러진 총성이 울렸다. 우리의 탈출을 알아차린 적들이 총탄을 마구 란사하며 뒤를 쫓아오고있는것이였다.

나는 기를 쓰고 달렸다. 뒤에서 نوم들의 고향소리가 점점 가까와졌고 양갈진 총성이 귀전을 찼다. 목에서 확확 겨불내가 치미는것을 무릅쓰고 정신없이 달려 우중충한 숲의 어둠속에 들어섰을 때에야 우리는 نوم들의 추격에서 겨우 벗어날수 있었다.

숲의 중심까지 걸어들어간 우리는 기력을 잃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심한 피로와 갈증에 지쳐 까딱 않고 누워있던 나는 갑자기 번개처럼 머리를 치는 생각에 소스라쳐 일어났다.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이올린... 내 바이올린이 없어진것이다!...

나는 가슴이 덜컥 무너져내려앉는듯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근방의 수림속을 뒤지며 돌아갔다. 그러나 허사였다. 곰곰히 생각을 더듬어보니 보초병놈을 까놓히고 헛간에서 뛰쳐나올 때 그곳에 두고온것이 분명했다. 너무도 황황히 덤비다니니 그만 바이올린생각을 잊었던것이다.

아... 이를 어찌한단말인가!...

나는 극도의 절망에 싸인채 그가 누워있는곳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그의 이상한 거동에 주의가 돌려졌다.

그의 목구멍안에서 전례없이 가래가 끊는듯한 소리가 들리며 무엇을 토하기라도 하듯 땅에 엎드려 꿈틀거리는것이였다.

《?...》

어둠속에서 나는 그것이 혹시 피가 아닌가 하는 설향한 예감에 급히 그를 더듬었다. 그제야 나는 총탄이 그의 쇠골을 꿰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조금 다쳤을뿐이요...》

나는 그를 바로눕히고 속내의를 찢어 그의 상처를 동여매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잠시후에는 영문을 알수 없는 피이한 딸꾹질이 시작되였다.

《부질없는짓이요... 봐두오...》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린 그는 휘청거리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래도… 아직은 갈수 있소.》

머리가 한결 무거워진듯 그는 어깨우에 고개를 거북하게 외로 드리우고는 걸음을 옮겼다. 나는 옆에서 그를 부축하였다.

그러나 몇걸음 못가서 멈춰섰다. 잃어버린 바이올린생각이 또다시 가슴을 저민것이였다.

《좀 쉬었다 갑시다. 아무래도 그냥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소.…》

《?…》

그는 어둠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이는 얼굴을 간신히 옆으로 돌리며 나를 돌아보았다.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소. 저쪽에 두고 왔단말이요.》

《그런데?…》

피기하나없이 창백해진 그의 얼굴에 그 어떤 반문이 어리였다.

《그런데라니요? … 그제 어떤건지 당신이 압니까? 그건 내 재산의 전부와 바꾼 나의 생명과도 같은거요. 그것없이 난 살수 없소!》

《도무지 리해할수 없군. 그제 뭐라구… 그건 없다가두 또 생겨날수 있는게 아니요.》

그의 말에 나는 화가 동하였다. 어쩌면 그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할수가 있는가.

음악가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의 연주생활을 통해 자기의 몸에 익고 열광적인 애정을 쏟아부은 그 악기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그가 모른단말인가!

나는 어머니가 모성애의 예민한 감각으로 제자식의 숨결과 체취를 날날이 감촉할수 있듯이 지금껏 나와 하많은 고뇌와 번민을 함께 해왔으며 외롭거나 쓸쓸한 날에는 나를 줄곧 위로해주던 그 바이올린을, 그 《목소리》와 《버릇》을 눈감고도 생생히 감각할수 있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나의 벗이였다. 그리고 나의 수호신이였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그 바이올린이 나를 배신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주리라 믿는 믿고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잃은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린 지금에 와서 나는 내가 무엇때문에 이 길을 가고있는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의혹이 되살아올랐다. 어디로? …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요지부동의 고집스러운 어조로 뇌이였다.

《난 더는 못가겠소. 아무래두 그 바이올린을 찾아야 할가보오. 그건 나에게 호신부나 같은거요. 살볼이 이상으루 귀중한거란말이요.》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하여 그는 경멸하는 투로 나직이 말하였다.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놈들은 당신을 그냥두지 않을거요 그제 그놈들의 국가나 연주해 주려면 가오. 저리로 가!…》

나는 돌아섰다. 그러나 막상 발걸음을 떼지는 못하였다.

그가 나에게 조금만 더 고상하게 말했더라면 사실 나는 돌아섰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던진 마지막말마디와 멸시하는 투의 어조가 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나의 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여전히 고개를 어깨우에 거북하게 드리우고는 차츰 나의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고개를 외로 드리운 그 모양이 나의 망막을 자극하였다.

그의 그림자가 전나무숲에 묻히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왜 가지 않소?…》

나를 돌아본 그가 폭 잠기고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될수록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푸르스름한 달빛과 밤이슬이 맺혀 축축해보이는 전나무잎에 시선을 가져가며 대꾸했다.

《그건 나의 자유요. 어쨌든 시작한 길이니 싫든 좋은 끝까지 갈수밖에…》

그다음 우리의 말은 동강이 났고 다시금 우리는 그제 끝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길…

그때 나에게에는 이미 하나의 길밖에 없었다.

길아닌 가시덤불속을 헤쳐나가야 하며 알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있는 구태여 이 험난한 길 말고도 다른 길이 있었으나 나는 그곳으로 돌아설수 없었다. 만일 돌아서는 경우 놈들앞에서 보조병을 살해한것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것을 발명해야 하며 어차피 《아메리카대합중국》의 노래를 연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함께 사선을 넘어왔으며 지금은 부상을 당한 그를 저버리고 돌아선다는것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우리의 길은 비록 우연히 택한 길일지라도 일단 선택한 다음에는 도중에서 쉽사리 돌아설수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던것이다.

우리는 걸었다.

힘에 겨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걸었고 며칠을 꼬박 굶고도 오로지 북쪽을 향해 걸었다. 뒤에도 옆에도 앞에도 어디나 적들의 강점지역이었고 놈들의 비행기가 뿌린 뼈라들이 산속에도 이따끔 널려있었다.

우리는 뿔수록 깊은 수림속을 택하였다.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제일 곤란한것은 굶주림을 이겨내는것이였다. 며칠씩 가도 인가한채 볼수 없는 그 수림속에서 나는 초근목피로 연명한다는 말의 진의를 난생처음으로 체험하였다.

그동안 그는 몇번이나 출혈하였고 기력은 눈에 띄게 진해버렸다. 그대로 가다가는 며칠을 더 넘기지 못하리라는것이 명백하였다.

다행히도 북대봉의 험한 산밭을 타고 지친 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어느날 산골짜기에서 한채의 인가를 발견하였다. 간신히 그 집 대문앞에까지 이르러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까무러칠듯 기절초풍하는 그 집주인내외를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의 물결이 야인과 흡사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집에는 늙은주인내외와 함께 그들의 아들인듯한 젊은이 셋이서 살고있었다. 그들은 마치도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것이 없는듯 또한 그와는 인연이 없는듯 평온하게 살고있었다. 예까지 오도록 이러한 사람들을 처음 보았다. 그 집의 령감과 아들은 자기네의 생활은 예나 오늘이나 이대로이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듯 심드렁한 얼굴로 숯구이할 참나무들을 가려놓고있었고 로친은 부엌에서 감자를 삶고있었다.

희한하게도 이 집사람들은 지금 전선의 국면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시제 당장 참을수 없는것은 허기진 창자를 자극하는 감자 삶는 구수한 냄새였다.

마침내 늙은 녀인이 돛그릇에 삶은 감자를 무드기 담아가지고 들어왔다.

《어서 드시우, 시장할텐데.》

나는 굶주린 이리와 같이 그 감자그릇에 달라붙었다. 인사도 미처 못하고 렬치없이 먹었다. 한참이나 목구멍이 미여지도록 부리나케 쓸어넣고 삼키던 나는 가엾고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고있는 늙은이의 눈길에 부딪치고서야 내가 꼭 짐승처럼 먹어대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쳐 슬그머니 손에 든 감자를 내려놓았다.

《더 자시우다, 어서들 드시우... 산속에서 굶주렸는데 체면이라는게 있겠수. 민망해할것 없수다.》

《미안합니다. 저... 같이 드시다...》

나무를 가려쌓던 령감이 일손을 털고 우리한테 다가와왔으며 손을 휘휘 내저었다.

《원, 이런 쌍놈의 파리새끼들같으니! 이놈의 산속엔 늦가을철까지두 파리성화우다. ... 그래 시방 거기 바깥세상형편은 어땡소?》

《후퇴하고들 있지요...》

《?...》

세쌍의 눈이 말없이 우리를 응시하고있었다. 등잔심지 타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리였다.

《그러다... 우리 군대가 아주...》

입속말로 외우던 령감이 스스로도 자기의 말이 무섭게 들렸던지 말끝을 사리였다. 《한데 당신들은 미국놈들을 봤소?》

《예...》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그놈들이 아주 무섭게 생겼다던데 그게 사실이요?...》

《...》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뜨락에서 암닭과 병아리들이 평화롭게 거닐고 있었다. 구구구 소리를 내며 모이를 쫓다가도 어디서 조금이라도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면 암닭이 제격 병아리들을 품에 안고는 장한듯 목을 빼들고 사위를 둘러본다.

그 뜨락을 망연히 지켜보던 나의 동행자가 입을 열었다.

《지금 저기서는... 싸우러들 가고있지요. 피흘리며 싸우고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

젊은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몇마리의 파리새끼가 방정맞게 뱅뱅거리며 그의 눈앞에서 돌아쳤으나 그는 쫓을념을 았았다.

미구하여 령감이 한숨끝에 말하였다.

《우릴 그렇게 쏘아보질랑은 마시우. 반역자는 아니외다... 그리구 이 애루 말한다면 우리 가문의 3대독자 외아들이외다. 늘그막에 자식이라고는 저것 하나밖에 없지요... 자, 어서 더 드시우. 그리구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예서 몇달이라두 묵었다가시우. 여기까진 놈들이 들어오지 못할테니까...》

그러나 나의 동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겠습니다. 우린 당장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공연한 고집이었다. 여기서 상처가 다 회복된 다음에 떠나도 늦을것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완고한 고집을 돌려세운다는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것이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돌릴것을 몇번 권고해보다가 부득이 그를 따라 일어서며 그 집주인에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젊은이는 바깥을 밟고 아까부터 그 자리에 목석처럼 앉아있었다.

우리는 돌아서서 길을 떠났다.

얼마간 걸었을 때 뒤에서 방울소리가 울렸다. 대문에 매달린 방울이 요란스레 울었다. 그리고그 대문뒤에서 젊은이의 말소리와 늙은 녀인의 목소리가 엇바뀌어 들려왔다.

《날 놓으시라요. 제발 좀 놓아요!...》

《그러지 말아, 애야... 이 에미를 두구 가긴 어대 간단말이나...》

《그러지 말아요! 어머니 제발 좀... 나를 놓아줘요...》

오래도록 들어오는 울음소리와 방울소리... 대문의 돌쩌귀와 빗장이 빠져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콘트라바스의 제일 굵은 현을 튕겼을 때와도 같은 령감의 웅글은 목소리...

《놔두구려, 로친네... 가도록 내버려두우, 비록 산중에서 숯구이를 해먹었을망정 그래두 공화국이 선후에야 우리두 사람대접을 받았어... 공화국이 없으면 우리두 다야!...》

우리는 길을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등뒤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났다.

얼마후 셋이 된 우리 일행은 말없이 걸었다.

그 숯구이집에서 떠나 하루밤과 이틀낮을 내쳐 걸었고 그 이틀째의 저녁무렵에 그 라진사람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다.

림종전까지 그의 의식은 흐려지지 않았고 나에게 하는 말의 발음도 정확하였다. 단지 험하게 부어오른 목에서 피가 끓는 소리와 끓임없는 팔국질로 하여 간간이 말이 끊어졌을뿐이었다.

그는 품속을 더듬으며 신문을 꺼냈는데 그것은 군의소에 있을 때 손에 짊 움켜쥐며 흥분한적이 있던 바로 그 전선신문이었다.

《여기에 내 친구의 이름이 있소. 전사자들의 이름속에... 김광평이라구... 한번 찾아보오. 어서 찾아보라니까, 부상당하기전까지만 해도 중군기자였던 나는 그들과 함께 싸웠댔지...》

나는 그의 요구에 못이겨 그 낯익은 전선신문을 펼쳐들었으나 그의 얼굴에서 눈을 땔수가 없었다.

그는 먼 추억을 더듬는듯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며 알릴듯말듯 입술을 움직거렸다.

《...정말 기막히게 재간좋은 사람이었소. 뭐든지 못만드는게 없었거던... 새납은 또 얼마나 잘 붙었다구...》

여기까지 말하던 그는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그 새납소리가 울려퍼지는 고향의 산기슭을 눈앞에 그려보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엔 안온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은 이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듯 세차게 움직거렸다.

《헌데 난 그를 저 피가 흐르는 락동강가에 두고 왔소... 당신은 저기에 바요링을 두고 왔다지만...나의 귀중한 전우들을 거기에 두고 왔소... 그렇게 재간 좋던... 아까운 사람들이 죽었소... 뭇때문이나구?... 조국을 위해서였소. 조국... 그런데 당신은 바요링이라구?... 바요링... 무슨 바요링?...》

그는 초점을 잃지 않은 눈에 뚜렷한 의문을 담고 따져문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에서 무서우리만치 동공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더니 문득 그대로 굳어졌다.

그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부릅뜬 그 눈으로 영원히 나에게 묻고있는상싶었다.

《바요링? ... 무슨 바요링?...》

나는 그의 눈을 감겼다.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에게 묻고있는것이였다. ...

저녁의 미풍에 우중충한 나무숲이 조용히 설레이고있었고 주위의 삼라만상은 아무 일도 없은듯 천연하였다. 불현듯 축축한것이 불을 적셨다.

나와 젊은이는 평퍼짐한 둔덕을 올라 그를 고이 안장하고나서 모자를 벗고 묵도하였다. 그리고는 떠났다. 묵묵히 북쪽을 향하여...

무엇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다. 이 나라의 재능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 가정들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외아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있으며 또 무엇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다.

길...

그때 우리의 길에는 우연이라는것이 없었다.

실사 우리앞에 그 어떤 시련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열두번 다시 환생할수 있고 열두번 다시 죽는다 해도 그 열두번을 다 필연코 그 길을 택해야 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리라는것을 그때 우리는 피로써 알았다....

사회주의애국주의를 구현한 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기 위하여

백영철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고있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당사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18~19페이지)

침다운 애국자는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요람이며 진정한 어머니품이다. 사람들의 참다운 삶이 시작되고 꽃피나는 조국의 품은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이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사람들의 운명과 미래와 련결되어있는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참된 애국자,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우리 혁명대오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사정, 그리고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의 요구는 오늘 조국에 대한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최근 우리 당의 지도밑에 조국에 대한 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 가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조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를 비롯하여 조국을 노래하는 문예작품들이 창작되어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려는 각오를 더 높여주는데 이바지하는 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을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명백히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지난 시기의 애국주의와의 차이를 뚜렷이 하며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도 더욱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프로레타리아독재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 민족경제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제2판, 466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여기에 부르조아적애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본질이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또한 계급의식과 민족주의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이처럼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과 민족의 리익을 다같이 지켜싸우는 애국주의로서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에 대한 사랑을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키는 가장 철저한 애국주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조국은 수령이며 수령은 곧 조국이라는 사상이 밝혀졌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의 새 력사를 펼쳐며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나가는 령도자이며 인민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조국의 권위와 영광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영광과 행복에 대

하여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한평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맹세를 다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조국광복의 새아침을 안아오시고 불면 불휴의 활동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빛내여 주시는 수령님의 품, 바로 그 은혜로운 품을 우리인민은 누구나 다 조국의 품이라고 심장으로 노래 부르며 수령님을 따라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조국에 대한 탁월한 사상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 대한 리해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위대한 사상이다.

조국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작품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이다.

...

**바다우에 동실 솟는 아침헛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은 하나의 노래이기전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이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조국 찬가이다.

이 송가의 불멸의 의의는 사람마다 가슴속깊이에 안고사는 귀중한 조국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우리 시대의 철학을 예술적완벽성을 가지고 해명한데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행 -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철학적깊이가 있고 참신하고 예리한 문제성이 흘러나오도록 다양한 생활과 개성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창조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서정시 **《나의 조국》**과 예술영화 **《월미도》**가 커다란 격동과 심오한 사상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은것도 결국은 우리 시대의 심오한 철학을 다양한 생활을 통하여 특색이 있게 보여준데 있다.

조국이어!

너는 무엇이기에
가만히 네 이름 부르면
가슴은 터질듯 궁지로 부풀고
눈굽은 찢릿이 젖어드는것이나
...

조국이어, 너는
세기의 하늘높이 내려쳐오르는
세찬 퍼덕임
그 아득한 높이의 빛발
찬란한 우리의 미래
...

그렇다, 조국은
수령님 찾아주신 우리의 삶
수령님 안겨주신 우리의 궁지
영원한 영원한 그이의 품
그품이어라!
조국이어 나의 조국이어

서정시 **《나의 조국》**은 이처럼 뜨거운 심장이 없이는 안을수 없고 진실한 사랑이 없이는 부를수도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이름 - 조국이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심오한 사상을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노래하고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월미도의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훌륭히 형상한 예술영화 **《월미도》** 역시 심오한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빛나는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예술영화 **《월미도》**가 거둔 특출한 사상예술적 성과는 바로 우리 조국은 곧 수령님이시며 참다운 애국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에 기초하고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한데 있다.

작품이 제기한 이 심오한 철학적문제는 주인공들의 깊이있는 성격형상과 격동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독창적으로 훌륭히 밝혀지고있다.

조국에 대한 참뜻을 두고 대대장과 중대장이 나누는 대사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었단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곳에서 왜놈의 채찍밧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그러니 우리가 조국을 위해 한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말이 아니겠소.

태훈이! 우리 비록 몸은 장군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장군님을 호위하는 심정으로 이 섬을 사수하자구.》

얼마나 의미심장한 철학적대사인가!

이 영화는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대변한 대대장의 절절한 호소에 담겨져있는 깊은 뜻을 핵으로 하여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

조국이란 무엇이며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바로 여기에 이 영화가 삶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힘있는 무기로 되는 근거가 있다.

문학작품에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을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결부하여 보여주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자기 조국에 대한 끝없는 자랑과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세계에는 우리 나라처럼 산 좋고 물 맑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에는 유구한 력사가 있고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많다.

애국심이란 조국의 아름다운 풍치와 풍부한 자원, 자랑찬 력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지으시여 청소년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신 불멸의 송가 《조선의 노래》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감정을 지니게 하는 본보기작품으로 된것도 결국은 이 명작이 뜨거운 애국의 감정과 함께 조국의 모든 귀중한것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때문이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데 찾아볼수 있을가

3천리 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조선
자유와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 일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혁명적열정과 투지와 용맹이 심장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 위대한 조국송가는 구절구절마다에 조선의 피줄이 뛰고 조선의 넓과 슬기, 조선의 긍지와 자랑이 력력히 뽐난다.

이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그 사상주제적내용과 예술적완벽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것으로 하여 우리 문학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보기작품으로 된다.

우리가 또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숭엄하고 장엄한 감정과 함께 뜨거운 애국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것은 조국의 아름다운 풍치와 풍부한 자원,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하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살며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며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참다운 애국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한다는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인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한없이 고결하고 순결한것이며 실로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예로부터 절승경개를 노래하고 은금보화를 자랑하여온 이 땅위에 주체의 화원으로 피어난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생활의 근심걱정을 모르는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으로 하여 더욱 아름다운 조국,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전체 인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화목하게 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하여 더욱 빛나는 우리 조국을 떠나 우리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존엄과 행복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것은 바로 우리 문학에 애국주의가 나래치게 하는 원천이며 생활적기초로 된다.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가 우리들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목청껏 부르는 조국에 대한 송가로 세계만방에 자랑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두리에 굳게 묻쳐 화목하게 사는 끝없는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남다른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노래라는데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작가들의 창조적관심이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애국자의 전형을 창조하는데로 돌려져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람들의 감정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의 매일매일의 사업과 생활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조국의 일목일초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기 공장과 마을, 자기 일터와 직업을 사랑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성실한 투쟁, 통일독립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으로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전동우)이 대중속에 널리 불리워 지고있는것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생활체험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슴 사무치게 절감한 우리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애국의 열정을 진실하게 노래하였기때문이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흩이 되어 뿌릴 덮어주리라
아- 나의 조국아
흩이 되어 뿌릴 덮어주리라

부르면 부를수록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순간을 살아도 값있게 살려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참다운 애국자는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자각이 있고 책임적이며 성실한 인간이어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시대의 숨은 영웅인 애국자의 성격적특징들을 오늘의 새로운 시대적높이에서 깊이있게 탐구하고 전형화함으로써 그들의 산모범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에는 숨은 공로자들의 전형이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찾아내고 내세워준 숨은 공로자들은 그 어떤 직위나 명예도 바라지 않고 당과 수령의 구상을 조국방위에 꽃피우기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우리는 참된 애국자인 숨은 공로자들의 전형적 모습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누구나 다 그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며 일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주제의 작품에 반제자주의식, 계급의식을 깊이있게 반영하는것은 애국자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높은 계급의식을 강조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밝혀주시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반제자주의식, 높은 계급의식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반제자주의식과 높은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자기의 피땀이 깃든 사회주의조국과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거기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급적원썹들과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는것은 사회주의애국주의의 본질적속성이며 그것을 발현시키는 기초로 된다.

때문에 작가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의 주인공들을 계급교양의 견지에서 빛나게 형상하는데 예리한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참다운 애국자 긍정적주인공의 계급의식을 옹계 보여주어야 계급적근본에서 살고 계급적근본을 지켜싸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애국주의정신을 펼쳐보여줄수 있으며 극성도 풍부하게 구현할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썹들로부터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근로자들의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체험을 오늘의 생활과 적절하게 결합시켜보여주는것이다.

오늘의 생활을 지난날의 쓰라린 생활과 대비적으로 보여주자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인하며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계기를 해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

장편소설 《생명수》는 주인공들의 운명과 생활을 과거와 오늘을 대비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의 행복속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이 소설은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 부모들이 착취받고 압박받아온 지난날을 잊지 않게 하며 물에 시달려 피눈물을 뿌려온 농민들의 원한과 고통을 영원히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얼마나 고마운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도록 하여준다.

장편소설은 어제날 우리 부모들이 겪은 비참한 참상을 생동하게 펼쳐보임으로써 계급사회를 체험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생동한 표상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작가들은 현시기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 주제로 한 작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높은 당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참된 애국자의 전형을 오늘의 시대적높이에서 특색있게 창조함으로써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영웅들이 사는 땅

변홍영

조국의 앞날이 창조되는
이 건설장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공훈많은 영웅인것 같구나

억년 솟아있을 저 벽체우에서
몰탈을 다져넣는 애어린 병사도
충막을 울리는 수많은 연공도
조국청사에 위훈을 남긴
금별의 수훈자들인것 같구나

우리 수령님 찾아오시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순천의 건설자들
누구나 다는 이를수 없는 소원을
다 풀어주신 그 은정에 목메여
수령님 품에 울고웃던 그 모습들

자기들이 세운 기둥들과 벽체들
거기에 바친 로동의 보람이
수령님의 파분한 치하속에 빛날제
그것이 사랑인줄 눈물속에 깨달으며
충성의 피가 끓던 그 가슴들

수령님 그토록 믿어주시기에
별들도 조으는 깊은 밤
여기서는 기발이 나뭇기고
열정의 노래 그칠줄 몰라라
청신한 아침처럼 약동하는 청춘이 여기 있어라

수령님 그토록 믿어주시기에
아름찬 과제가 어깨에 무거워도
오늘은 비록 기동조차 다 못세웠어도
자기의 창조물들로 하늘을 메울
그날에 사는 신심에 찬 마음들이 여기 웃어라

오, 그가 병사이건 체대군인이건
그가 돌격대원이건 지원자건
여기선 그 누구나
시대앞에 선 자기의 위치를 스스로 자각하며
후더운 땀을 바쳐
조국을 억척스레 받들어간다

여기선 그 누구나
어버이수령님 펼쳐가시는
위대한 조국건설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자기 생의 자욱을 남기고싶은
위훈의 갈망에 불탄다

오, 아직은 그가 비록
조국앞에 공훈을 세운적 없는
애어린 나이여도 좋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속에
여기서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평범한 한생보다 더 큰 위훈을 약속해주나니

비날론공장의 탄생과 함께
순천이여
이제 너의 땅우에서
조국은 수많은 영웅들의 탄생을 보리라!

모닥불이 탄다

계훈

하늘을 떠밀며 솟아오르는
아찔한 함성탑 지붕우에
활활 타는 모닥불-
그결에 빙-둘러앉은
지금은 건설자들의 짧은 휴식참

툭툭 뛰는 장작우엔
철철 끓는 주전자
쩍쩍한 땀물이 땀 작업복에선

문문 피어오르는 하얀 김발...

이런 때면 더더욱 림림하구나
얼른거리는 불빛에 안겨오는
아름답고 건장한 젊은 얼굴들
머리우엔
기쁘게 날아에는 밤새들...

누군가 부르는 은근한 노래

기타의 가락에 실려 흐르고
강바람에 품겨오는 향긋한 물냄새
웃음과 노래로 더욱 그윽해...

저것 보라!
랑만넙친 우리의 노래 지휘하는듯
높이 솟아 빙빙도는 기중기
그 쪽 뻗친 긴팔우에
순천의 둥근달이 걸렸구나

돛폭처럼 부풀어오른
야간전투지휘소 천막가 저 멀리
용을 쓰는 굴착기의 세찬 동음은
한주먹에 돌산을 부셔
어서빨리 세계굴지의 비날론공장을 들어올리고
싶은
우리네 통이 큰 숨결이 아닌가

좋다!
땀과
불!

바람과
노래소리!

진정, 당의 뜻 높이 받들어
우리 몰탈우에 떨구는 땀방울로
땀젖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로
노래 안고 퍼덕이는 돌격대기쪽으로
조국의 기쁨, 우리의 비날론공장은 일떠서거니

룩룩 장작이 탄다!
가슴은 이글이글 불타오른다!
몸과 맘 화끈 데운 돌격대원들
건똥 마른옷 나래처럼 펼쳐입고
떠들썩 웃으며 자리를 인다

아, 사납게 불어치는 밤바람 맞받아
모닥불이 탄다
새로운 위훈으로 부푸는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는 랑만의 샘터-
뜨거운 불길과 웃음과 노래를 안고
합성탑은 하늘가에 솟아오른다!

따뜻한 해빛은 지붕을 덮고...

따뜻한 해빛은 지붕을 덮고
찬바람도 솟저은듯 에돌아가네
기중기 높이 들린 련포별 한끝
아담한 새 집의 마당가에선
떠들썩 건설자들 새집들이 한다네

뜨락엔 천막가의 들국화도 옮겨왔네
후더운 방안의 윤기나는 장판에
어린애인양 뒹굴기도 하고
건설장을 향하여 새 창문도 열어제끼며
젖은 마음들... 습벅이는 눈들...

피끓는 한창나이 더할 일욕심에
별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에 살아도
언제 한번 집을 두고 생각한적 없었건만

바람찬 가을아침 수령님 오시여
건설자들 겨울나이 집을 마련해주셨으니

땀흘리고 돌아오면 맞아줄 포근한 요람
사랑으로 추녀었고 창문을 단 집-
이 집에서 자래운 용맹과 슬기는
위훈의 탑과 기둥을 하늘가에 세우리
하여 새 집은 조국의 크나큰 집을 낳으리

따뜻한 해빛은 지붕을 덮고
찬바람은 솟저은듯 숨어버렸네
건설장의 동음에 장단을 맞춰
새집들이 창가에 흐르는 기타소리
뜨거운 생각 싣고 은은히 흐르네

황성하

연공들이 내린다

걸음을 옮겨도
아슬한 기둥을 세우며
하늘가에서 걷는 사람들

말을 해도

수기와 호각으로
눈웃음으로 하는 사람들

그네들이 내린다
련포별 아득히 철의 기둥을 세우고

정영호

구름가에서
마치 선남들인듯

로동의 땀배인 옷자락을
시원히 열어젖히고
휘파람도 휘휘 불며...

담배 한대 붙여문
짧은 한순간에도
여기에 일떠설 비날론공장
그 연기 뽑는 굴뚝을 두고
가슴 설레는 이들

비바람 눈바람
하늘가에서 다 맞아도
건설의 선봉대
창조의 척후병이라는
금지로 즐겨맞는 이들

그네들이 내린다

물 한그릇 청해도
기증기팔에 올려온 그대로
목을 추기던 사람들
한 대상의 기둥을 다 세우고
연공들이 내린다 내린다

삶의 기쁨이
이런 순간에만 있는듯
다른 한곳
이제 다시 세울 저쪽을
마치 고향의 뛰놀던 작은 둔덕처럼
발아래 굽어보며
연공들이 내린다

아, 삶의 모든것을
조업의 그날에 두고
시대의 하늘가에 하루빨리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울 그날로
더 높아 오르는 시각이여

청춘이여!

청춘이여!
너의 때문에
나도 큰 결음으로 들어선다

길게 드리운 머리우에 꽃테를 두르지도
화려한 옷속에 묻히지도 않았다
다만 높뛰는 심장을 안고
청춘이여, 나는 너와 첫 인사를 나눈다

무엇을 숨기랴
누구보다도 나는
아름답기를 원한다
찬양과 부러움의 못시선들에
흠뻑 취하여 서있고도싶다

허나 내 가슴엔
반짝이는 브로치가 필요치 않다
이마에 맺히는 후더운 땀방울이
내 건설장에서 즐겨쓰는 빨간머리수건이
나를 아름다운 처녀로 내세워주거니

여기 순천비날론공장건설장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싶다
소중한 청춘을 조국에 바쳐
영원히 청춘으로 살줄 안 너과학자처럼
수십길 바다밑에서
갑문의 주추들을 쌓은 병사들처럼...

사랑한다면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싶다
시를 쓴다면
마지막숨결로도 당을 노래한

그 선반공처럼 이 가슴 터놓고싶다

청춘이여
너는 순결한 내 마음의 시절
오늘보다 래일에 살기 좋아하고
한일보다 더 할일을 두고 잠 못 이루는
참으로 드바쁜 내 행복의 시절

너는 혼장처럼 명예처럼
경탄과 존경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 온 우주를 주고
기쁨과 행복으로 처녀의 눈동자 빛내주거니

그래서
일에도 사랑에도 증오에도
나는 아낄 줄 모른다
땀을!
숨결을!
주먹을!

주저없이 베풀라
너의 모든것
청춘이여
네 이름 내 더럽히지 않으리니

믿어달라
백발이 성성한 먼 후날에도
내 한생 조국과 함께
너의 대문을 나서지 않으리라
청춘이여!
청춘이여!

럼형미

나는 광복거리를 걷는다

강창영

아직은 먼 공간우에
무엇인가 다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묻지 않는다
다만 기증기들의 동음소리 호각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광복거리를 걷는다

지금은 길옆에
술쉴이 우거진 기슭에 언덕에
흙구멍이를 파헤치고
깊이 더 깊이 기초를 다진대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래일의 광복거리를 두고

방금 나붙은 대형속보판에
큼직이 새겨진 이름들과 높은 목표에서
앞을 다투며 뛰어오르는 경쟁도표앞에서
내 진정 무엇을 물을것인가

땅을 차고 하늘을 치받으며
쭉쭉 뻗어오르는 철골의 숲
와와 소리치며 우뢰쳐가는
거창한 건설의 음향속에서
내 달리 듣고싶은 말 무엇이라

잠간 눈돌린 사이에도
몇개씩 총막돌이 덧놓이어
내 길도 사람도 헛갈린들 어떠랴
다정한 사람을 만나도
긴 대답할 짬도 없는 그 얼굴들이

누구나 다같이 낯설지 않으니...

저들이여라
서해갑문건설장 거기서 만난 사람들
여기서 내 다시 만난것 같고
누구나 한모양 뛰는 모습으로
나의 눈에 안겨오는 그날의 새 주인공들

서해의 파도소리 에 안들려도
날바다를 길들인 그 전사들의 높뛰는 숨결
누구나의 그 심장속에 뛰고 또 뛰여
그 불길없는 전투마당이
그대로 옮겨진 광복거리건설장!

아, 아직은 먼 공간우에서
나는 찾지 않는다
내 묻지도 않는다-
래일의 광복거리를

하지만 나는 광복거리를 걷는다
우리의 서해갑문우에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서있던 그날처럼
우리 당의 구상이 활짝 꽃핀
황홀한 리상거리, 새 승리의 거리를

아, 나는 걷는다
노을 비낀 하늘가 해밝은 창가에 어린
시름없는 너인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별빛 내리는 사랑의 거리
그 어메나 차넘치는 벽찬 생활의 음향을 들으며...

묵은 미지수

한익훈

1

빠스는 운행의 종점인 과학원 분원정류소에 이르러 짐을 뿔으며 벗어섰다. 첫 빠스여서 워낙 손님이 적었던데다가 도중역들에서 하나 둘 내리고보니 여기 종착역에서 내리는 손님은 승진구 그 한사람 뿐이었다.

빠스의 발판에서 내려서자 당장 물기 많은 눈이 미끄러지며 신발등을 함썩 덮었다. 날씨도 참 망녕이 들었는가보다. 경칩이 눈바투 다가들었는데도 어지간히 잠풍한 날씨에 어찌된 영문인지 간밤에 철을 헛갈린 함박눈이 썸뽕썸뽕 평평 쏟아졌다. 그래도 철이 철인지라 이 아침에도 맥폴린 겨울의 여운마냥 푸실푸실 훔날려내리는 눈발은 거의다 비에 가까운 진눈까비였다. 어찌나 물기가 많은지 동그란 철판에 빨간 색감으로 《과학원 분원정류소》라고 쓴 커다란 표식판대기가 온통 눈에 묻혀 설기떡처럼 북슬북슬해졌다. 포근한 봄의 입김속에 시커멓게 독을 쓰며 아지랑이를 가물가물 피워올리던 대지는 레의 눈의 세례속에 휩싸여서 갑자기 뱅뱅 해지고 조용해져버렸다.

승진구는 눈내린 아침이면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부단히 상쾌해지고 즐겁기만 했다는 감개무량한 잠재의식이 불쑥 일었다. 야릇한 흥취속에 그는 이 아침 자신의 마음이 이처럼 류다른 정에 겨워 설레이는것이 삼라만상을 산뜻하게 뒤덮은 눈으로하여 성취되는 그 어떤 정서적충동만인것이 아니라 오래 동안 자기네 실에서 고충을 겪으며 진행해온 과학 연구사업이 바야흐로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의 덕분이라는것을 인차 이해하였다. 그렇다. 그는 요즘 내내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그어떤 환희롭고 행복하고 희망찬 즐거움으로 마음이 들떠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2년가까이 실의 연구사들이 끈지게 내민 화학공업분야에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던 새로운 유기물질을 탐구하는 결코 수나롭지 않은 연구사업이 빛나는 결속단계에 이른것이다. 의심할바없는 성공을 확신하게 되는 지금에 와서 오늘까지의 나날을 돌

이켜보느라하면 실로 레사롭지 않은 가슴벅찬 곡절과 사연의 언덕들이 불쑥불쑥 안겨들며 눈물겨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연구사업의 불을 보듯 그 전망이 확고한 단계에 이르게 되자 신문사에서 벌써 기자가 세차레나 왔다갔다. 매우 성미가 활달하고 감동적인 그 기자는 시시콜콜한 취재사업을 끝마친 그날에 실의 연구사들이 발휘한 공헌의 그 어느 편린조차 그냥 스쳐버릴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로 넘쳐있다고 자기의 인상을 자못 엄숙하게 피력하였다.

승진구는 질척질척한 눈우에 시뻘뻘 물기가 배인 자국을 찍으며 분원으로 뻗은 도로에 들어섰다. 그런데 한쪽가녁에 이미 누군가의 커다란 발자국이 듬성듬성 찍혀있었다. 첫 빠스에 타지 않았으니 분명 걸어서 출근한 저 수순길을 앞서간 숨신발자국임자는 과연 누구것인가? ... 즐거운 의혹에 잠겨 앞서간 그 발자국을 따라 정문출입구에까지 이른 승진구는 물골사납게 진눈까비가 짓발린 불성모양의 신발을 탁탁 털었다. 때를 같이 하여 접수구의 창이 요란하게 탕탕 울렸다.

《승진구실장동무!》

안경을 건 번대머리의 커다란 얼굴이 접수구의 창유리에 한가득 차서 버주기미소를 짓는다. 밤경비를 선 경비원아바이였다.

《대기실에서 손님이 기다리고있소. 새벽에 왔는데 - 그는 허리를 젖혀 머리우의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 벌써 한시간이 넘었구만.》

길숨한 흰 살결의 생각깊은 얼굴과 대조되어 유표하게 크고 시원한 승진구의 두눈에는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다.

《절 찾아왔단말이지요?》

그는 어지간히 태도가 굳어져서 손으로 가슴을 짚었다.

창안의 커다란 얼굴은 고개짓으로 끄떡 응수하고는 팔굽으로 누르고있던 두터운 외문도서에 덤덤히 시선을 박았다.

(그러니 슷눈길우에 새겨진 첫발자국의 임자가 다름아닌 바로 나를 찾아온 손님이란말이지.)

다소 긴장을 풀며 승진구는 접수실의 등실한 어 깨너머로 얼핏 대기실안을 여겨보았다. 뽕창으로 흘러든 희벗한 역광을 등지고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아 담배를 태우고있는 재빛의 커다란 털모자에 밤 빛다우다직숨웃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슴푸레안 겨들었다. 대체 누굴가? ... 누굴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까닭모를 조급성에 뒤쫓기어 허둥거리면서 승진구가 대기실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을 때 휴계실용의 커다란 키다리 오지채털이에 담배를 꼭 박아버리며 의아쩍은 표정으로 이쪽을 띄여보던 손님은 개털모자를 벗어취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를 알아본것 같은데 과연 누군가?)

모자 쓴 자국이 유표한 반백의 초리 센머리선이 굵은 얼굴에 특징적으로 잡혀드는 수북한 눈썹밑의 공손한 표정의 큰 눈, 콩크리트바닥에 녹아버린 시커먼 물그림자를 짙고선 젖은 숨신... 어푸수수해보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만만찮은 강단이 느껴지는 이 허우대 큰 철빛얼굴의 로인을 정녕 어디서 보았던가?... 언듯 보았던듯싶은 얼굴이면서도 딱히 알아맞힐수 없는 요령부득의 순간 로인이 먼저 반기며 커다란 손을 내밀었다.

《아, 연구사선생이 틀림없구만요. 15년세월이 제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선생의 그 왼쪽이마허물이야 지을수 없지요.》

승진구는 어망결에 높은 이마 한쪽에 새끼손가락마디의 크기로 패여있는 불깃한 허물을 짚으며 어설픔게 웃었다.

그의 가슴은 널뛰듯했다. 예폭식수지합성실험의 어느 하루 뜻밖의 부주의로 유리관이 폭발하면서 날아난 유리조박에 맞아 생긴 이 상처를 저 로인이 어떻게 알고있는것인가... 그러니 15년전 내 연구사업의 희노애락이 누벼진 그 전기기구공장에서 온?! ... 아니 이게 누군가!!...

《동방혁아바이시군요. 직장장아바이가 이렇게 찾아오시리라고는 정말 너무 뜻밖이여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승진구는 북받쳐오르는 눈물겨운 감개에 겨워 자신의 손을 덜쳐잡은 동방혁의 솔뚜껑같은 손우에 제 다른 손을 덧놓아 세차게 흔들었다.

이상하게도 15년간 떨어져있은 전기기구공장에서 2년반의 생활에 이 한순간에 또렷이 함축되어 가슴이 베여지게 안겨드는듯싶었다. 그 2년반생활은 승진구에게 있어서 억누를수 없는 환희와 행복의 절정이기도 하고 돌이킬수 없는 오뇌와 락망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예폭식수지합성의 성공은 그에게 준박사학위학직의 명예를 차려지게 하였는가 하면 우리의 원료에 의한 ϵ -2결연물에 대한 연구사업의 여지없는 실패로 하여 뼈저린 수치를 쓰겁게 짓씹으며 물러난 공장이기도 하였다. 그렇듯 묘한 얼룩으로 심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즐겁히기도 한 그 공장에서 언제나 각별하게 추억되는 사람은 자기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은근히 원심을 써주던 동방혁이었다.

《정말 몰라보게 변하셨군요.》

《늙었다말이겠지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하긴 내 나이 벌써 예순고개를 넘기었다우. 그러구 보면 연구사선생도 모색이 많이 달라졌수다. 인젠 귀밑머리가 희끗해졌구만요.》

《저야 이제 고작 오십줄에 들어선걸요. 직장장아바이가 이렇게 찾아오실줄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은 내 직장장책임을 벗어놓고 당의 배려로 직장의 교관노릇을 하우다.》

동방혁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소리내여 웃었다.

《연구사선생. 이렇게 내가 아닌밤중에 흥두깨처럼 불시에 나타난게 놀랍지요?》

동방혁은 능청스러운 미소를 짓고 승진구를 건너다보다가 또다시 절절한 웃음을 터치였다.

《놀라울테지요. 실은 내 선생을 만나기는새려 우리공장에 데려갈 작정으로 온 걸음이우다. 그런데 저 경비원령감 말을 들으니 그럴 계제가 못되는것 같구만요. 선생네가 지금 중요한 연구사업의 마감단계에 있다던가... 하여튼 만났으니 됐수다.》

승진구의 눈가에는 마음의 거울처럼 긴장한 잔주름살들이 물결치며 잡혀들었다.

《무슨 일때문인지요?》 .

《한사람의 운명문제라고도 할수 있는 심중한 일 때문이지요.》

《운명문제라구요 ? !》

승진구는 당장 납덩이라도 넘긴것처럼 가슴속이 쓰늘해졌다.

《어서 우리 방으로 올라갑시다.》

2

거뭇거뭇하게 젖은 축축한 다우다직숨옷과 개털 모자를 받아 옷걸이에 걸고 승진구는 문가에 그대

로 우두커니 서있는 동방혁의 팔굽을 잡고 온수관이 실실 소리를 내며 지나간 벽가의 탁상으로 갔다.

《어서 앉으십시오. 한사람의 운명문제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 문제에 어떻게 련관되어있는지 몹시 궁금해지는군요.》

동방혁은 마디들이 몽틀몽틀한 목직한 손으로 백설이 없힌듯싶은 하얀 머리더수기를 매만지면서 서글픔이 어린 무거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무 요란하게 말했나보구려. 까놓고 말하면 선생이 15년전에 연구하던 그 ϵ -2절연물때문에 왔지요.

그걸 연구해보겠다고 우리 공장에 새로 온 신임 현장기사가 대담하게 달라붙었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아 지금 고충을 겪고있수다. 선생이 그때 《화학공업》잡지에 발표한 ϵ -2절연물연구전망에 대한 학술논문에서 충격을 받고 달라붙었는데 시작하지 꼭 석달이 지났는데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아 그녀석이 영 안타까와합니다. 옆에서 방조를 주고 싶지만 우리라는게 원심뿐이지... 그래 생각다못해 버르고버르던차에 어제 이고장 화학공장에 물동을 실으러 오는 자동차가 있어 그 편으로 왔수다.》

《그러니 저한테서 ϵ -2절연물연구에 대한 방조를 기대하시는거겠지요?》

승진구는 공연한 물음을 던진 자신을 불쾌하게 의식하고 얼굴을 붉혔다.

(세상에 이런 맹랑한 일도 있는가.)

그는 동방혁의 얼굴을 그대로 마주보기가 민망스러워 눈길을 떨구었다.

자신의 연구령역에서 이제 아득히 멀어져버렸고 꿈결에서조차 잊어버리려 애써온 그 옛일, 《원승

이도 나무에서 떨어질수 있다》고 허거픈 웃음으로 자신을 위안하던 그 《영원히 지나간 일》, 순간에야 그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에 대한 연구사업의 패배는 가슴을 에이는듯한 정신적인 상처로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로인의 출현은 자신의 운명에 끝없이 불우한 사태를 빚어낼것 같은 심신의 고달픔이 들었고 그로 하여 응할수 없는 자신의 처사에 부질없이 화가 동하기도 했다. 전기기구공장에서 1년반기간의 ϵ -2절연물에 대한 연구사업, 여지없는 실패와 심중의 형용기 어려운 고뇌 그리고 학계의 비난... 그것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15년전의 일이었던만 이순간 왜 이다지도 현실적인 그 무엇으로 절박하게 되살아나 가슴을 허벼대는것인가, 생각하기조차 피로운 그 아픈 상처를 도져내며 15년전의 환영처럼 뜻밖에도 저 동방혁이 찾아와서 ϵ -2절연물연구에 대한 방조를 달라고 하니 과연 어찌면 종단말인가.

그는 갑자기 온몸의 피가 얼굴로 몽켜드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냥 동방혁이와 마주앉을 용기를 잃은 그는 침통한 표정을 애써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가로 다가갔다.

어쩐지 이 아침은 너무나도 늦게 밝아오는것 같다. 사선으로 훑날리는 진눈까비때문인지 하늘은 마치 수은이라도 풀어놓은것처럼 희뿌연게 몹시 을씨년스럽다.

청사뒤편의 소로길로 소우차가 기우뚱기우뚱 덜경거리며 굴러가고있었다. 물기있는 눈을 철벽철벽 텅기면서 천천히 네굽을 놓는 검정황소의 입가에는 연한 등황색의 털이 덮이었는데 건침이 길다랗게 매달려 송라처럼 흔들거리고 한줌의 흰눈이 이마에 훌가분하게 내려앉아 얼핏 보면 점백이같다. 수레우에는 검정우산을 폭 내려쳐서 희뜩희뜩 진눈까비가 게발린 장화허리만 엿보이는 수레군이 퍼더버리고 앉아 흔들거린다. 담배연기만 풀풀 날리지 않는다면 우산밑의 존재가 과연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려보기 힘들것이다. 수레바퀴의 쇠볼이가 갈그랑거리면서 찰떡같이 풀기있는 눈을 물어뜯어 수레가 지나간 소로길에는 두가닥의 빨간 진흙땅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저렇게 한본새로 천천히 움직여서 대체 언제 어
디까지 간다는건가? ... 승진구는 못내 가슴이 답답
해진다. 하긴 공연한 걱정이다. 저렇게 뜬걸음이지
만 여하튼 목적지에 이를것이다. 굼떠도 황소걸음
이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잡혀들자 저 황소걸음
이 ㄷ-2절연물연구사업에서 15년이나 손을 털고
나왔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준절한 항변을 들이대는
것만 같았다. 짜장 저 황소처럼 굼뜨지만 끝장을 볼
때까지 인내성있게 ㄷ-2절연물연구에 달라붙었다
면 지금 이같이 가슴답답한 순간을 당하지 않을수
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여기에 황소걸음이 무슨 관계가 있단말인
가, 얼토당토한 생각이다.)

승진구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중뿔나게 떠오른 부
질없는 생각을 털어버리길라도 하듯 설레설레 머리
를 저었다. 그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불었다.

생각할수록 15년간 숨겨있던 ㄷ-2절연물연구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밀등으로 새씩
이 돌아나는격이라고 하겠는지. 그러나 그 새씩이
찬바람, 눈바람 속에 옹케 삶의 희열에 넘쳐차라오
르겠는지는 감히 확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털어
ㄷ-2절연물연구의 부활은 승진구의 가슴속깊이에
말끔히 아몰어든듯싶었던 쓰라린 고뇌의 상처를 사
정없이 도려내었다.

ㄷ-2절연물연구에 달라붙은 그 미지의 신임현장
기사가 자신이 발표한 ㄷ-2절연물연구전망에 대한
학술논문에서 충동을 받았다니 어차피 자신의 이
름이 말쑥하게 꺼문어오르게 되었다는것이 여간만
심사를 울적하게 하지 않았다. 그가 실패하든 성공
하든 인젠 자신과 어쩔수없이 련결되었은즉 정말
일이 맹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석달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동안의 고충에
별써 허덕인다니 과연 그한테서 무슨 승산을 기대
하랴. 정녕 이 순간에 그는 《심중팔구는 패배입니
다.》하고 제잡담 로인에게 속시원히 말해주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제가 못해낸 일을 남이 하겠다고 달라붙
었으면 옹당히 고맙게 여겨야 할터인데 감히 밀막
아버린다는것이 점잖지 못한 소행으로 굳이 생각되
면서 애타게 방조를 기대하는 로인에게 선뜻 대답
을 주지 못하는 자신이 민망스럽기만 했다. 그렇다

고 해서 꼭진한 로인의 너그럽고 깨끗한 마음앞에
서 알량한 처세로 자신을 모면할수도 없는 일이다.

승진구는 창가에서 물러나 눈길을 들지 못한채
우울한 낮으로 주저주저 건네었다.

《아바이,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 공
장을 떠나온 때부터 이달까지 ㄷ-2절연물연구에서
손을 뺐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부문의 연구
에 달라붙었지요. 저는 무기화학이 아니라 유기화
학을 전공하고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실입니다.》

《아니 그걸 잊었다고요?》

동방혁은 미감을 찌프려 깊이 주름을 잡으면서 서
침사가 꼬인 헛기침을 낚았다.

《그래도 우린 연구사선생이 ㄷ-2절연물연구에서
인젠 퍼그나 전진이 있었으리라 감히 믿었수다.》

《...?!》

《그렇게도 가슴태우던 일을 막말로 평가칠줄은
몰랐군요. 정말 분하우다.》

《...》

승진구는 할말이 없었다. 숨이 꺾 맥헐듯 가슴만
답답했다.

동방혁에게 아무튼 답변을 주어야 할 급박한 정
황을 피롭게 이어가는 그때에 고맙게도 누군가 밖
에서 푹푹-가락맞게 문을 두드리었다.

《들어오시오.》

승진구는 숨이 홀 나갔다.

거쿨진 몸집에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져보이
는 책임연구사가 방안의 사람들에 대하여 별로 관
심없이 버릇처럼 머리를 까딱하고 《실장동무, 모
두 모였습니다.》 한마디 건네고는 역시 덩덤한 태
도로 돌아서 나갔다. 조회시간이 되었다는 소리다.

《선생님, 어서 가보시유.》

동방혁은 험험한 표정으로 승진구를 건너다보았
다.

《그럼 조회를 하고 인차 돌아오겠으니 그동
안...》

3

조회는 길것이 없었다. 승진구는 실무적인 과업
을 몇가지 주고는 부랴부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솜옷을 입고 손에 개털모자까지 든 동방혁이 창문가에 꺾두룩하게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돌아섰다.

《왜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내 인젠 떠나야 하겠수다. 자동차를 만날 시간이 다 됐으니…》

조용한 어조로 덤덤히 뇌이는 말이었으나 어쩐지 그 말투가 승진구에게는 몹시 푸접스럽게 들리었다.

이마살을 찌프러프리며 팔목시계를 들여다보던 동방혁은 의외에도 놀라운 동작으로 승진구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연구사선생, 어찌하나 그너석을 도와주시우. 도와줄분은 연구사선생밖에 없수다. 그너석이 넘어가면 내 심장이 건딜것 같지 않수다.》

《…?!》

《그게 나와 전쟁때 한전호에서 싸우면서 하루한시에 영웅이 되구 한직장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전우의 자식이 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수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어쨌다는겁니까? 아바이네 직장의 그 차국봉영웅반장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맞겠수다. 그 범갈이 펄펄 뛰던 사람이 그만 전쟁때 입은 상처가 불치의 병으로 도져서…참 독한 사람이였지요. 눈감는 순간까지 공장을 한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으니깐요. 운명하는 순간 그사람은 제 아들녀석의 손을 꼭 부여잡고 <현철아, 내 자릴 인젠 네가 메꿔라.> 하고 말했수다. 짧게 남긴 그 말속에는 실로 많은 뜻이 담겨있지요.

그런데 그 아들녀석이 장하게도 대학을 나와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 기사로 배치받아왔으니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이였겠소. 오자바람으로 ㄷ-2절연물을 연구해서 당에 기쁨을 드리겠다고 결의해나설 때 난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지요.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너석이 울적해서 돌아가는걸 보느라면 가슴이 막 빼개지는것 같수다.》

승진구는 락심천만해서 어깨가 폭 처지는 동방혁의 팔굽을 잡았다.

《그러니 그 영웅반장의 아들이 차현철이군요. 밤대거리를 하는 아버지를 찾아 밥그릇을 들고 오곤하던 소년이 생각납니다.》

그래 분명 생각난다. 옷차림에 단정한 소년단벙 타이차림의 고집스러운 소년의 모습…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의 흐름이 정녕 이다지도 빠른것인가, 하루가 멀다하게 아버지한테 밥그릇을 들고왔다가는 승진구의 연구실에 들려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팔굽에 턱을 고인채 유심히 지켜보곤하던 그 초롱초롱한 눈…

《왜 재미있어보이니?》

어느날 승진구는 소년의 불을 살짝 건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소년은 랑불에 보조개를 지으며 귀엽게 웃었다.

《실상은 고층이 이만저만 아니란다.》

《그래도 재미있을것 같애요.》

《하긴 네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면 재미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게다.》

《…?!》

소년은 승진구의 말뜻을 리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가우뚱했다.

승진구는 한숨을 내불었을뿐 구태여 소년에게 과학연구사업의 고층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차현철은 어린시절에 리해되지 않아 머리를 가우뚱하던 그 고층의 뜻을 톡톡히 체험하는셈인가? 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저 동방혁의 우울해진 얼굴이 애라게 호소하건만 자기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다.

머리는 무거워지고 마음은 그 무엇에 뒤쫓기듯 조급해진다. 온몸에 진땀이 바작바작 소리를 내며 솟아나는것 같다. 아득한 심연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뉘이 갑자기 딱히 깊어 말할수 없는 흥분에 도취되면서 무엇인가 예지 비슷한 생각이 번쩍하고 일었다.

그는 부랴부랴 철궤에 다가가서 철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그리고 빼곡이 덧쌓인 연구자료들을 와락와락 허물어버린후 맨밑바닥에서 누렇게 퇴색한 한뭉테기의 자료를 찾아냈다.

《아바이, 제가 당장 무엇인가 차현철한테 시원한 방조를 줄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방조를 줄수 있다면 15년전에 연구하던 이 자료들뿐입니다.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군요. 너무나도 고충이 컸던것이기에 부질없는줄 알면서도 공연한 미련이 작용해서 그냥두었었습니다.》

《아니, 이거야...》

동방혁은 눈이 둥그래지면서 자료봉테기를 선풍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년반을 바쳐 얻어낸 귀중한 자료를 그냥 내준 단말입니까?》

승진구는 밝게 웃으면서 동방혁의 손에 선선히 자료봉테기를 안겨주었다.

《15년동안 물어있던 E-2절연물연구가 차현철 동무에 의해서 부활되고 끝내 성공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 이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것 같수다. 여하튼 고맙군요. 그런데 한가지 부탁이 있수다.

우리 그녀석이 힘을 가다듬을수 있게 편지로라도 한번 고무해주시우다.》

《예, 그거야 힘든 일이 아니지요.》

《그럼 부탁하겠수다.》

승진구는 동방혁을 뺨스정류소에까지 내려워주었다. 진눈까비는 웬일인지 눈이 시게 밝아진 하늘에서 여전히 푸실푸실 날리고있었다. 뺨스가 울동안 두사람은 담배를 태우면서 15년전 전기기구공장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두서없이 나누었다.

두번째 담배를 붙여물무렵 눈발새로 철편을 철커덕거리며 뺨스가 달려왔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승진구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방혁에게 보다 의의있고 귀중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한 조급한 생각이 들었다.

《에구 늦을라. 벌써 오는구나.》

저쪽길 건너편으로 할머니와 애기를 업은 젊은 여인이 꽃무늬보자기에 싼 짐을 맛들고 다우쳐오고 있었다.

《애, 애, 잠깐만.》

홀렁한 밤색자켓트에 에워싸인 정정한 할머니는 큰일이나 난것처럼 소리소리지르며 애기어머니를

멈춰세우더니 등에 업힌 애기의 볼에 입을 쪽 맞추고는 뒤로 제껴놓았던 포단을 폭 뒤집어썩었다.

《넌 명심해서 몸을 덥게 굴구 애한테 젖을 제때에 먹이구.》

《어머니 됐어요. 이젠 몇번이나...》

《백번이구 천번이구 들어두는게 나쁘잖아...》

《어머니두 참.》

녀인은 곱게 눈을 할기죽 빨며 승진구네쪽을 가리켰다.

《그래, 그래.》

할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뺨스가 다달았다.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내렸다. 그리고 애기를 업은 젊은 여인, 그뒤로 할머니가 올려미는 보따리의 밑둥을 받들어올리며 동방혁이 올랐다.

《그럼 부탁하우다.》

《예?! ... 예 편지말이지요? 오늘 당장 쓰지요. 그런데...》

자동뺨스문이 절걱 닫기였다. 좁은 문유리창으로 동방혁의 웃음뎌 철빛얼굴이 끄덕이며 조용히 흘러갔다.

승진구는 저 환한 얼굴에 무엇인가 걱정이 실릴 말을 하려다가 문이 닫기는바람에 중동무이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나 하는 일종의 안도감에 숨이 나갔다. 실상 무슨 말을 하려 했던지도 딱히 생각되지 않았다. 여하튼 갑자기 E-2절연물연구에 대한 걱정이 새삼스레 들면서 강가에 아이를 내보내는격의 공포비슷한 의식이 갈마든것만은 틀림없었다.

승진구는 꿈무니에서 흰 김이 회오리치는 뺨스를 따라 몇걸음 다우쳐가며 손을 흔들었다.

《애, 애, 잊지 말구 인차 편지해라.》

아까 그 수다스럽던 할머니도 허둥지둥 뺨스를 따라가다가 멈춰서서는 큰일이나 난것처럼 손을 뻗어 내저으며 소리쳤다. 앞으로 돌려안은 애기의 손을 잡고 까딱까딱 흔드는 그 젊은 여인의 모습이 뺨스의 뒤창으로 몽롱하게 멀어져갔다. ,

《임자도 손님바래러 나왔됐구만.》

《예,... 딸인게지요?》

《우리 막내딸일세. 이번 평양산원에 올라가 저걸 하나 떼왔는데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제 예비애비를 꼭 먹고 떨어졌다니깐요.》

《그거야 그럴테지요. 그런데 딸네 집이 퍼그나 멀리에 있는가보군요.》

《아니 한 정류소만 더가서 내려 조금 가면 된다 우.》

승진구는 웃음이 나가는걸 겨우 참아냈다. 좀전까지만 하여도 수천리나 떨어져사는 딸을 바라는 다심한 어머니로 여겼던것이다.

《임잔 어디로 가나?》

《전 여기서 일합니다.》

《그러니 과학자선생일세. 육보네. 분명 임자도 보나마나 숨은 영웅일테지. 과학자들이 지금 큰일을 하니깐, 그래 꼭 큰일을 치게나. 세상이 휘딱 놀라게말이지.》

수다스러운 할머니의 소박한 고무였지만 어쩐지 승진구는 그 말이 몹시 귀중하게 가슴에 새겨들었다.

빠스는 어느덧 저 멀리 고층주택의 굽인돌이길로 쫓무니를 사리고있었다. 문득 승진구는 눈물겨운 추억의 한순간이 생동하게 떠올라 가슴이 설레었다.

(참 신통한 일이다. 15년전엔 내가 저 동방혁아바이의 바래움을 받았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그를 배웅하고있으니...)

ㄷ-2절연물연구에 실패의 막을 내리고 전기기구공장을 떠나던 그 밤, 역전 대합실로 들어서는데 누군가 등에 진 배낭밑등을 들어올리며 팔굽을 짚었다. 돌파해보니 어설픈 미소를 띠고 마주보는 사람은 의외에도 동방혁직장장이였다.

《짐을 이리 주시우다. 표는 이미 떼놓았소. 그래 아주 가버린다는거나요?》

《직장장아바이가 나오셨군요.》

《영 떠나버린다는겁니까?》

《유감스럽지만 다른 말을 할수 없군요.》

동방혁은 잔뜩 얼굴을 찌프르프리고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용서하시우. 우리가 잘 도와주지 못했소.》

《공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엄청난 일에 걸려들었지요.》

《아니 그게 어찌 안되겠소만, 연구사선생의 피로운 걸음을 바래워주는 이 마음도 모질게 아픕니다.

어찌하나 꼭 성공하시우. 이 세상 안될 일이 어디 있겠나요. 눈에는 아름답지만 손에는 그까짓것 한다구 손털지말구 계속 하느라면 끝장을 볼 때가 있을거우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승진구는 더 말할 용기를 잃고 깊은 한숨을 내불었다.

두사람은 보슬비가 쓸쓸하게 훑날리는 역구내에서 헤어졌다. 열차가 멀리 산굽이로 돌아설 때까지도 동방혁은 외등불빛에 긴 그림자를 늘이고 한자리에 그린듯이 서있었다.

승진구는 어쩐지 동방혁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목은 상처보따리를 안겨보낸 자신의 처사가 저으기 마뜩잖게 여겨지면서 마음이 여간만 산란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충이 다닥다닥 누버진 그 자료가 새로운 립장으로 연구를 시작한 차현철에게서 어찌먼 우연히 (그는 이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유용하게 리용될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남모르는 내 마음속의 아픈 상처가 씻은듯 가셔질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 승진구는 너무나도 부질없는 미련에 옴한 자신이 서글퍼져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

갈피를 종잡을수 없게 뒤죽박죽된 상념에 사로잡혀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뒤통수의 머리가 거의 어깨에 닿을듯말듯한 웬 신식차림새의 낯선 젊은이가 값나가는 사진기를 손에 들고 가볍게 인사를 했다.

《실장동집니까? ...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당장 신문에 게재될 승진구내실에 대한 투쟁기사에 반쳐질 사진을 찍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래서 오셨단말이지요. 그런데 사진을 꼭 찍어야 합니까?》

승진구는 심상하게 물었다.

《예?!》

사진기자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어디에 가나 동등 떠받들려다니었는데 세상에 저희들을 사진찍어 신문에 내주겠다는데도 시들히 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표정이 로골적으로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의견대로 안찍을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편집계획상의 의무를 수행하자니 찍긴 찍어야 할것 같군요.》

사진기자의 어조는 저으기 불만스럽게 울리었다. 《그렇다면 찍어야지요.》

그날저녁 집에 돌아온 승진구는 동방혁의 부탁대로 차현철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나롭지 않은 연구에 진입했지만 시작만바하고는 어찌하나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서 가슴이 여간만 들레이지 않았다. 드물지 않는 신념에 넘쳐 끝까지 성공의 열매를 맺으라. 과학에는 순탄한 길이 없는만큼 E-2절연물연구과정에 쓰거운 고뇌를 한두번 맛보지 않을것이지만 성공의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환희롭고 행복해서 숨이 막힐지경이 될것이다. 이것은 매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느끼는 과학자의 고유한 심중의 느낌일것이다. ...글줄마다에는 저스스로도 놀라울만치 열렬한 고무와 격려의 피가 충만되어 끓어넘치었다.

하지만 동방혁을 통하여 보낸 자신의 묵은 연구자료들이 과연 참고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놓고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글줄이 풀려나가지 않았다.

그는 만년필머리를 턱으로 꼭 누른채 깊은 상념에 잠겨들었다. ... 과연 차현철이가 성공할수 있겠는가? 3개월간의 고충으로 벌써 맥을 놓기 시작하는 동무더러 부디 성공하라고 부추기는것이 부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또 언제인가는 그도 내 전철을 되밟아 패배의 세레속에 기가 떨어져버리지나 않을가?... 순간 착잡하게 잉커드는 상념들을 확증이나 시키듯 언제인가 누구한테서 들은 어느 한 나라 천문학자가문의 일화가 문득 떠올랐다.

...70고령의 천문학자는 운명하는 날까지 끝내져 하늘에 자기 나라의 이름을 가진 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평생을 허송한 서글픔때문인지 깊이 패여든 그의 두눈굽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주루루 불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잇을 적시었다. 그는

힘이 진하여 말할념을 못하고 자기 손을 꼭 부여잡은 아들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그냥 눈물만 흘렸다. 절절한 심중의 그 무엇을 강렬히 호소하는 눈물의 뜻을 리해한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의 머리에 또다시 서리가 었했다. 허나 그도 새로운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또 아버지처럼 허송세월할가봐 걱정하는 친지들에게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난 이 일을 내 아들에게 또 말기고 가겠네. 대를 두고 하느라면 언젠가는 꼭 내 나라의 이름이 새겨진 새 별이 발견될것세.》

그도 아마 지금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의 아들이 또 지금 백발이 되어 천체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지는 알수 없다. 과학탐구에는 고충이 얼마나 큰것인가에 대해서 그저 누가 지어내여 한 말일지도 모를 그 이야기가 어찌면 이 순간에는 꼭 현실적인것으로 생각되는것일가?

(15년전에 내가 못한 일을 차현철이 또 못한다면 그 불우한 운명의 천문학자가문과 무엇이 다른단 말인가?)

승진구는 모름지기 한 인간을 자신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패배의 쓴 고배를 맛보기전에 일찌감치 손을 털라 하기에는 수백리길을 달려와 방조를 요하던 동방혁의 부탁이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자신의 마음 역시 그 묵은 미지수가 행여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고보니 그만두라고 감히 권고하기도 아쉬웠다.

괴곤이 물려들어 만년필을 전채 팔굽에 머리를 올려놓았던 승진구는 숨처럼 몸이 나른해지면서 깊은 잠에 끌려들어버렸다. 별세계를 꿰지르며 날아다니는 괴이한 꿈을 꾸다가 번쩍 눈을 뜨니 창문에 새벽빛이 시퍼렇게 드리웠다.

동녘 저 멀리 지평선우에는 재빛구름의 한모퉁이가 노을빛을 머금고 해불처럼 불타고있었다. 어찌보면 붉은기폭이 중천에 펼쳐진듯싶다. 그리로부터 당장 《애국가》의 힘찬 선율이 장엄하게 터져나올것 같았다.

승진구는 못된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공연히 마음이 황황해져서 잉크가 시퍼렇게 핀 편지지를 줌안에 넣어 꼬깃꼬깃 꾸겨버리었다.

5

정녕 그날은 레사롭지 않았다. 승진구는 온종일 마음이 똥똥 뚫고 지어 얼떨떨했다. 예견한바대로 간고한 시련의 세월이 흘러 승진구네실의 연구사업이 드디어 성공의 종착점에 이른것이였다.

열광적인 충동으로 들뜬 마음을 다잡지 못하며 집에 들어서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일학년생 막내딸애가 반짝 웃으며 책상우에서 두터운 편지봉투를 들었다.

《아버지, 편지!》

《어디서 왔나?》

막내딸은 한결음 뒤져참하며 편지봉투를 등뒤로 감추었다.

《아버지, 맞춰봐.》

승진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기웃기웃하며 생각나는대로 주어섬겼다.

《삼촌?》

《아니.》

막내딸은 해죽해죽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고모?》

《아니.》

《이모?》

《아니, 친척은 안야.》

《모르겠는걸.》

《해해, 아버지인 요거야, -막내딸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아마 살로크 홈스라면 맞췄을걸. 자!》

딸애는 아쉬움이 비낀 얼굴로 편지봉투를 시룻이 내밀었다.

편지는 의외에도 전기기구공장의 그 동방척으로부터 부쳐온 편지였다. 승진구는 야릇한 흥분에 도취되어 서둘러 피봉을 터치고 속지를 꺼내들었다. 넘적넘적한 누운 글씨가 다섯장의 편지지 량면에 가득 차있었다.

수더분한 인사말로부터 시작해서 승진구가 준 ㄷ-2절연물연구자료들을 가지고 때마침 약속된 지점에 도착한 자동차를 잡아타고 무사히 떠나갔다는 소식... 그러나 다음의 글줄을 더듬어나가던 승진

구는 갑자기 그 어떤 공포비슷한 긴장감에 휩싸이면서 온몸이 줄어드는것 같았다.

《...연구사선생, 전혀 예견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연구사선생의 그 연구자료들을 보구나서 한 5년세월을 앞당긴셈이라고 무등 기뻐는 하던 그녀석이 손맥을 놓고말았으니...

실은 그녀석이 ㄷ-2절연물연구에서 겁을 먹기 시작한것은 일찍 연구사선생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였수다. 인젠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지요. 연구사선생과 한대학동창인 우리 공장 공업연구소의 공택명부소장은 차현철이 ㄷ-2절연물을 연구해보겠다는 결심을 내비쳤을 때 처음부터 두손을 내저었수다. 한층한층 높은곳에 오르라는 그 어떤 좌우명같은 격언까지 써가면서 말이지요... 더우기 영웅아버지의 자리를 당당히 메워야 할 그 아들이 처음부터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오르려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면 어찌라하는 솔직한 걱정, 그것이 차현철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그녀석은 연구를 계속했지요.

차현철이 실패를 거듭하자 공택명부소장은 화가 폭두까지 치밀어 지금 화학계의 중견으로 권위가 당당한 승진구준박사도 15년전에 1년반이나 연구하다가 허송세월한걸 내가 감히 하겠다는게 어리석지 않느냐고 말그대로 야단을 쳤수다. 그래도 차현철 그녀석은 제법 배짱을 쓰면서 그 누가 못했다고나도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코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악스럽게 달라붙던 녀석이 연구사선생의 연구자료를 보더니 왜서 고민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마음이 여간만 무겁지 않습니다. 각별한 전우의 아들이 이번 실험에서 신심을 잃은데 대한 걱정만이 아니지요. 다시말해서 이번 일이 패하는 때에 (이건 내가 너무 자기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소만) 그가 영영 소심한 인간으로 되어버려 장차 아무 일도 치지 못할것 같다는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천리길도 한결음으로 시작된다고 첫걸음부터 된락격을 받은 차현철이 영영 꺾물쭈한 인간이 되어버릴가봐 저저히 걱정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나도 저 공택명부소장이 한사코 반대하는 마음이 리해될 때가 있수다. 아예 성공 못

할바에는 당초에 없었던듯이 그만두는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약한 마음이 들어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럴수 없는게 바로 이 량심때문이지요. 펜을 들었으나... 연구사선생, 과연 그너석을 어떻게 도와야 좋을지 모르겠수다...》

《아버지, 신문 봐?》

갑자기 편지지우에 막내딸애가 신문지를 훔 었어 놓았다.

승진구는 깊이깊은 심연속에서 솟아오르는듯한 기분이였다.

《이거 아버지지?》

딸애는 엉겁결에 신문을 짚은 승진구의 두팔사이로 술많은 새까만 머리를 솟구치며 양장한 손으로 4면전부를 차지한 실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사중심의 사진을 가리켰다.

《아버진 뭐 좋아 웃나?》

실의 연구사들과 연구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장면에서 사진기자가 포착한것은 승진구가 만시름을 놓고 웃는 모습이였다. 이 순간 승진구는 그 웃는 자신의 얼굴이 몹시 역겨웠다. 사진찍는걸 썩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되어서 자신이 감히 구김살 하나없이 환하게 웃고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정녕 뭐가 좋아 웃는것인가? ...그는 소스라쳐 놀라며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딸애에게 내주고 동방혁의 편지를 다시 읽어내려갔다.

《...연구사선생, 이런때 선생이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 차현철을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둔한 부탁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하나 한번 내려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구는 지그시 두손에 힘을 주어 책상을 누르면서 웅쳐문 입술새로 내뱉듯 중얼거리였다.

《옳다. 내려가자!》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것 같다. 자기의 심중에 들어앉은 복잡한 심뇌를 제때에 풀어헤칠 길을 터워준 동방혁의 편지가 무등 고마왔다.

한시도 지체말자. 지금 내 처신에 따라 한 인간의 평생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 톡톡히 쓴맛을 본 자신이 제때에 한 인간이 불우한 함정에 빠져드는것을 구원해주는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의무며 권리일것이다. 애당초 가망없는 그길에서 물러나게 한다면 차현철 그에게 후환이 없을것이다. 과연 그 전망을 략관할수 없는 영원한 미지수에 허송세월할수 있다는 그것만이 아닌 뼈저리고 쓰라린 고통으로 하여 평생에 그들을 안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은 그 길밖에 없지 않은가.

정녕 나자신이 맞본 고통이란 얼마나 말못할 뼈저린 서글픔으로 엮어진것이었던가... ㄷ-2절연물 연구의 실패로 하여 그는 너무나도 번뇌가 큰 고통을 당하던 나머지 아예 과학연구사업에서 물러설 끔찍한 생각까지 했었다. 뭘 새로운 연구과제를 받아안으면 겁부터 앞섰다. 그리고는 여불없이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몇년을 허송세월했는지 모른다. 지어는 장차 자신이 전혀 큰일을 못칠것 같은 예감으로 하여 몹시 슬퍼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무기화학으로부터 유기화학으로 대담하게 전과해보라는 누군가의 따뜻한 조언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날이때까지 한본새로 못난이 처럼 눈치나 보며 살아가고있을지 모른다. 세월의 흐름속에 마음의 괴로움이 차차로 안개발처럼 엮어져가고 당조직과 실의 사심없고 따뜻한 방조속에 하나하나의 연구사업을 성공해가면서 이러구러 화학계의 중견으로 성장했지만 지금도 가끔 ㄷ-2절연물을 생각하면 미묘한 전율이 안겨들면서 손맥이 풀리였다.

이처럼 깨름할바하고는 내 쪽 언제인가 그 저주로운 미지수를 정복해버리리라고 까닭없는 부아통을 터뜨리며 책상을 탕 치고는 저혼자 실없는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처럼 저자신은 애답답한 미련속에 선뜻 해낼 용단을 못가지면서도 연구사업의 출발선에 나선 차현철이더러 그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달려가라고 등을 내밀려고 한 자신이 정녕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했는가. 차현철이 지금 자신의 연구자료에서 뭔가 느끼는바가 있어 주저하고있으리라... 차라리 이런 기회에 그만두도록 하는것이 현명한 방도가 아닌가!...

이튿날 승진구는 연구소 소장을 만나 자기가 동방혁이네 공장에 가야 할 일을 토론했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이구만. 어서 가서 도와주시오.》

소장은 저으기 기뻐하면서 무조건적인 동감을 표했다. 《다음연구과제가 떨어지기전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기일이 걸리더라도 그 ㄷ-2절연물을 성공시킨다면 우리 화학계에 또하나의 거대한 발명이 이룩되는셈이요.》

끝내 승진구는 자기가 내려가려는 목적에 대해서 자초지종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으로 소장방을 나왔다.

그리고 그날저녁차로 떠났다.

6

승진구가 공장에 도착한것은 다음날아침이었다. 조급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우치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흰히 쓸어진 길, 파아란 지붕을 떠인 아늑한 접수실, 전투적구호들이 시대의 숨결로 피를 끓이며 승업하게 안겨오는 전기기구공장 정문을 띄여보는 순간 승진구는 이상하게도 속이 왈각 뒤집히며 눈물이 복받쳤다. 목마르는 향수에 사무쳤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고향땅을 찾은 때의 심정이라 하겠는지, 어쨌든 자신과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사연으로 깊이 인연지여진 공장을 15년만에 찾아오는 불가사의한 감회가 가슴속에 그들먹히 차오르는 것이었다.

공장은 15년전에 비해서 규모도 커지고 변한것이 많았다. 일군들도 여러명 바뀌었으나 낯익은 당비서며 기술일군들로 하여 그는 친지들속에 찾아온 것처럼 이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녹아들었다. 그들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다.

승진구는 우선 차현철의 실험실부터 찾았다. 뜻밖에도 동방혁이 튕겨나듯 자리에서 일어나 헤덤비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두사람이 인사말도 채 마무리하기전에 뒤문이 활열리더니 누군가 떠들썩하며 들어왔다. 공업실험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는 공택명이었다. 야속한 세월의 《덕》을 입어 놀라웁게도 앞이마가 훌렁 벗어졌으나 15년전 그때처럼 멀끔하고 단정하고 자세가 바른 그의 모습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간부체취가 확연히 풍기였다.

그는 부동부동 살이 오른 조그마한 손으로 승진구의 손을 가볍게 잡아흔들며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진구동무네가 이번에 정말 큰일을 했더구만. 소식을 들었네.》

《고맙네, 동무네 공업연구소에서도 많은 일을 해놓았더구만. 좁전에 기사장동무를 만나 대충 알았지.》

공택명은 살집좋은 벌거우리한 미남의 얼굴에 자못 유감스러운 표정을 짓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네. 명색이 부소장이지 실상 이런저런 치닥거리에 치워 연구사업은 옛말처럼 멀어졌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불시에 내려왔나? 꼭 꿈만 같구만.》

이번에는 승진구쪽에서 딱한 표정을 지었다.

《차현철이라는 신입현장기사를 알고있을테지?》

《알아도 잘 알지... 아, 그러니 그 일때문에 왔구만.》

공택명은 얼굴을 방아질하며 어쩐지 로골적인 험난의 미소를 머금었다.

《저 교관아바이가 얼마전에 동무를 만나고왔다고 했지, 그런데 유감스럽다고 하겠는지 웅당한 결속이라 하겠는지 그 사람이 끝내 넘어갔네.》

《무슨 말인지? !》

승진구는 흠칠 놀랐다.

《놀랄게 없네. 어제저녁으로 그 유명한 연구사업이 막을 내린셈일세.》

《그래서?》

《그래서가 있나. 포기해버렸네. 실은 더 크게 망신하기보담 지금 그렇게 된것이 다행이기도 하지.》

《그렇게 되었구만.》

승진구는 순간 자기가 내려오지 않아도 걱정하던 일이 저절로 풀리었구나 하는 일종의 안도감이 들면서도 꼭 무엇인가 행여 소원하던 일이 어그러지는 때에 당하는 그런 공허감이 안겨들면서 심사가 못내 울적해졌다.

《내 처음부터 보수주의요 신비주의요 별 감투를 다 쓰면서도 못한다고 끈지게 말렸지. 동무에게는 좀 거슬리게 들릴지는 몰라도 언제인가 지금은 학계에서 유명해진 승진구준박사도 만사람앞에 큰 망신을 당하면서 못해낸 일을 네가 감히 하겠냐고 말했으나 어디 들어줘야말이지. 그럼 배짱생겨먹은대로 해보라 했더니 결국 오늘일세.》

공택명은 눈을 푹 부릅뜨고 두터운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그 입술 한끝에 물려진 담배가 재가루를 날리면서 위태롭게 널눰을 했다.

승진구는 이런 그의 모습을 처음으로 띄여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머리속에 불쾌하게 인쇄겨진 15년전의 공택명의 모습 그대로였다.

《15년전에도 동무는 나더러 아직 세계가 범접하지 못한 t-2절연물연구를 그만두라고 권고했지?》

《그랬지.》

공택명은 담배를 맛나게 빨아 연기를 진하게 뿜어대며 한쪽눈을 지긋하게 찌프뜨렸다.

《지금에 와서 그때 일을 돌이켜보는것은 저으기 불쾌한 일이네만 솔직히 말해서 수차에 걸치는 내 권고를 동무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지. 그러다나니 결국은 후회하게 되었거든, 제 동무를 구원해하려는 사람이 본의아니게 오해를 입는 일이 간혹 있지.》

그런데 이도 안나가지고 콩밥먹겠단다고 그 차현철이 또 ㄷ-2절연물을 연구한답시고 달려들때 너무 턱자없어서...》

《여보시오. 그만 빈정대시오.》

갑자기 뒤에서 동방혁이 책상을 당 치며 부르짖었다.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이 비낀 그의 얼굴은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어푸수수해만 보이던 커다란 두 눈에서는 격노의 불꽃이 튀기고 짙은 눈썹이 푸들쩍거리었다.

《아바이, 왜 그러십니까?》

공택명이 뒤돌아앉으며 허겁지겁 웃었다.

《동문 한사람이 고민에 지쳐 쓰러진게 가슴아프지 않소?》

《아바인 또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타발하려는것 같은데 문제는 그 동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았던말입니다.》

《당이 오를걸 기대하면 어찌하나 올라야 하오. 평생을 바친다 해도말이요... 그 정신을 장하게 여겨주고 밀어줄 대신 동문 그저 안될것으로만 생각하거던. 저 연구사선생때에도 동문 한사코 반대만 하더니 오늘은 그걸 감히 자랑거리로 여기기까지 하니 원, 참. 동문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오.》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바인 연구사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럴수 있는데 우리 승진구동무의 15년전의 일반 생각해보시우.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진구동무, 동무가 좀 이야기해주우. 지금 내가 과연 무슨 꼴이 됐소. 왕왕 난 이런 오해때문에 곤경을 겪는다니깐.》

승진구는 귀머거리가 된듯 아무런 반응없이 한자세로 까딱않고있었다. 아니... 그는 공택명이라는 존재자체를 생각할 계제가 못되었다.

그는 여기로 내려온 자신의 립장이 정당한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돌연 깃들면서 저으기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차현철의 연구사업을 당장 중지시킬것을 목적하고 내려온것이 왜서인지 허무맹랑하고 지어 어리석게 여겨지기조차 했다.

《연구사선생이 있는데서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네만 동무의 그런 그릇된 립장이 한 젊은이의 신심을 문질러먹은셈일세. 연구사선생이 못했다고 우리 차현철이도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말일세, 연구사선생이 못했고 우리 차현철이도 못해내면 언제인가 또 그 누군가가 고충을 겪게 될 걸세.》

당을 위해서 한번 마음먹은 일이야 끝장을 보는 것이 이 시대에 숨쉬는 사람의 량심이구 도리가 아니겠나말일세. 하던 일을 켜버리기 시작하면 장차 아무 일도 못치네, 아직도 내 말이 리해 안되나?》

공택명은 지지벌개진 얼굴을 투실한 손바닥으로 뺨-문다질렀다.

《그걸 내가 왜 리해 못하겠습니까. 나도 립장이야 차현철을 걱정해서 그런것이 아닙니까.》

《걱정하는 립장이 톱톡치 않다는거네. 임자말마따나 영웅의 아들이면 호랑이로 키워야지 시라소니로 만들어서야 안되지.》

《저, 그건 그렇지만...》

《동무는 자기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야 하오.》

갑자기 탁상우의 전화가 따르릉거리었다. 송수화기를 든 동방혁이 잔뜩 찡그렸던 얼굴에 레의미소를 띄었다.

《여기 계시오. 바꿔드리지요... 부소장동무, 전화요.》

공택명이 전화를 받았다.

《예,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그는 생각에 묻힌 승진구의 어깨를 톱 쳤다.

《소장동무가 급히 찾는구만. 그럼 저녁에 다시 만나세.》

7

승진구는 묵시하는 사람처럼 실험실의 구석구석을 구슬픈 마음으로 굽어보았다.

《어제 그녀석이 이앞에서 머리를 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수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더니 오늘은 출근조차 하지 않았지요. 사람을 띄워 알아보니 정말 침대에 구겨박혀있더라더군요.》

천만시름이 실린 동방혁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려있었다.

《어찌하나 이번에 꼭 성공을 봤으면 했는데...》

로인의 말소리는 한숨속에 시름겨우게 삼켜졌지만 승진구는 다름아닌 자기때문에 차현철이가 패배했다고 동방혁이 야멸차게 지시하는것 같아 감히 얼굴을 쳐들수 없었다.

아마 이번 걸음이 차현철더러 ㄷ-2절연물연구를 그만두라고 권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동방혁이 당장 주먹을 틀어쥐고 달려들것이다. ...문득 이런 무서운 공포의식이 안겨들어 전율하면서 승진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휘둥거리었다.

《어디 몸이 편치않은게 아니우다?》

동방혁이 놀란 표정으로 승진구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보았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이, 지금 당장 차현철 동무를 만나보고싶군요.》 《왜 그러시우?》

《그 동무를 어서 만나봐야 하겠습니까. 만나서 말좀 해봐야겠습니까.》

승진구는 자신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또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초조한 눈빛으로 동방혁을 바라보았다.

《연구사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동방혁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천진스러운 웃음을 짓고 승진구의 팔을 부여잡았다. 동방혁의 따뜻한 숨결이 승진구의 귀전을 감돈다. 승진구의 얼굴은 저르기 달아올랐다.

차현철네 집에 당도하였을무렵 사위는 시퍼런 어둠에 싸였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차현철은 신경질적이고 창백한 얼굴에서 고집스럽게 번뜩이는 두눈으로 동방혁 그리고 낯선 승진구를 예리하게 갈마보았다.

《인사해라, 승진구연구사선생이다.》

《네? 아니, 어떻게...》

차현철은 어리둥절해서 몸돌바를 몰라했다.

승진구는 그의 어깨를 짚어 침대에 도로 앉히고 자기도 의자를 당기여 마주앉았다.

《고민이 크게로구만.》

차현철은 어설픈 웃음을 짓고 눈길을 떨구었다. 경련이나 일어난듯 푸들쩍거리는 애티나는 랑볼에서 낮익은 보조개가 숨박꼭질을 했다.

《동무가 연구하던 방에 가보았소.》

《엉터리지요?》

차현철은 볼부은 소리로 통명하게 툭 내쏘았다.

《아니, 동무가 고심한 흔적을 력력히 찾아볼수 있었소.》

《공연한 말씀입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연구사선생이 ㄷ-2절연물을 연구하시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소장동지랑 연구사선생이 실패한걸 감히 한다고 반대할적에도 유명한 연구사선생이 못한걸 내가 한번 해보리라 더배짱이 커져서 그냥 내밀어보았지요. 저 동방혁아바이가 계속 그런 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십번 실패끝에 저 아바이가 선생의 그 연구자료를 가져왔을 때 전 자신이 너무나도 주제넘었다는것을 인

정하지 않을수 없었지요. 전 겨우 연구사선생이 실패한 로정의 첫걸음을 걷고있지 않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실패의 전망을 예감하면서 그대로 내밀자니 신심이 없어지더군요.》

승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리석었지요. 공연한 일을 소문만 크게 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망신은 무슨 망신, 신심만 잃지 말라고 내 몇번이나 말했어. 이제 고작 50번실패에 넘어가, 이너석, 평생을 바쳐서라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거야 끝장을 봐야지.》

옆에서 동방혁이 격해서 부르짖고는 헛기침을 짓었다.

《아바이가 원심썩준것만큼 소득을 내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차현철은 울먹울먹해서 말했다.

《그래서 인젠 어찌겠다는거요?》

승진구가 다우쳐물었다.

《어찌겠는가구요? 끝장입니다.》

차현철의 두눈에서는 쭈루룩 눈물이 흘러내렸다.

승진구는 가슴이 찢릿했다. 이 측은한 청년의 모습에서 15년전의 자기를 다시 보는듯싶었다.

가슴이 메여져오는 절통한 비분의 그 어떤 서글픔에 휩싸여 승진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8

하늘은 벌써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별들이 한가득 널려 반짝반짝 미묘한 웃음을 짓는다. 집뒤길로 요란하게 덜커덩거리며 화물차가 달려가고있었다. 창유리가 드르륵 진동했다.

《이너석! 그래 끝장이란 말이 그렇게 쉽사리 터져나와?》

등뒤에서 애가 끓는 동방혁의 목소리가 마디마디 예리한 칼끝처럼 날을 세워 승진구의 가슴속을 허비였다.

《저는 안돼요.》

《이 일을 어쩔담, 연구사선생이 못하구 너두 못하구... 이참, 이 일을 어쩔담.》

《똑똑한 사람 그 누가 후날 어련히 하겠지요.》

《그것두 말이라구 해?》

동방혁의 추상같은 부르짖음에 승진구는 흠칠 몸을 떨었다. 등골로 식은 땀이 쭈루루 줄달음치는것 같았다.

《그래, 저는 못하구 남한테 밀어? 그런 뻔뻔스런 수작질이 어디 있어. 제 힘을 그렇게두 못믿는단말이야.》

《제힘을 잘 아시지 않아요.》

《그게 제자리를 메꿔달라던 아버지의 부탁을 밝은 아들의 대답이나? 네 아버지랑은 지난 전쟁때 너처럼 생각하지 않았댔다.

무명고지방어전에서 수십차례의 전투끝에 살아남은 사람은 네 애비와 나였어. 그러나 우린 이기리라 생각했다. 바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조국이기에 한치의 땅도 목숨보다 귀중했고 원수놈들에게 그대로 내어줄수 없었던말이야. 우리는 그때 우리앞에 나선 그 곤난을 그 누구에게 밀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량심이라고 생각했단말이다. 우리는 끝내 이겼다. 진다고 생각했다라면 여불없이 먹혔을게다. 그랬더라면 내 만일 살아남았어도 량심에 진 죄로 하여 평생 저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게다.

이렇게 된바에는 까놓고 말하자. 네 오늘 당에서 것처럼 바라는 ㄷ-2절연물연구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남에게 미룬다면 네가 무슨 량심으로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볼수 있는가말이다. 바로 그런 주저심에 의해 한개 세대가 자기의 력사앞에 얼굴붉혀야 할것이다.》

《아바이, 그럼 과연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차현철은 절망적으로 부르짖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오열을 터뜨렸다.

그 순간 승진구는 가슴속이 와르르 허물어져내리는듯한 환각에 잠혀들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창턱을 붙들었다.

승진구는 ㄷ-2절연물연구를 15년이나 미지수로 묵여둔채 학계에서 당당한 연구사로 떠받들리워온 자신의 존엄이 신기루처럼 막연한것으로밖에 인정할수 없는것이 그지없이 슬픈 일이였지만 가차없이 가해지는 회오의 채찍밑에 아무런 항변도 없이 선포 량심을 내맡겼다.

언제인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동방혁은 사람의 운명문제때문에 왔다고 했다. 그때 자신은 그 운명문제가 저 차현철에게만 한한것으로 객관의 세계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그 운명문제가 다름아닌 바로 자신의 문제에 귀착된다는것을 놀라웁게 의식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자신이 묵여온 미지수, 그것은 언제 가도 변함없이 자신의것이 아닌가.

승진구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으며 머리를 들었다. 어두운 밤하늘의 한쪽변두리로 별찌가 포물선을 길게 그으며 떨어져내리고있었다. 무엇인가 엄숙하게 제시하는듯싶은 그 별찌가 거것말처럼 사그라져버린 어둠속을 그냥 지켜보느라니 언뜻 대를 이어가면서 조국의 이름이 새겨질 새 별을 찾는다는 어느 한 나라 천문학자가문의 일화가 떠올랐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대를 넘길수 없다.)

승진구는 입술을 옥물며 두손에 지그시 힘을 주어 창턱을 꼭 눌렀다.

그리고는 놀라우리만큼 힘있는 동작으로 돌파섰다.

《차현철동무, 어서 눈물을 거두시오. 비판 말고 어찌하나 ㄷ-2절연물을 발명해내야 하오.》

《네?!》

놀라움으로 하여 커다래진 차현철의 두눈이 승진구를 지켜보다가 맥폴리어 아래로 떨어졌다.

《아닙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젊은이는 머리를 저었다.

(아, 진정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승진구는 싸움싸우듯 차현철의 두어깨를 으스러지게 잡아 일으켜세웠다.

《그러면 안되오. 10년이던 20년이던 하던 일을 끝장내야 하오. 이젠 우리 당에서 우리 세대앞에 내놓은 과업이요. 실상 동무앞에서 이 말을 하는 내가 부끄럽소만...》

승진구는 젊은이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우고 머리를 수긋한채 방안을 천천히 거니였다.

《15년 묵여둔 미지수, 그것은 조국을 속여산 영원히 씻을수 없는 내 최악이요. 조국앞에 량심을 더럽히면서도 감히 머리를 들고 다닌 자신이 정녕 혐오스럽소.》

차현철동무, 나를 욕하시오. 내 한사람의 잘못 때문에 오늘은 동무가 또다시 고뇌의 피로움을 당하고있소.

나는 자기 연구과제에 대한 포기가 사회와 후대앞에 남긴 최악이라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소. 오늘 이를 깨달은이상 난 동무가 쓰러지는것을 절대로 용서할수 없소. 내가 쓰러지고 동무가 쓰러지면 또 후날 그 누군가가 우리의 불우한 전철을 되밟을수 있소.》

그리고 승진구는 동방혁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내 사실 오늘 부랴부랴 아바이네 공장에 찾아온 것은 ㄷ-2절연물연구를 그만두라고 권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사람이 제 자신이 겪은 뼈저린 고충의 길로 빠져드는것을 구원해주는 인디아주의자로 어리석게 자처하면서말이지요.

그리고 이자리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저 차현철동무에게 그저 값싼 고무의 말이나 해줄것으로 예상하고 왔지요. 내 솔직히 말해서 오늘까지 수많은 연구성과로 ㄷ-2절연물연구의 실패를 보상해왔다고 자신을 위안해왔지만 실상은 여전히 묵은 미지수때문에 속이 편안치는 않았습니니다. 내 어찌하나 이번에 저 차현철동무와 함께 아바이와 전우들이 꼭 이긴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해낸것처럼 ㄷ~2절연물의 비밀을 파헤쳐내고 야말겠습니다.》

동방혁은 어리둥절해서 승진구를 찬찬히 쳐다보다가 그의 두손을 와락 꼬당겨잡아 세차게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연구사선생! 그 누구나 자신의 과업을 끝까지 해내는 립장에 선다면 우리 나라는 그만큼 부강해질거웁니다.》

9

승진구가 자기네 분원 연구소에 정식으로 ㄷ-2절연물연구에 다시 달라붙어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피력한지도 벌써 반년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연구사업에서 여러 측면으로 전진도 있었지만 아직 성공의 전망은 략관적이 되지 못했다.

수십차례의 실패가 거듭되자 학계의 일부 친지들은 공연히 묵은 허물을 들춰내서 헛수고를 한다고 진심어린 충고도 하였고 또 간혹 되지도 않을일에 현혹되었다가 15년전보다 더 큰 략패를 보게된다고 로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누구누구니 해도 걱정이 각별히 큰 사람은 공택명이였다. 실험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그는 마치 자기가 당하는 일처럼 못내 분함을 이기지 못해하면서 승진구의 팔목을 부여잡고 간절히 애원했다.

《인제라도 그만두게. 이 무슨 창된가. 사서 고생이란 말이 바로 동무를 두고 하는 말일세. 솔직히 말해서 공연히 고충을 겪는 동무를 옆에서 차마 눈 뜨고 볼수 없구만.》

벗의 진심에 넘친 권고에 가슴이 심란해지면서 그만둘가고 동요도 여러번 했지만 연구실에 하냥 붙어살면서 성공의 그날을 애타게 기원하며 원심을 써주는 동방혁을 보느라면 제 약해지는 마음에 대들보같은것이 다시 굳세게 일어서곤하였다.

...

공장에 내려와 꼭 일곱달이 지난 어느 레사로운 날에 승진구네들은 것처럼 애를 끓이던 ㄷ-2절연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발견이 실은 15년전에 1년반동안 고충을 겪으며 도달한 결음으로 불과 한걸음도 차이가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실망케 했던 일이 분하기도 하고 놀라움기도 하여 승진구는 차현철이와 동방혁을 와락 그러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이 떠나가게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학계는 우리 나라 원료에 의한 새로운 절연물인 ㄷ-2를 끝끝내 발명해낸 승진구네들을 열렬히 축하했다. 친지들과 학계의 명망높은 인물들이 그들을 찾아와 ㄷ-2절연물의 발명을 기뻐해주면서 이것은 박사학위학직의 당당한 기초로 된다는것을 승진구에게 숨김없이 귀띔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일군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당장 발명권수속을 하도록 요구했다.

어느날 나이에 비해 퍼그나 속성해보이면서도 얼굴이 이쁘게 생긴 화학실험실의 처녀연구사가 깨끗하게 필사된 발명권수속문건을 한번 봐달라면서 승진구에게 두고 물러갔다. 처녀연구사의 얼굴에 활짝 피였던 밝은 웃음처럼 말쑥하게 정리된 문건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 보고나서 승진구는 두명의 발명자이름이 씌여진 란간에서 앞에 놓인 자기 이름 석자를 스스럼없이 지우개로 썉썉 지워버렸다.

옆에서 덤덤히 그 모양을 지켜보던 동방혁이 펄쩍 뛰었다.

《아니 왜 그러시우?》

승진구는 눈가에 태연자약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제이름이 잘못 올랐더군요.》

건너편의 책상에서 전화로 누구에게 사업지시를 주던 공택명이 눈살을 찌프프리며 부르짖었다.

《그건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인가? 이처럼 큰 발견이 동무의 평생에 과연 몇번이나 있을것 같은가. 실험실적발명이 아니라 직접 공업화의 실현을 전제로 한 이런 큰 발명은 박사학위학직으로도 넘쳐나는 것일세.》

《물론 큰 발명이지.》

승진구는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지만 나는 15년동안 량심을 속여 묵여온 연구과제를 끝내 실행한것만으로도 만족하네. 이건 진심일세.》

나는 자신의 량심을 못내 깨름하게 파먹던 묵은 상처를 가실수 있게 ㄷ-2절연물연구를 부활시킨 차현철동무, 더우기는 우리 두사람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위해 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남모르게 애를 태워오신 동방혁아바이한테 무엇으로 감사를 표시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공장을 떠나는 날밤 역에는 세사람이 승진구를 배웅해주려고 나왔었다. 차현철, 동방혁, 공택명이였다.

언제인가처럼 동방혁이 이미 사놓은 차표를 승진구에게 내주었다. 하지만 작별의 이 순간이 패배의 크나큰 시름에 겨워 떠나가던 뼈저린 추억의 그 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우리 현철의 첫걸음을 힘있게 떼여주느라고 이번엔 연구사선생이 정말 수고가 컸수다.》

동방혁이 목이 메어하며 건네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승진구는 머리를 저으며 동방혁의 손을 잡았다.

《아바이의 덕분에 난 목은 상처를 아물कु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허허 그것참 명답이우다. 실은 나 자신도 그제 성공한 다음부터는 발편잠을 잔다오.》

동방혁은 소리없는 웃음을 눈가에 띠었다.

《내 평생에 당원증을 메구 이날이때까지 꼭 한가지 분공을 수행 못했지요. 연구사선생이 15년전에 우리 직장에서 연구사업을 할 때 난 당세포조직으로부터 선생의 연구사업을 도와줄데 대한 분공을 받았지오다. 그러나 선생이 그제 성공 못하고 떠나가자 난 그날부터 15년간이나 당생활에 오점을 가진 당원이 되고말았지요.》

《아니, 그거야 아바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승진구는 갑자기 머리가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면서 가슴이 답답해났다.

《그제 어찌하여 연구사 한사람의 책임이겠소.직장에 온 연구사가 어찌하나 성공을 보고 떠나도록 잘 방조를 못주었으니 내 책임이 아닐수 없지요. 이러구러 말 못할 괴로움속에 15년세월이 흘러 저 현철이가 그걸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니 내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내 당세포조직에 찾아가서 스스로 또다시 현철이의 연구사업을 도와줄 분공을 받았수다.》

아참, 난 정말 요지음 E-2절연물이 발명된 다음부터 늘 마음이 명절날처럼 즐겁수다. 내가 마치 큰 일이나 한것처럼말이지요. 연구사선생과 현철이 덕분에 내 이젠 인생을 총화할 때 당원의 량심을 놓고 얼굴 붉히지 않게 됐단말일세.》

말끝을 흐리는 동방혁의 두눈구석에 뜨거운것이 고여 번쩍이였다.

승진구도 그 어떤 크나큰 감동이 북받치면서 목이 조여들고 가슴이 벅차지였다. 자신 한사람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한사람의 참된 당원의

량심에 남모르는 미지수를 남겼었음을 너무나도 때늦게 알게 되는 자신이 정녕 죄스러웠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동방혁앞에 그대로 넘적 없드려 용서를 빌고싶은 마음이었다.

《진구동무.》

공택명이 자못 얼굴이 상기되어 승진구의 어깨를 짚었다.

《실로 이번 동무의 연구사업은 새로운 진리를 체득하는 의의있는 기회로 내 가슴에 뜨겁게 새겨졌네.》

《또 그말인가?》

승진구는 어제 공택명의 집에서 들던 그의 진심의 반성이 다시 되풀이되는듯싶어 밀막아버릴 심상이었는데 흥분한 벼를 도저히 진정시킬수 없었다.

《웁은 말일세. 미지수를 남기고 산다는건 나라앞에 큰 죄악이지.》

승진구는 벼의 실박한 어깨를 짚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언제인가 저 교관아바이는 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셨댔네. 눈에는 아름차지만 손에는 그까짓것 한다구 손털지 말구 계속 하느라면 끝장을 볼때가 있다고말일세.》

기적소리가슴가쁘게 울리고 렬차원들의 호각소리가 밤정적을 흔들었다. 시공간은 갑자기 다급한 그 무엇으로 짙 차버리는듯싶었다. 역구내바닥이 가벼운 진동을 일으키더니 이윽해서는 렬차가 덜커덩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럼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승진구는 승강기발판에 올라서서 손을 흔들었다. 차현철이와 공택명도 아쉬운 눈빛으로 차를 따라오며 손짓한다.

순간 동방혁이 큰 걸음으로 따라나오며 부르짖었다.

《뭐라구요?》

승진구는 귀전에 손을 대고 다급히 물었다.

동방혁은 손을 흔들며 무엇이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었으나 속력을 놓기 시작한 차바퀴소리, 바람소리때문에 도무지 가려들을수 없었다.

(그가 뭐라고 말할가? 아, 분명...)

순간 그의 눈앞엔 언젠가 무심히 띄여본 딸을 보내던 어머니의 다심한 모습에 떠올랐다.

승진구는 그 어떤 표현키 어려운 격렬한 충동에 목이 콕 잠겨져 마음속으로 열렬히 부르짖었다.

(그는 분명 나더러 나라앞에 미지수를 남기지말라고 재삼 부탁하였을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것때문에 인생을 총화하는 마당에서 부끄러움이 없게말이지...)

칠보산

홍기풍

칠보산 여기에선...

하늘길을 날아가던 흰구름도
봉우리마다에 내려앉네
명산중에 명산 이 아름다움 아니 보곤 갈수 없어

해 뜨며 떠난 길 해진 뒤 바라보니
가야 할 길 아득한데 내 발걸음 못떼겠네
산경치에 넋을 잃고 맑은 물에 눈을 흘려

바다에서 불어오던 바람도
깊은 골안을 감돌며 머무네
꽃향기 숲향기 산정기도 담뱃 신키 가고저

걸으면 춤이 되고 벗어나면 노래러니
한여름철 긴긴 하루도 순간인듯
여기선 흐르는 세월도 벗어나버린듯

《초가마을》

높은 산
깎아지른 벼랑우에
웅기종기 《초가마을》
《바위마을》 둘러서있네

가난에 조들리고
설움에 울던 그 세월
초가삼간 소원이던
이 나라 인민의 그 마음

풀길 없는 그 마음
이룰수 없던 그 소망
무정한 비바람도 안타까와

여기 벼랑바위에
《초가마을》 새겨놓았으니

아, 내 나라 어디 가나
추녀높은 기와지붕아래
눈부신 창문들이 웃고있건만
아직 너만은 초가이영 없었구나

고생 많던 그 세월
초가삼간 그 꿈을
못이루고 떠나간 사람들
오늘도 부디 잊지 말라고

날씨도 쾌청한데

메부리에 걸렸던 구름도 걷히고
파아란 하늘에
해빛도 창창한데

다소곳이 머리숙인 《처녀바위》
홀로 비웃을 쓰고
그 무슨 상념에 잠겨
그 뉘를 기다려 오랜 세월 서있느냐

돛배 타고 남해가로 고기잡이 떠난 님
모진 세월 풍랑속에 돛대 잃고 향방없어
혹시나 이제라도 오지나 않을가
오랜 세월 기다려 서있는것 아니냐

수난의 그 세월
무겁게 드리웠던 검은구름 가져지고
모진 눈비 이제는 그쳤는데
비웃을 아니 벗고 그대로 서있음은
좋은 세월 행복한 산천에
은혜로운 해빛 함뱃 받으며
이 좋은 등산길도 걸을수 있으면만

처녀야!
너 그날의 비웃 아니 벗고있음은
정든 님 떠났던 그날의 남해가에서
오늘도 수난의 눈비가 내리고있어
남녘을 잊지 않는 그 마음 아닌가

은포옥담으로 가는 길

구름우에 솟았느냐
벼랑뒤에 숨었느냐
은포옥담 찾아 오르는 길
천굽인가 만굽인가

키 넘는 범고비가
앞을 막아섰더니
머루, 다래 넝쿨 엉켜
발목을 휘감누나

바위를 안고돌면
참나무림 총총하고
오솔길 나타났다
어느 사이 사라지고

젖은 이끼에 미끄러지며
내물에 빠지며
한치한치 뿔아오르니
비오듯 흐르는 땀
웁은 젖어 쥐여잘듯

길을 잃고 망설이며
내려갈가 생각하니
하늘가에 속인암은
어서 오라 손짓하고
가인계는 조잘조잘
주저 말라 속삭이네

그 모습 붓처럼 기묘한
필봉에 올라서니
천태만상 기암바위
푸른 바다에 솟아있네

고요히 내리는 안개를 휘저으며
흰 갈매기 즐거이 깃을 치고
로송이 뻗뻗이 들어선 숲섬은
푸른 닳을 올리고 저 멀리 떠가는듯

깜깜한 그믐밤이면
배사공들의 배길을 밝혔다는
전설의 축석암은
타오르는 일만 초불을 세웠는가

잔파도는 출렁이며
옥자갈을 구울리고
백사장의 해당화는

힘한 벼랑 굽이돌아
굽을 따라 헤쳐가니
구름 타고 내려온듯
맑고맑은 은포옥담
나를 반겨 웃어주네

두손에 퍼담으니
옥구슬로 반짝이고
휘저으니 찰랑찰랑
진주물결 비단물결

달아오른 발목을
옥담에 잠그니
흐르던 땀 씻은듯 잦아들고
천길 벼랑도 날아오를듯
상쾌한 가슴 가벼이 나래퍼는데

문득 내 가슴에 미치는 생각
만일 한순간이라도 의지의 탕개 풀려
오르던 발걸음 돌려세웠다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절경도
영영 운무속에 잠겨 못보고말았으리

* 은포옥담- 숨어있는 옥담.

속인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는 바위.
가인계- 누가 보아도 아름다와보인다는 시냇물.

필봉에 올라

떨기떨기 정겹게 웃네

수평선 저 멀리
만선기 날리며 돌아오는 고기배
배고동소리 들을수록 유정해
내 마음 저절로 시흥에 잠기나니

저기 연적바위에
먹바위를 갈고갈아
이 필봉을 뿔아 듬뿍 찍어
망망한 창파를 종이삼아 쓰고싶노라

해칠보여
해쫓는 너의 장엄한 모습
들쭉날쭉 기묘한 바위의 아름다움
가없이 맑고 푸른 이 정기와
네 물결 출렁이는 내 마음의 푸른 바다를

과학자의 전형적성격 탐구

김흥섭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오늘의 과학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다. 지금 과학은 속도에서뿐만아니라 그의 내용과 질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새로운 과학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있으며 호상작용속에서 새로운 질에로의 비약이 이룩되고있다.

오늘 당과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 그 어느때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시대의 지향을 반영하고 생활을 선도하는것은 사회주의문학의 본성이며 혁명문학의 사명이다.

시대의 요구와 생활의 법칙에 충실한것으로 하여 주체문학은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길동무로 되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과학자들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오늘 우리 주체문학의 절박하고 숭고한 임무이다.

우리 문학은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 시대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을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문학에 대한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언제나 당의 정책적요구에 민감한 우리 작가들의 신성한 본분이다.

지난 시기 우리 소설문학은 노동자, 농민, 병사의 전형과 함께 인테리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여왔다.

인테리의 형상은 다른 형상들과 함께 우리 소설문학의 중심적인 주인공으로 되어왔으며 또 되고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문화린, 《생명수》의 문석빈, 《령마루》의 현우림, 윤혜영, 《먼길》의 최중열, 박시봉, 《뜨거운 심장》의 박정호 등은 잊을수없는 감동적인 성격들이다.

그들은 사랑받는 우리 혁명의 동반자들이며 그들의 목소리는 시대의 메아리로 힘있게 울리었다.

최근시기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을 비롯하여 과학자들을 형상한 좋은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학자의 형상을 본격적으로 창조한 작품은 아직도 그리 많지 못하다.

특히 성공한 과학자의 형상은 우리 소설문학에서 보기 드물다.

우리 문학이 형상하여야 할 새로운 인간들인 주체형의 과학자들은 도처에 있다.

과학자의 형상창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시대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을 깊이있게 탐구하는것이다.

그것은 성격이 형상의 핵으로서 그의 전형성의 높이에 의하여 작품의 사상예술성이 규정되고 사회적문제의 심도가 좌우되기때문이다. 생활묘사도 전형적성격을 밝히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그래야 그것은 의의를 가질수 있다.

전형적성격은 사회계급적본질의 체현자이다. 해당 계급과 계층의 본질이 구현될 때 그것은 전형적성격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의 창조문제는 중요하게 과학자, 인테리의 사회계급적본질의 탐구문제로도 된다.

전형적성격은 사회계급적본질의 체현자일뿐만아니라 시대의 산아이다. 시대는 인간성격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며 새로운 특징을 형성시킨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들은 지난날의 인테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오직 당이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탐구에 전심전력하는 주체형의 과학자들이다.

우리들은 지난날의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있는 오늘의 과학자들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 새로운 계급적,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그들의 전형적성격을 심오하게 탐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문학이 해결해야 할 과학자의 형상 창조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 창조문제이며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적성격의 탐구 문제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숭고한 혁명임무로 인식하고 완강한 의지와 노력투쟁으로써 과학의 요새를 점령해가는 로동계급의 인테리이며 혁명가들이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전형은 과학자이면서도 로동계급의 인테리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묘사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과학자의 전형을 본보기가 되게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고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하고있는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을 깊이있게 그려내는 여기에 오늘 우리 시대 과학자의 형상창조의 중요한 요구가 있다.

혁명적수령관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과학탐구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워나가는것, 이것은 주체형의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의 근본특징이다. 주체형의 과학자들이 지닌 모든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 품모들은 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으며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문학은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정신세계는 그 어느 사회, 어느 시대의 과학자들의 그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다는것을 생활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과학자의 전형적성격의 탐구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그들의 사상감정을 깊이 파고드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응당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야 할 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스쳐버리면 자연히 형상을 놓치게 되며 작품에는 생경한 론리만 남게 된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계급과 시대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아니라 직업상 특성에 의해서도 제약된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초소에서 일하는가에 따라서도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사상감정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직업과 초소가 사람들에게 거기에만 고유한 어떤 특색있는 생활을 가져다주며 또 인간의 사상감정은 그러한 생활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과학자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인 과학연구사업의 특성은 그들의 성격에 작용하며 따라서 과학자들에게만 특유한 사상감정을 형성시킬수 있다.

우리는 80년대의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과학자들의 성격, 그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전형적인 사상감정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조국애, 과학적신념과 강의한 의지, 깨끗한 량심과 혁명적의리, 혁명적 동지와 집단주의, 주체성과 주인다운 태도, 영웅성과 자력갱생의 정신, 높은 지성과 정열...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작가들은 구체적인 감정과 정서를 통하여 과학자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모들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과학자라고 할수 없다. 과학자로서 자기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과학적신념이 없다면 과학적성과를 이룩할수 없으며 과학자로 인정받을수 없다.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적문제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과 그를 견결히 옹호하고 과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학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수 없다.

과학자로서의 탐구심이나 강의한 의지도, 량심과 정열도 자기가 연구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신념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탄생하는 계절》은 주인공 류연이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과학적신념과 사상감정세계를 심오히 보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원형의 생활사실에 대하여 널리 알고있고 이미 그를 형상하여 성과를 거둔 영화가 나왔으나 그래도 사색과 감흥에 잠기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이 먹는 기름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몸소 땅개암을 정원에서 가꾸시었다는 것을 알고 류연이는 연구제목을 그것으로 바꾸고 간고한 탐구의 길을 걷는다.

몇번의 실패에 신념을 잃고 여울목을 떠나가버린 로명수의 강요나 강윤희의 권고도 물리치고 고심분투하는 류연이의 성격은 투쟁속에서 선명히 드러나고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땅개암연구가 성공할수 없다고 보는 역경속에서도, 관료주의자들과 공명주의자들, 보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구박속에서도 류연이는 여울목협동농장의 농장원이 돼서라도 땅개암연구를 계속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는것이였다.

10여년간이나 지혜와 정력, 청춘과 희망을 다 바쳐가며 탐구하였으나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아득히 놓여있었지만 그는 과학적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류연이를 간고한 탐구의 길로 떠밀어준 힘은 땅개암연구가 반드시 성공할수 있다는 과학적신념이 있으며 어렵더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과학자의 량심이였다.

량심과 진리는 과학자의 징표라고도 할수 있다. 량심이 없다면 그는 참된 과학자가 될수 없다.

혼자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갈수도 있고 한생을 바쳐서도 해명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모태길수도 있는것이 과학연구사업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종의 사람보다 과학자는 량심적이어야 한다.

과학과 진리 앞에 참으로 량심적인데 과학자의 진면모가 있다.

《탄생하는 계절》에서 식물학연구소의 로학자 리문익의 형상이 감동을 주는것은 과학자로서의 량심을 선명하게 그렸기때문이다.

리문익의 성격은 살아있다. 어느 한 면에서는 주인공보다 더 생동하고 개성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러운것이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순결한 량심으로 하여 그의 전형적성격은 빛나고있다.

어떤 권력과 회유도 그 어떤 곤난한 생활과 육체적로쇠도 로학자의 량심을 흐리게 할수 없었다.

연구사들은 기름작물로서 십여톤의 수확을 내게된 땅개암을 육종해냈다는것은 큰 성과라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과학지도처장 로명수와 같은 관료주의자들은 그 성공을 완강하게 부인한다.

조조한 가운데 주인공자신도 실패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기름함유량의 변화가 없는 작물을 육성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때 리문익은 자리에서 벌떡 뛰여일어나며 목멘소리로 부르짖는것이였다.

《용타! 정말 용타! 우리 연구소의 량심이 살아있다는것을 나는 보게 뻘! 과학자의 기백이 살아있다는것을 믿게 뻘. 인간은 그런 기백으로 위대해지구, 그런 량심에서 힘을 얻는거다!》

강의한 의지는 과학자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의 하나이다. 강의한 의지가 없이는 장기간을 요구하는 과학연구사업을 끝까지 해낼수 없다.

과학자에게는 총명한 두뇌와 함께 완강한 심장이 있어야 한다.

원췌의 가혹한 고문을 이겨내는 감방안에서도 강의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무기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는 과학자에게도 강의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는 결코 겉으로 큰소리를 치거나 육체적고통을 이겨내는데서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령마루》의 녀성과학자 윤혜영은 중앙의 어느 과학연구기관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가정부인으로 서 세 아이의 어머니이다.

연구과제인 로동보호연구의 성공을 위해 현우림 기사장이 일하는 광산에 내려간 그는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 과학자가 지녀야 할 강의한 의지와 고결한 녀을 소유하게 된다.

로동계급속에서 과학자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인 강의한 의지와 녀을 키워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렸기때문에 그의 성격은 전형적이며 매혹적인것으로 될수 있었다.

류연이는 몸매 작고 마음이 어지며 꿈이 많은 량만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비할바없이 강하다.

그는 언제나 발에서 맨발로 살며 일이 너무 힘들어 발가운데 기절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일하며 연약한 몸으로 온갖 육체적로동을 견디여내면서 끝내 땅개암의 육종에 성공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있다.

허나 그의 의지가 결코 그런 육체적으로 힘겨운것을 이겨내는데서만 나타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보다 땅개암연구사업을 방해하는자들과 끝까지 투쟁하는 그 완강성에서 나타나며 육종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사색과 탐구 과정에 표현되고있다.

과학자의 의지는 이렇게 곤난과 장애, 락망 등을 극복하면서 과학연구사업을 끝까지 해내는 그 심장속에서 표현되는것이다.

류연이는 진정으로 기계공학자인 김인준을 사랑했다. 류연이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으며 그것은 충분히 실현될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장기간을 요구하는 땅개암연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과학과 사랑의 두개의 심장중에서 사랑의 심장은 버려야 했다.

사랑의 뜨거움도 강의한 의지를 녹일수 없다. 사실 그것은 이성과 감정, 의지와 사랑의 힘겨운 싸움이었다.

의지가 애정을 이겨낸 류연이이기에 과학자로서의 그의 전형적성격은 빛날수 있었다.

류연이의 이런 상반되는 격렬한 내면세계의 묘사로부터 그의 높은 지성이 흘러나오고있다.

과학자들은 지성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과학자들은 자기가 전공하는 과학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그와 련관된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들은 추상적이며 논리적인 사유가 발전하고 분석과 종합력이 있으며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본질을 심오하게 일반화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가지고 일정한 과학분야의 첨단에서 창조적탐색을 하는 사람이라야 과학자라는 영예를 지닐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의 전형화에서 그 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성도를 응당한 높이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류연이의 애정과 과학, 행복과 연구사업에 대한 사색과 평가는 높은 지성으로 빛나고있다.

영원불멸할것 같은 애정을 열렬하게 토로하는 김인준에게 그는理性的 힘으로 차근차근 말하는것이였다.

《피로움을 안구 몸부림치는 사이에 감정은 불타서 재가 되구 눈물은 메말라서 모래알 같은것만 가슴에 남은것 같애요. 제가 이야기한것은 생각을 하구 또 한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

너자는 천성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하는 대가루 행복을 얻는 너자란 없답니다. ... 그런데 저같은 너자에게 10여년 동안 행복을 주구 뺨을 쳐야 할 이자리에서까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말을 해주시 고맙습니다.》

과학을 처세와 협잡의 수단으로 리용한 과학지도 처장인 로명수에게 순종하면서 투쟁과 량심을 버린

소장에게 하는 류연이의 비판은 참으로 지성적이다.

류연이는 육종분야에서 세계과학발전의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하는 높은 과학리론적자질을 가지고있으며 지성인답게 사람을 대하고 생각할줄 안다.

사실 류연이의 성격이 마음에 드는것은 이런 높은 지성세계때문이다.

《먼길》의 최종열의 형상은 인간의 리상과 행복, 청년들의 희망과 현실에 대하여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 청년과학자가 지녀야 할 전형적인 사상감정을 깊이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평범하고 안락한 생활을 지향하는 경선희와 헤어진 최종열은 미개척지대로의 강행군을 계속할 굳은 결심을 더욱 다진다.

과학연구의 그 먼길에서 실패만 거듭할수 있고 끝내 종착점을 찾지 못할수도 있다.

인류과학사는 그런 비극적인 과학자의 일생을 수많이 기록하고있는것이다. 아니, 과학발전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간 수재와 노력가들이 기수없이 많은것이다.

이러한 과학자의 인생행로를 잘 알고있는 최종열이였으나 충성의 길에서 물러설수는 없었다.

곤난이 중중첩첩 가로막혔으나 그는 독해물자원을 무해물자원으로 전환시키고 《검은 버섯》을 기본재료로 하여 각이한 성질의 철개량체를 수집중이나 얻어내려는 탐구의 먼길을 걷는다.

먼길을 걷는 과정에 최종열의 참된 리상과 하루하루를 급행렬차에서처럼 살줄 아는 생활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과 깨끗한 량심, 불타는 탐구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등 청년과학자로서의 전형적성격이 구체적으로 깊이 발현되고있다.

시대적전형으로서의 과학자의 사상감정세계는 참으로 심오하고 풍부하다.

우리는 과학자들의 이런 전형적성격을 창작의도에 맞게 옹게 포착하고 깊이 파고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80년대의 과학자의 전형을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한다.

과학자의 전형을 본보기가 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적지 않은 미학실천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학자들의 전형적성격을 깊이 파악할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활속에 침투하여 그 심오한 생활을 옹게 그려야 할것이며 특히 아직 문학에 반영되지 않은 과학기술분야의 생활을 묘사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지난 시기 기술혁명에 바쳐진 작품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으나 엄정하게 말하여 과학연구에 관한 주제의 작품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서 창작되지 못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소설가들은 과학연구사업분야와 과학자들의 생활에 더 많은 창작적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며 시대의 절실한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

새것에 민감하고 그의 최첨단에서야 할 소설가들은 우선 당의 정책적요구에 비추어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며 또한 최신과학기술분야에서 앞장서나가는 과학자의 생활을 그려야 할 것이다.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성격의 모태이다. 최신과학기술분야의 생활은 참신한 성격창조의 풍부한 토양으로 될 수 있다.

최신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해나가는 과학자들의 성격에는 새로운 생활이 안겨주는 새로운 성격적특징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 과학자들의 전형적성격창조에 기본을 두면서 전자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를 자동화, 로봇트화해나가는 선구자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동화시대이며 전자공업의 시대인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그려서 80년대의 과학자로서의 시대적성격을 참신하게 그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적갈등은 사회적모순의 반영수단일뿐만 아니라 전형적성격창조의 힘있는 공간이다. 갈등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비례하여 전형적성격은 선명해진다.

새로운 사상을 가진 성격과 낡은 사상을 체현한 성격간의 불일치와 대립, 충돌과 투쟁속에서 성격은 자기의 면모를 점점 드러내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과학자의 전형도 갈등을 옹계 설정하고 예리화시킴으로써 더욱 선명히 창조될 수 있다.

현실생활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빛나는 과학적발명을 하였거나 연구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거의다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것들과 힘겨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탄탄대로란 있을 수 없다. 과학연구사업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사람들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고 흔히 혼자나 몇사람이 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활동이며 고도의 창조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다. 이런 과학연구사업의 특성은 그것을 방해하는 각양각색의 그릇된

관점과 낡은 사상 잔재, 뒤떨어진 생활습성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과학적진리는 조직회의에서처럼 다수가결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소수의 의견에도 그 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과학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 과학기술에 대한 홀시와 낡은 태도, 자만자족과 건달풍, 공명주의와 리기주의 등 현시기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시급히 타파되어야 할 낡은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갈등에 반영함으로써 그속에서 과학자의 성격을 힘있게 전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작품들은 과학자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그를 과학연구기관에서 뛰쳐나와 공장이나 농촌에 들어가서 대지에 툴툴키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라는 식으로 써왔다.

이런 갈등의 설정과 해결은 현실적요구와 맞지 않으며 일면적이다.

물론 공장이나 건설장, 농촌에서 일하는 기술자나 노동자, 농장원도 과학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웅당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기술일군은 과학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과학연구기관에서 나와 공장이나 농촌에 들어가 직업을 바꾼 인물형상은 과학자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절대다수의 과학자들은 과학연구기관에서 일하고있으며 그들은 뛰어난 재능으로 하여 선발된 사람들이며 충성의 일념을 안고 과학연구사업을 해나가는 혁명전사들이다.

거기에서는 오늘도 경험있는 로학자들과 생기있는 청년과학자들이 탐구를 계속하고있다.

과학자들은 말은 연구과제에 따라 실험실에서 한생을 보낼 수도 있고 연구소안에서만 연구사업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작가들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든 생산현장에서 연구를 하든 명실공히 과학연구사업에 모든 것을 바치고있는 전형적인 과학자의 성격을 깊이있게 찾아내는데 있다.

그러므로 과학연구기관에 배치받았으나 거기 가지 않은것을 긍정하면서 벽찬 현실에 뛰어들라는 식으로 갈등문제를 취급하는 작품을 더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20대, 30대의 준박사, 박사를 더 많이 키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따라서 학위를 마다하고 연구사업을 계속했다는 식으로 갈등관계를 전개하면서 마치 학위소유자들

이 공명주의자나 리기주의자인것처럼 더는 묘사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물론 과학연구과제가 실생활에 침투할것을 요구하면 생산현장에 나가야 할것이다. 그리고 공명주의에 사로잡혀서 과학연구성과에 앞서 학위만을 탐내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과학연구기관에서 충실히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생산현실이나 실생활과 대치시키면서 갈등을 설정하거나 학위를 바라지 않고 연구하는것을 장려하는것으로 갈등을 전개하는것은 생활의 진실에도 맞지 않으며 과학자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생을 다 바쳐가며 과학연구사업을 하고있는 진짜 과학자나 학위소유자들의 감정에 맞지 않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현실적의의가 없는 갈등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갈등문제는 정치적문제이며 작가의 당성이 발현되는 중요한 분야인것만큼 소설가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교양에 도움이 되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투쟁내용을 옹계 갈등화하여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과학자의 전형을 본보기가 되게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근로자들의 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은 시대와 엄숙한 요구이며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다.

본보기가 되는 과학자의 전형창조는 80년대의 시대적전형창조문제이며 그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힘있는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과학자의 시대적성격을 깊이 탐구하고 그를 폭넓게 전형화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만족을 주어야 할것이다.

단상

바쁜 걸음

리수용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통일되어있고 혁명적정열을 내어 일하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 관철에 펼쳐나선 순천땅!

나는 요즘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는 때가 없다. 또 요즘처럼 내 직업에 대한 긍지와 기쁨을 안고사는 때도 없다.

오늘아침만해도 그렇다.

한꺼번에 들어선 북행렬차와 남행렬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바쁜 걸음으로 내가 일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지원안내소》앞으로 모여들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형색이였다.

배낭을 걸머진 젊은이들, 금방 학교문을 나선듯 싶은 나 어린 처녀들, 정성껏 큰 보짐을 꾸려든 녀인들, 청년기동선동대원들...

년령도 직업도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으로 가는 길을 묻는다.

그들의 물음에 만족을 주기란 정말로 쉽지 않다. 건설장의 위치와 기업소들에 대한 상세한 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문건설장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요구한다. 그리고는 한사람같이 건설장으로 가는 지름길을 묻는다.

그다음은 마치 명령을 받은 병사들처럼 신들메를 조여매고 바삐 떠나간다.

아마도 저들속에는 얼마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건설자인 아들을 찾아오는 어머니도 있을것이고 출장길에 잠시 돌려흠 한삼이라도 뜨고싶어 찾아오는 바쁜 출장원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오려는 그 하나같은 마음이 저들의 바쁜 걸음을 재촉해주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 당의 하나의 구령속에 하나의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우리 인민들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안고 이처럼 바쁘게 사는 순천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벅찬것인가!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

김해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의 생명은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영 화예 술론》 320~321페이지)

훌륭한 가사창작의 비결은 심오한 사상적내용을 얼마나 높은 시형상으로 그려내는가에 있다.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구희철)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 있다.

가사는 정치적표현은 쓰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친근감을 주는 소박한 생활감정으로 감명깊은 사상을 안겨주고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을 높이 모신 조국, 철없던 시절의 희망과 잊을수 없는 생활의 표상들 그리고 꿈에도 지워지지 않는 푸른 하늘이 있는 그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며 거기서 사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그렇다, 내 조국처럼 사랑스럽고 귀중하며 그 하늘처럼 맑고 정다우며 끝없이 푸른 하늘은 없다.

어데 가봐도 그리고 어느 하늘을 보아도 유년의 꿈을 담은 하늘처럼,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조국의 하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창창하고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하늘은 없는것이다.

하기에 가사는 1절에서부터 감성적인 표상을 주는 푸른 하늘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아-철없이 바라본 푸른 저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어이 몰랐던가

민들레 곱게 피는 언덕에서 뛰놀기도 하고 시내가에서 물장구치며 장난도 하던 그런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어린시절 하늘높이 둥둥 떠오르는 하얀 연을 가리키며 좋아라 환성을 울리며 바라보던 푸른하늘!

우리들이 항상 즐겨부르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에서 기쁘고 행복한 우리의 심정을 담아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하고 마음껏 노래하던 푸른 하늘!

그것은 곧 우리들을 따뜻이 안아키워주는 조국의 품이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자기가 살며 숨쉬며 일하는 그 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낀다.

바로 여기서는 애국주의사상감정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산 체험으로 구체적인 생활로 안겨오는것이다.

그리고 1절의 구절구절에는 사람들을 동심세계에 이끄는 순결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어른이된 다음에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동심이다. 하여 사람들은 한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고마운 조국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애국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살고있는 가장 진실하고 소박한 감정이라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된다.

구체적인 생활적감정과 결부된 애국심이 얼마나 심오한 내용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하는 것은 노래의 2절을 통해서 더욱 잘 알수 있다.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
아 가없이 펼쳐진 푸른 저 하늘을
시련 많던 불구름도 가릴수 없었네

2절에서 가사는 사람들이 자나깨나 조국의 고마움에 대해 잊지 못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피로써 지켜내고 이룩한 행복이기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고있다.

가사에서 시련 많던 불구름도 조국의 맑은 하늘을 가릴수 없었다는 극히 상징적이면서도 생활적인

표상을 안겨주는 표현은 가렬한 전쟁의 포화를 헤치며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하여 목숨바쳐싸운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게 하고 결전의 마당에서 피흘리며 쓰러지는 마지막순간에도 꽃같은 청년의 그 맑은 눈동자에 조국의 푸른 산, 푸른 하늘을 안고간 인민군용사들의 모습도 눈앞에 삼삼히 안겨오게 한다.

가사는 이처럼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불길만리 포연을 헤치며 조국을 지켜온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피어린 시련을 헤치고 승승장구해온 우리 혁명에 대하여 뜨겁게 생각하게 한다.

하여 가사는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 조국의 하늘은 한없이 고마운 푸른 하늘로, 맑고 밝은 조국의 하늘로 빛날수 있었다는 사상을 강하게 안겨주고있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데 머물지 않고있다.

가사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3절에서 이 세상에 나라는 많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처럼 좋은 나라는 오들도 래일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상을 깊이있게 안겨줌으로써 가사의 철학적심오성을 잘 보장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너보다 푸른 하늘 어디 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살리라

가사는 이 구절에서 조국에 대한 소박하고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라라는 우리 인민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동시에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한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른 하늘로 빛나라라는 사상을 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시의 심오한 사상성과 형상적 매력 있다.

가사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조국,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삶의 모든것이며 그 품속에 넘치는 따사로운 해빛과 끝없는 희망과 행복 그리고 우

리들의 마음속에 비긴 영원히 푸른 조국의 하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가사의 심오한 사상적알맹이라고 볼수 있다.

가사는 당과 수령과 조국 그리고 인민과의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자기의 사상적알맹이를 분석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소박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정서를 통하여 심화시킴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과 당과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절절하면서도 뜨겁게 안겨주고있다.

가사 《내 나라의 푸른하늘》이 거둔 귀중한 성과는 또한 가사의 심오한 사상을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노래함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보장한데 있다.

가사의 서정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의 감정이며 다함없는 충성의 감정이다.

가사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이와 같은 서정을 특색있는 시형상으로 노래하기 위하여 동심세계로 사람들 을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하얀 연, 민들레, 푸른 하늘, 푸른빛과 같은 표현에 이끌리어 조국을 맑고 밝으며 깨끗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가사는 이러한 서정세계를 세련된 감정조직을 통하여 펼쳐나가고있다.

가사는 어린시절에 철없이 바라보던 조국의 푸른 하늘에 대한 시인자신의 소박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바로 조국의 자랑으로 된다는 뜻깊은 시세계를 펼치고있다.

어린시절의 깨끗한 동심이 비긴 서정을 타고 자연스럽게 심어진 시세계가 2절에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로 조국이 준엄한 시련의 고비를 넘어 오늘처럼 통성부강하는 조국으로 될수 있었다는 사상으로 분석되면서 심화된다.

가사는 3절에서 앞의 축적된 감정에 기초하여 한결음 더 깊이 들어가면서 푸른 하늘에 대한 시세계를 절정으로 승화시킨다.

다시말하여 은혜로운 해와 별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 살리라는 시구절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감정

으로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승화되면서 가사의 사상적알맹이를 더욱 정서적으로 부각시켜주고있다.

이리하여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밝은 가사의 서정은 미풍의 속삭임처럼 정답게 울리기도 하고 수심깊은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또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도 한다.

가사는 이러한 뜻깊은 사상감정을 아무런 과장도 수식도 없이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시형상으로 소박하게 생활적으로 노래하는데서 훌륭한 기교를 보이고있다. 생활적인 정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은혜로운 해와 별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과 같은 상징적인 표현과 비유를 적절히 씌으로써 수령과 당과 조국을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말하려는 사상이 형상적으로 안겨오게 하고있다.

그밖에도 《시련받던 불구름》, 《푸른 하늘이 내 조국의 자랑인줄》 《조용히 눈을 감아도 푸른

빛 어리고 꿈에도 보이는 내 나라의 맑은 하늘》은 다같이 상징적인 표현과 비유들로써 가사의 심오한 사상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안겨오게 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겨주고있는 시구절들이다.

가사 《내 나라의 푸른하늘》은 뜻깊은 사상적내용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실현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랑하여 즐겨부르는 노래로 되고있다.

가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맞는 아담하고 소박한 정서로 깊이있는 사상을 밝히는데서 많은 긍정적교훈과 시사를 주는 작품이다.

시인들은 이러한 좋은 점들을 살려 풍만한 정서 속에 심오한 사상이 담겨있는 뜨거운 서정으로 충만한 조국에 대한 좋은 가사를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수호자의 새 모습

김영남

서리어린 총창
가슴에 그려안고
눈덮인 전호가에 서있는
전사의 모습이 아니다

먼지오른 철갑모
위장풀에 감추고
돌격하는 대오에 선
땀에 젖은 모습도 아니다

여기 방사직장 건설장-
기중기의 동음이 울려가는 하늘가
아슬히 기둥을 조립하며
잠시 용접면 벗어든
군인건설자의 모습이여

그대는 보여주고있구나
판가리격전장에서
서슴없이 선했 한몸 내대는
그것만이 군인의 사명 다함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깨우쳐주며...
오, 군인건설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당이 불러준 건설의 전초선
조국을 빛내이는 대오에 선
병사의 새 모습이어

그대에게는
무기고에 세워둔 총도 있으리
배낭속에 정히 간직한
군공메달도 몇개는 있으리

허나 지금 그대예겐
창조자의 값높은 마치가 쥐여져있다
그대 손엔 총구의 불줄기가 아닌
용접의 불꽃이 날리고있나니

전사여 그대는
그것으로 원썬들을 전률케 하고
번영하는 조국의 돌격로를 열어가는
병사의 새 모습
새생활을 창조하며 평화를 지켜선
수호자의 값높은 군공속에 빛난다!

우리 집

-나의 《작가수첩》에서-

최봉무

인간생활에 대한 사색과 탐구를 직업으로 택한 나에게도 나의 개인생활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이 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나는 생활의 출발점인 우리 집을 귀중히 여기며 끝없이 사랑한다.

바라보는 창문

수도의 한 모퉁이, 눈에 가려보기 힘든 대타령 2동의 평범한 아파트 4층 5호가 우리 집이다.

황혼이 깃들 무렵이면 우리 집 창문에는 옥색 네온등불빛이 어린다.

키작은 할머니로부터 다섯살 쌍까풀눈 막내까지의 모습이 다 비끼는 옥색네온등빛 창문은 아파트의 그 많은 창문들중에서도 마치 첫눈에 찾아보기 위해 표식한것 같다.

하루일과를 마치고 정시, 드림없는 그 시간에 경흥거리 빠정류소에서 내리어 남새상점을 에돌면 우리 아파트가 마주선다.

몸에 땀 습관이라 할가? ... 나는 고개를 쳐들고 무수한 창문들중에서 눈길을 더듬어 옥색네온등빛 창문을 찾아본다. 자신도 특별한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감정에서인지 그렇게 찾아본 다음에야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면 걸음이 더욱 활기있고 빨라진다.

이것은 나혼자만이 체험하는 생활이 아니였다. 적지 않은 기간 부모와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려니 생각해왔지만 얼마전부터 좁은 그 생각의 울타리를 털어버릴수 있었다.

언제인가 안해가 막내딸 경순이의 손목을 이끌고 출근길에 올랐다.

나는 긴 복도의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안해는 마당에 내려서 몇걸음 옮기다가 다시 한번 아파트를 올려다보는것이였다. 안해뿐이 아

니였다. 아직 혼자서 집을 찾지 못하는 막내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내가 창가에 없었다면 그들도 의례히 헤아리기 힘든 복도의 창문을 더듬었을것이다.

범상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여서 나는 중학교에 다니는 경옥이, 인민학교에 다니는 경미, 유치원에 다니는 경훈이에게 너희들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문득 창문을 바라보는가고 물어본적이 있다.

그 애들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다. 누구나 할것없이 약속이나 한듯이 집가까이에 와서는 고개를 들어 옥색네온등불빛 창문을 찾아보는것은 똑같은 심리이며 감정을 통하여 굳어진 습관이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아침이면 생활이 시작되고 저녁이면 생활이 간직되는 나혼자만이 아닌 일곱식구의 《우리 집》이기때문일것이다.

웃음과 울음

크지 않는 한구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은 참으로 재미있다.

나는 그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그지없이 느끼곤 한다.

조국앞에 하루의 과제를 성실히 총화한 만족한 기분으로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설 때의 그 감정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집안의 좁은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의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아이들이다.

문소리가 들리면 방안에서 텔레비존을 보다가도 《아버지 온다!》하며 뛰어나오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 네 남매는 팔을 펼쳐들고 세상의 만복이 다 실린 귀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본다.

그럴 때면 나는 누구에게 먼저 가방을 주었으면 좋을지 몰라 주춤거린다. 벽시계를 쳐다보며 기다렸을 애들앞에서-

먼저 와서 가방을 나누려는 애는 사내인 유치원생 경훈이다. 아버지의 가방을 받아안은 그는 어깨가 으쓱하여 졸려거리며 옷방으로 올라간다.

선손을 빼앗긴 손우의 두 애는 우두커니 서있다가 얼굴에 실망의 빛을 담고 시무룩이 웃음을 지으며 아래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응석둥이 막내의 경우는 다르다. 아버지의 가방을 먼저 받지 못한 아쉬움으로 문지방에 그냥 버티고서서 입술을 비죽이 내밀고 울먹거린다.

그러다가 오빠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면 어머니와 안해, 딸애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순간에 웃음과 울음이 방안 한가득 차고 넘친다.

나는 얼른 막내를 어깨우로 추켜안고 방안에 들어서며 달랜다.

《우리 경순이 울음이 제일 뜨겁구나!》

그때의 행복감이랄까, 그때의 생활의 참맛이랄까. 나는 그 무엇으로도 이름하여 감각할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잠긴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퇴근시간이면...

아버지가 온 날

열흘이 멀다하게 출장다니는 분망하고 경쾌한 직업을 가진 나는 대체로 한주일만이면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날은 명절과도 같다.

아이들은 달력의 날자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날자를 짊으며 안해는 마음속으로 날자를 센다.

그 기다림이 방안에 《명절》 꽃을 피우는것이다.

그동안에 벌어진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도 저녁 7시만 되면 애들은 두툼한 《일기장》을 내놓고 모여앉는다. 아버지앞에서 한주일간의 생활을 《총화》 받자는것이다.

소년단원인 맏이 경옥이가 집행자이고 인민반 2학년생인 경미, 유치원 높은반 경훈이 그리고 탁아소 준비반생인 경순이가 참가자들이다.

이런 《총화》는 벌써 3년동안 계속되어온다. 그사이 참가자도 두명이나 늘었다.

참으로 동심이 비끼 솔직한 《토론》들은 재미있다. 나는 혼자 피실 웃기도 하고 심중해지기도 한다. 저기에는 진실한 생활이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경옥이가 일어나 일기장을 펼쳐들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하였다.

×

경훈-작은누나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 손목잡고 가겠다고 하고 혼자 뛰어내려갔습니다.

경미-어제 언니는 할머니가 수도꼭지를 꼭 막아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내가 막았습니다.

경옥-?!...

×

경미-전번날에 경훈이는 유치원에 갔다와서 어항속의 금붕어를 막대기로 콕콕 찔렀습니다. 금붕어가 울었습니다.

경옥-어제는 자기 생일날이라고 하면서 한마리 잡아먹자고 낚시질까지 했습니다.

경훈-헛, 금붕어도 우나?!...

×

경훈-큰누나는 어제 탁구소조에 안갔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오면 대주겠다고 하니 수지연필알을 주면서 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미-오늘 대수시험에서 언니는 9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시험지에 《열성이 없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경옥-다음번엔 꼭 10점을 맞겠습니다. 아침에 경훈이는 경미가 크레용을 안준다고 《사촌누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표정은 참으로 볼만했다.

제일먼저 얼굴이 붉어지는 애는 일기를 읽고있는 당사자인 경옥이다. 그는 올해에 중학생이 되었기때문일것이다. 침착한 경미는 어느때 봐도 말이 없고 론리정연하고 태연하다. 그런가 하면 집안의 유일한 외아들인 경훈이는 찍하면 투덜투덜하거나 눈을 부릅뜬다. 아직 무어가 무언지 모르는 막내 경순이는 오토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그렇거니 구경만한다.

어머니와 안해는 하냥 웃으며 당과류들과 사과 통줄임까지 모두 꺼내 펼쳐놓는다. 아마 아버지가

돌아온 날이라는 의미에서 《만찬》을 펼치는것 같다.

하지만 이 가슴에는 7일간이란 나날에 아이들속에서 벌어진 범상치 않은 일들이 더없이 소중한것으로 안겨든다. 비록 생활범위와 형식과 내용은 다르나 인간적인 감정은 같기때문이라.

4가지 희망

안해는 늘 자기의 어린시절을 추억하며 아이들의 희망에 대하여 고심한다.

언제인가 안해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10 점최우등생이며 똑똑한 경옥이는 탁구를, 매우 생활적이고 감성적인 경미는 미술을, 경쾌하면서도 성실하고 섬세한 경훈이에게는 건축학을, 노래 잘하고 끈게 생긴 경순이는 손풍금연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것이다.

학교라고는 문전에도 못가본 할머니와 희망의 고지를 채 오르지 못하고 잔치상앞에 주저앉은 안해는 무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숨씨있는 권투선수였던 애들의 삼촌도 경공업대학예술소조원이었던 애들의 아지미도 기꺼이 찬성이다.

벽찬 생활속에서 세월은 두해 지나갔다. 경옥이는 보통강구역 체육소조의 세련된 탁구선수로 자랐다. 경미는 중학생들도 그리기 어려워하는 대상을 곧잘 도화지에 옮기는 세거리인민학교의 소문난 꼬마 《화가》이다. 경훈이는 얼마전 삼촌네 집에 가던 길에 주체사상탑을 돌아보고와서 진흙으로 멋지게 깎아세워 우리 집 책상앞에도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아있다. 경순이는 저녁마다 탁아소에서 배운 노래를 곧잘 부른다.

아이들의 재능은 날을 따라 놀랍게 늘어간다.

제일 기뻐하는이는 어머니이고 그다음은 안해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재능을 보며 생각이 많아진다.

하루는 유치원에 갔다온 경훈이에게 나는 《경훈이는 커서 무엇이 될가?》라고 무심중 한마디 던진적이 있다.

아들애는 서슴지 않고 《비행사》 하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도 안해도 깜짝 놀라는것이였다. 외아들이라는것을 생각하는것 같았다.

《왜?》

나는 여전히 같은 어조로 그리 놀랍지 않게 물었다.

《그래야 미국놈을 때려부시지.》

나는 얼굴에 기쁨을 담고 아들애를 꼭 껴안으며 다정히 애무해주었다.

그것이다. 내가 언제나 생각하는것은 귀여운 나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질과 재능, 희망을 활짝 꽃피워 나라에 필요되는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내겠는가 하는것이다.

어느 일요일 정무원에 다니는 동생내외도 왔고 나도 안해도 집에서 휴식하였다.

우리는 조국에 대하여,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의 전망문제에로 화제를 돌리었다.

마침 나는 마음속에 신념처럼 굳혀온 말을 심중히 꺼냈다.

《내가 4 형제의 특징을 참 잘 보았거든. 우리 경옥이는 과학자, 우리 경미는 옷공장 채봉공, 우리 경훈이는 추격기비행사, 우리 경순이는 건설장의 빨간 수건 기증기운전공... 이만하면 우리 가정도 조국앞에 깨끗한 량심을 바칠수 있을것이다.》

《...》

웃음 많던 방안에는 실망어린 공기가 돌았으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다.

누가 제자식을 쉽고 눈에 띄우는 초소에 내세우고싶지 않으랴. 침묵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서겠지.

아무도 없을 때면 안해는 나의 강철같은 《선언》에 불만을 품고 눈살이 꼳꼳해서 제판에 갑자른다. 그러다 안되면 한수 더 떠서 애교있게 설복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나는 안타깝게 외운다.

《취미와 재능, 기질에 맞게 애들을 키워야지, 자식들의 희망을 리해타산밑에서 요구하는 부모들의 <희망>으로 바꾸어놓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소. 그 애들의 희망을 잘 이끌어주어서 어떤 초소에서든지 참된 인간으로 되게 하는것이 부모구실을 하는게

거든... 나라에 찢어진 자식들을 내세우는게 아니겠소!》

어머니도 안해도 묵묵히 생각에 잠긴다. 내 말이 납득되었으며 종전에 간직했던 견해가 짧았다고 자인하는 표정이 어린다.

나는 행복에 잠겨 무리등이 명멸하는 수도의 밤거리를 내다보았다.

아, 대타령의 수수한 이 집에서도 더없이 귀중한 4 가지 희망이 커가고있지 않는가. 나라의 재부가!...

손녀

철부지 아이들에게서 배우는것도 하나의 생활이다. 나에게서는 그런 경우가 드문하다.

만팔 경옥이가 세거리유치원에 다니던 때였으니 몇해가 잘될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날 나와 안해, 만팔 경옥이 그리고 동생 봉근이와 제수 영숙이 이렇게 우리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말없이 둘러앉았다.

작지 않은 가문의 호주가 된 나는 웃사람으로서 진심을 토로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부모라곤 어머니 한분밖에 없다. 그러니 생존에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정성까지 모두 합쳐 어머니를 잘 모시자...》

나의 갈린 목소리에는 끝없는 후회와 결의가 진하게 풍기였다. 동생과 함께 제수와 안해는 심중한 낮색을 짓고있었다. 유일한 손녀인 경옥이는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말을 명심해 들었다.

한해가 지났다. 우리의 정성은 점차 범상해지기 시작했다.

대동강건너 주체사상탑거리의 새집에 세간나간 동생은 일이 바쁘다고 발걸음이 떠졌다.

70 고령의 어머니는 무릎관절로 자주 고통을 겪곤하였다.

내가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튿날 딸애가 삼촌네집에 약을 가지러 가자고 조르는것이였다. 얼마전에 동생이 어머니병에 특효인 동약을 마련해놓았다고 기별해왔던것이다. 딸애가 조르는바람에 그렇게 하자고 대답해놓고도 나는 다음날에도 동생의 집에 들리지 못하였다.

동생도 나처럼 하루하루 지내보낸것이 분명했다. 그와 함께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점차 삭막해져버린다.

또 하루가 지났다.

울상이 되어 책망하는 딸애의 지청구를 듣다가 나는 무심중에 한마디 던졌다.

《일이 바빠 그러는데 요다음에...》

《그럼 내 혼자 어떻게 찾아가나?》

《...》

한 시내안에 산다해도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빠스를 두번이나 갈아타고 동평양까지 찾아갈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이튿날은 월요일이여서 나는 봉화리에 출장나갔다가 한주일만에 돌아왔다. 바쁜속에서도 어머니의 병을 생각지 않은것은 아니다. 늙은이들이란 웬만해서는 참고 집안일을 맡아한다.

토요일에 집에 돌아올 때 빠스칸에서 그것을 더욱 절절히 생각하며 이번에는 꼭 동생네집에 들러와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집에 들어서니 문앞에 낮익은 동생의 신발이 보였다. 동생이 왔던것이다.

내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기뻐하자 늙은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월월 나다니는 사람들은 못가져오구 빠스길도 모르는 손녀애가 가져왔다.》

그 말씀에 나는 짙이는것이 있어 가슴이 뜨끔했다.

옷을 벗어놓으려고 먼저 옷방에 들어갔던 나는 책상위에 놓인 한장의 개봉한 편지를 보았다. 딸애가 연필로 또박또박 쓴 편지였다.

《삼촌, 왜 한번도 오지 않아요.》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밤에 잘 때면 나보고 났아달라고 해요. 할머니 정말 섭섭해해요. 삼촌이 마련한 약을 가져오면 할머니에게 달어드리겠어요. 꼭 부탁해요.

세거리유치원 높은 6반 경옥》

나는 사연을 깨달았다. 내가 책상앞에 써놓은 주소를 보고 편지를 쓴 딸애는 봉투에 우표를 붙িয়ে 문틀에 달아놓은 신문통에 넣었던것이다.

그 편지가 통신원의 손을 거쳐 동생의 마음을 사정없이 자극하였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아래방으로 내려갔으나 먼구스러워 마음을 다잡을수 없었다.

《형님, 내가 잘못했수다. 늘 바쁘다고 뛰어다니면서... 낳아준 제 어머니 한분을 잘 못모시는 사람이 나라를 받들면 얼마나 진심으로 잘 받들겠습니까.》

《... !! ...》

나 역시 같은 심정이었으므로 고개를 숙이고 피우지도 않는 담배가치를 꺼내들었다.

지금도 나는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한다.

행복의 요람

봄날의 진달래처럼 활짝 꽃핀 옷차림을 한 명랑한 네형제는 또 아버지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색깔 곱고 질 좋은 새옷을 비롯한 술한 선물을 안고왔다.

래일, 래일은 손꼽아 기다리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4월 15일이다.

아이들도 명절, 어른들도 명절, 우리 집전체가 명절이다. 해마다 받아안은 선물이지만 언제나 생각깊고 목메이는 사랑의 뜨거움이다.

록색 네온등빛이 비친 창가에 어린 웃음과 행복을 저 무한대한 우주의 별들도 부러운듯 눈들을 깜박거리며 들여다본다.

정말 부러울데지,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는 환희로운 명절 4월 15일.

밤깊어 아이들은 제각기 자기의 선물을 꼭 그려 안고 잠을 잔다. 어머니는 머리맡에 앉아서 별로 할 일도 없는 바느질감을 잡고 자정이 넘도록 잠들줄 모르신다. 살아온 한생을 더듬는것 같다.

경훈이, 경순이는 자면서 웃는다. 아마 꿈속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뵈옵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경옥이도, 경미도...

그 어느 집과도 마찬가지로 안해는 류달리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은 스스로 방안을 거둔다, 꽃송이를 머리에 단다 법석 끓는다.

그리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정성껏 마련한 향기그윽한 꽃화분을 정중히 드린다.

할머니는 시집을 때 허리춤에 넣어가지고 왔다는 몇십년전 밤빛 열레밋을 의논에서 꺼내 아이들의 머리를 또 빗어준다. 앞뒤로 돌려세워놓고 보아도

옷단장은 흠할데가 없다. 나라에서 바라는 그 차림새다.

이윽고 모든것이 다 깨끗이 정리된 다음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앉는다.

벽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경건해진다. 모두 감개무량하여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어루어듬는다.

아,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헤아릴수 없는 진리의 참뜻을 다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 시각보다 더 큰 행복을 모른다.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그윽한 아이들의 정기도는 눈가엔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는 모습이 력력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눈확에서도 안해의 눈가에서도 나의 눈시울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수난의 한생을 살아왔던 할머니, 이제는 《불행》과 《고통》이라는 말조차 사라져가는 우리 시대의 행복의 요람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아이들이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긴 나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애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뜨거운 정 용솟음쳐올라 마침내 축적된 감정의 최절정을 이룬 격렬한 분출인것이다.

우리 집안에는 행복이 가득 차넘친다.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는 그것, 오로지 뜨거운 심장만이 감수할수 있는 그것, 인간에게 가장 귀한 자주적존엄이 낳은 생활속의 웃음, 만족!...

참으로 우리 집은 그것이 넘쳐나는 요람이다. 아름답고 귀중한것이 싹트고 자라고 향기를 풍기는 요람, 우리 집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행복이 꽃피난다.

우리 일곱식구는 고마움에 목매여 조국에 진심을 바쳐 일할 강철의 맹세를 가다듬는다.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어머니, 안해,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진정을 터친다.

아, 아버지수령님의 품, 한없이 귀중한 당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이 있어 우리 집은 행복의 요람이라고.

아버지란 부름앞에

김룡팔

얼마전 나는 네쌍둥이를 둔 한 평범한 노동자가 정을 찾아간적이 있다. 후천기숙의 남향받이에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는 사랑의 2층건물!

갓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난 정원길로 흰 위생복을 입은 보육원들의 손을 잡은 네쌍둥이가 꽃에 날아드는 나비를 금시 덮칠듯 손을 뻗치며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있다. 보동보동 살오른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셔질줄을 모른다.

꽃도 웃고 아이들도 웃는다.

기쁨과 웃음 넘치는 정원! 행복의 요람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는 네쌍둥이의 귀여운 모습을 보느라니 나도 한결 젊어지는것만 같다.

나는 정원앞에서 마침 직장에서 돌아오는 네쌍둥이 아버지를 만났었다. 그는 기쁨과 자랑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당에서는 네쌍둥이를 위해 9명의 의사, 간호원, 보육원, 취사원, 세탁공들을 보내주었을뿐아니라 영양방, 잠자는방, 일광욕실, 목욕탕, 면담실까지 합쳐 십여간이나 되는 2층으로 된 새집을 주었다. 그리고 네쌍둥이가 학교에 갈 때까지 양육보조금의 배려를 돌려주는가 하면 대를 두고 전해갈 사랑의 은장도까지 안겨주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는것이다.

《나는 저 애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품에 안길 때마다 눈시울 뜨거워지군합니다. 자식들의 운명을 두고 한숨과 눈물로 보내던 우리 아버지의 지난날 생활이 가슴마쳐온답니다.》

그는 3대 《외독자》이다. 원래 그의 형제는 모두 7남매였다. 부두로동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7남매를 먹여살릴수가 없었다. 맏이는 낱은지 석달만에 메마른 어머니 젖가슴을 허비며 배고파 울다가 그대로 숨졌고 둘째는 약 한첩 써보지 못한채 병으로 죽었다. 셋째는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땅 어느 탄광의 버럭더미속에 묻힌채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다. 넷째도, 다섯째도...

이렇게 7남매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 피어나지 못한채 죽어버리고 그만이 외독자 아닌 《외독자》로 남았다.

《아야, 난 지난날 네 형들을 키워내지 못한 죄많은 아버지였다. 한데 너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온 나라의 복을 다 안은 아버지로 되었구나.》

60뽕생일상앞에서 술잔을 부어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떠듬거리는 그의 아버지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기자동지! 고마운 우리 조국이 아니였더라면 어떻게 네쌍둥이 아버지된 기쁨을 안을수 있구 이처럼 훌륭한 2층집에서 살며 행복을 누릴수 있겠습니까

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수 있단말입니까?...》

그는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는 가슴뜨거워올랐다.

짓밟히고 버림받던 그 세월에 7남매를 낳아서도 키우지 못하여 외독자 아닌 《외독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눈물겨운 생활, 온 나라에 떠받들려 행복속에 피어나는 네쌍둥이의 아버지가 된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

생활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돌이켜보면 지난날 아버지라는 이름은 기쁨보다도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의 대명사로 불리워왔었다. 자식들에게 하루 한끼 죽물마저 먹여살릴수가 없어 노예로동의 고역속에 시달려야 했고 굶주림속에서도 한가닥 배움에 대한 갈망을 안고 교실창가에서 울려나오는 글소리를 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학교울타리에 서있는 자식을 끌고가야만 했던 아버지들의 피멍이 맺힌 가슴들.

제 나라가 없고 돈이 없는탓으로 인간의 초보적인 룰리도덕마저 상실당한 부모로서 자식들앞에 죄 아닌 《죄》를 안고 뗏뗏치 못했던 아버지들이었다.

했으나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 그가 노동자이건 박사이건 도로관리원이건 농민이건 그리고 머나먼 출장지에 가있건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희망의 나라를 펴고 배우며 자란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거리였던 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아버지들이 온 나라에 떠받들려 못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시대인것이다.

수천수만년을 두고 내려오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속에 비껴있던 그들을 말끔히 가져주시고 인간의 참된 삶의 이름으로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

그 품을 사람들은 조국이라 부른다. 조국! 조국이 없으면 한가정의 세대주로서 빛이 없고 자식들의 운명에 대해 기약할수도 없으며 생활의 모든것을 잃게 된다. 조국이 있기에 저 네쌍둥이들이 꽃나비를 쫓으며 정원길을 걷는것이며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웃는것이다.

아이들도 웃고 아버지도 웃는다. 기쁨과 웃음만이 차넘치는 내 나라!

하기에 나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무심히 들을수 없고 들을 때마다 《어버이수령님!》 하고 목메여부르며 충성의 한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웨치고싶다.

아버지된 기쁨이 커갈수록 아버지로서 모든 기쁨을 누릴수 있게 마련하여준 조국앞에 뗏뗏한 위훈을 안고 언제나 자식들의 부름앞에 마주서자고.